

요 약

1. 연구의 목적

청소년기는 성적인 잠재기인 아동기로 부터 벗어나 제2차 성장이 발현되는 시기이다. 이때부터 급격한 심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성애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갖고 동경하게 되며, 이성교제를 원하게 되고, 성충동과 성적 갈등으로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신체적 성숙 연령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아져서 사춘기 연령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성교제는 문제 청소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보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최근의 추세는 이성교제가 점점 보편화될 뿐만 아니라 연소화하고 있다. 신세대의 특징중 하나로 이성친구가 있는 사람이 신세대라고 청소년들 스스로가 꼽고 있는 것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부모들이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어 질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청소년이 직면하는 성고민과 성적부적응을 해소하고 심신양면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성교제 및 성의식, 성행동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최근에 실시된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관련 연구는 단편적인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어 좀더 심도 있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체계적인 조사는 최근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시의적절 하리라고 본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양상을 다각적으로 다룸으로써 청소년이 성비행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성교제를 건전하게 지도할 실제적이고 유용한 기초자료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1)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경험,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2) 가족, 학교, 대중매체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과 어떻게 관련되었나를 밝힘으로써 사회 문화적 환경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3) 부모·교사·청소년지도자들의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 고민에 대한 이해와 이성교제 및 성고민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4) 이성애에 대한 건전한 관심과 태도를 가지고 성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성교육 실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일깨워준다.

(5)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성문제로 전락되지 않도록 성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

성적 성숙의 특징은 자기 자신 외의 대상 선택을 통한 인간관계에서 호기심과 성적 만족을 채우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성교제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 및 실제 성행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와 성에 관련된 내용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전반적인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양상파악을 시도한다. 사회과학적 연구는 태도와 행동(경험)으로 나누어지므로, 이성교제의 태도, 경험,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으로 나누어 실태를 조사한다. 실제로 이성교제와 성관계를 현재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성교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은 이성교제를 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태도에 대한 연구내용이 청소년의 이성관계 등의 추이를 시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교급별, 학교유형별, 남녀공학여부별, 성별, 학업성적별, 가족구조, 사회계층, 부모의 양육태도, 비행행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본다.

위의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성교제 및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 기술
- (2) 주요 독립변인에 따른 이성교제 및 성양상의 차이 검토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에 관한 고찰 및 선행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실증적 자료에 관한 비교 분석과 함께 조사대상인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 지역의 학생청소년으로 조사표본의 선정은 성별(남:여), 교급별(중학교:고등학교), 계열별(인문계:실업계), 남녀공학여부별(남녀공학:비공학)로 실제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학교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설문의 구성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23문항,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관한 질문 54문항,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관한 질문 21문항, 문제행동 경험여부에 관한 질문 6문항으로 총 104문항으로 되어 있다. 설문지는 먼저 국내외의 관련문헌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작성한 후, 예비조사를 통해 질문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설문조사는 먼저 1995년 6월 14일 57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본조사는 1995년 7월 4일 부터 13일 까지 실시되었다. 조사방법은 본 연구진이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회수하거나 담당교사에게 전달해 학교자체에서 학급단위로 실시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261부였는데, 그 중 1,20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34부를 제외한 1,171부에 대하여 SPSS/PC+ (ver. 3.0)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전산처리는 우선 각 문항의 항목별 응답빈도를 산출하여 필요한 경우 항목들을 재조정한 뒤 선정된 독립변인별로 교차분석(cross-tabulations)을 실시하였다.

4. 조사결과

이 연구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및 경험과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고민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보면, 청소년들은 대다수(86.3%)가 이성교제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용돈액수가 많을 수록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도 높았고 부모님이 자녀의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경우와 아르바이트나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친구를 사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인간성'이 절대적인 지지(68.9%)를 받았고 그 다음은 '외모'가 차지했는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은 이성과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 성적이 하위권 보다는 중상위권, 지위비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나 교사의 태도 등 이성교제 관련사항에 대해 보면,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32.3%)과 반대하는 입장(31.0%)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부모가 여학생의 부모보다 또 비공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보다는 남녀공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자녀와 대화를 자주하는 부모,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을 수록 허용도가 높았다. 부모님이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는 과반수 정도가 학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이성교제를 하게 될 경우 부모나 교사의 도움과 이해 또는 묵인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은 어른들로 부터 이성교제에 관한 도움말을 들은 경험이 있으나 실제 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을 아는 청소년은 매우 적었고 성교육 또한 이성교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도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 남녀공학 보다는 비공학의 학생이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성적 욕구를 느끼는 청소년도 10명중 8명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해소방법으로는 운동이나 음악감상 등 취미활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 성적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영상매체를 볼 때이고 가장 많은 성관련 고민은 성적 충동이며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는 상담 실이나 전문가와 상담하기 보다는 주로 친구와 상의하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관련 지식도 주로 친구를 통해 얻고 있다. 성행위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런 발달과정으로 보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는데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또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더욱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고 보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다는 청소년이 대략 반반씩 차지하고 있고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네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을 살펴 보면, 청소년 10명중 4-5명 정도는 미팅이나 소개팅의 경험이 있고 이성교제를 한번이라도 해 본 청소년은 절반 정도이며 현재 사귀고 있는 청소년도 4명중 1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 실업계 고등학생, 남녀공학 학생 보다 비공학 학생, 생활수준이 상하인 경우보다 중류층인 경우, 용돈액수가 많을 수록, 부모님이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도 이성교제를 원하는 청소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의 대다수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치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섯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구체적인 이성교제 실태를 보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최초의 교제시기는 중학교 때가 가장 많았고 교제 동기는 우연히 기회가 닿았다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부모님 모르게 사귀는 청소년은 4명중 1명 정도이고 이성교제가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청소년은 별로 없었다. 이들 청소년은 불규칙하게 만나 노래방이나 카페에 가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제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청소년도 많았지만 한번에 2만원 이상 쓰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차이가 많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교 학생, 생활수준이 높거나 용돈이 많을 수록 교제 비용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이성친구가 동성친구보다 서로 아끼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정도가 가장 많았지만 입맞춤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교 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육체관계의 경험률도 높았다. 그러나 이성교제에 따른 고민은 학교성적이나 성증동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없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해 살펴 보면, 남학생의 동정 시기는 중학교 1,2 학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여학생의 초경시기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성에 관심을 갖는 시기는 더욱 빨라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되어 중학교 1학년 정도에는 대부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인 접촉의 허용범위는 입맞춤이나 포옹까지는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허용적인 태도는 남학생과 고등학교 학생, 아르바이트 및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 입맞춤을 경험한 청소년은 5명중 1명 정도로 그 상대는 애인이나 이성친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교 학생, 인문계 보다는 실업계, 성적이 낮을 수록,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입맞춤 경험률이 높았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1170명 중에서 88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다.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교 학생, 인문계 보다는 실업계,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특히 성관계 경험률이 높았다. 이들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한 경우는 극히 적었는데 대부분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고 실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성교제는 성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성적인 문제에 있어 대부분 건전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청소년들은 이성교제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경험은 여자 보다는 남자,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높았고 이성교제 실태 전반에 있어 주로 관련이 있는 요인은 부모님의 이성교제 찬반에 관한 태도, 용돈 액수, 아르바이트 경험, 흡연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 청소년 지위비행 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성별에 따라 이성교제나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이 다르고 교급에 따라 달라지며 계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들 각 집단의 특수성을 파악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이성교제 경험이나 성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가 불건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망된다.

5. 제언

1) 이성교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전환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또래끼리의 응집력이 커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또래 관계의 하나인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음성적으로 되지 않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수용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며 동경하게 되고 이성교제를 원하는 시기이다. 조사결과 또한 이성교제를 경험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성교제를 원하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많았다. 이렇게 청소년에게 있어서 이성교제가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주 생활의 장인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인식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라는 식으로 이성교제를 통제해 왔다. 이성교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이러한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 교육방식에 반하여 음성적인 방법으로 이성과 교

제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2)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도 능력을 강화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성교제에 대한 지도 능력을 갖도록 한다.

부모는 평소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이성교제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녀 스스로가 이성교제 사실과 내용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도록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일상생활 중에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올바른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훈육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바람직한 부부상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상을 제시한다. 현대사회 가족문제 중 빈번히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부부불화의 문제인데 이는 부부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 중인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성관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바람직한 부부상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식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상(像)을 실생활에서 체득하게 한다.

청소년이 입맞춤, 성관계 등 성행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현대사회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 조사결과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일부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증명해 주었다. 청소년 자신의 성행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질문하지 않았지만 경험률의 증가 추세나 관련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이러한 성행동의 의미에 대한 성행동에 뒤따르는 책임은 고사하고 인식 조차 부재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행동을 이성친구와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부모는 이성교제가

성비행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이성친구를 존중하고 다치지 않게 해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순결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이성친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되 단 둘만 있게 되어 성비행을 저지를 만한 분위기를 갖지 않도록 성인이 없을 경우는 이성친구끼리 집에 있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을 학습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성교제시 지금까지의 성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을 아는 청소년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이들 수련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을 학습하고 이성교제나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4) 건전한 이성교제와 성교육을 위한 교육적 지원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을 확대 실시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녀공학 학생들이 비공학 학생에 비해 이성교제 경험률이 더 높다. 이것은 사춘기의 남녀가 격리되어 있을 때 이성을 이상화하여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남녀공학의 확대를 통해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이성에 대한 무조건적 반발감이나 환상을 가지는 대신 학교생활 속에서 남녀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평등과 서로에 대한 존경, 협력을 체득하게 한다.

이성교제와 성교육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한 교육과 성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들에게 이성교제의 의미, 방법, 예절 등을 알려주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그리고 이성교제시 유의해야 할 성문제 등을 알려 주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가치관 정립 및 실제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지금까지 성교육 프로그램에 이용된 외국에서 제작한 슬라이드나 비디오 테이프 대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료, 각 연령에 알맞은 다양한 자료가 제작·보급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접적인 교육 외에도 비디오, 만화 등 신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케이블 TV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다채널 시대, 전문채널 시대가 열리고 있고 기존 방송국의 방송시간 확대 등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TV는 더욱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TV매체를 통해 지금까지 전달된 기획물 중 이성교제나 성과 관련된 것은 거의 전무하나 그나마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보호 제로지대, 미성년자 가출의 현장」, 「막을 수 있나 10대의 가출」, 「인공유산」 등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비행을 중심으로 이성교제의 부정적인 측면만 흥미위주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기획물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건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획물의 제작과 보급이 필요하다.

중 고등학교 교과서의 이성교제 및 성교육 관련 부분의 내용을 개정한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성교제가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에서는 ‘일찍이 이성관계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학업을 통한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를 방해하여 자신의 발전을 막게 된다(중2 가정 p. 39)’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중2 가정 p. 39)’ 등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이성애에 대한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성교제의 불건전한 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정신

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이성교제할 때 충분히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정립시켜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생리적 지식만을 전달하고 있고 성을 종족보존의 수단으로만 이해시키려 하는 교과서의 내용 및 형식을 개정해야 한다. 성지식의 정도와 성지식의 출처에 관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청소년은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가치관으로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이 공식적인 통로로서 1차적으로 성지식을 획득하는 곳은 학교이다. 본조사 결과에서도 성교육용 자료와 책, 선생님을 통해서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0%를 넘는다. 그러나 교과서에 담긴 성교육 내용은 생리적 지식에 그치거나 그나마도 아예 외면되고 있고 성을 종족보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시키려 하는 등 혼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 교육은 제대로 이루지지 못하고 있다.

생물, 가정, 체육, 도덕 등 여러 과목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단편적이고 범위가 뚜렷하지 않고 중복되는 등 체계적인 면도 부족하므로 재구성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첫째,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내용이 그 각각의 발달 단계에 적절해야 하고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피상적이고 간략한 서술 대신 청소년의 현실적인 고민, 의문과 호기심을 진지하게 풀어 주면서 과학적인 성지식과 긍정적인 성가치관을 갖게 한다. 셋째, 동성애, AIDS 등 최근의 현안을 신속히 다루어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왜곡되고 편중되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성교육을 제공한다.

조사 결과 남학생과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은 이성교제나 성에 관련된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낮고 응답한 내용 또한 소극적인 것이 많아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형식이나 내용 또한 이러한 차별적 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 청소년이 같은 기준의 성교육을 받게 하여 현재 여학생의 순결에

치우쳐진 성교육의 시각을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평등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각 학교에 성교육 및 이성교제·성문제 상담 전문가를 배치한다.

각 학교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교사를 두어 성교육 및 이성교제·성문제 상담을 담당하게 한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지도하고 성문제를 예방할 위원회를 조직하여 상호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지도 방안을 세우도록 한다.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지도하고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지도 방안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한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이성교제와 성과 관련된 고민이 당연한 발달 과정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임을 인식시키고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 사항과 그로 인한 학부모의 고민을 교사 및 다른 학부모와 토의해 봄으로써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게 되고 지도 방안 또한 세우게 된다.

5) 성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변의 향락산업, 급격히 빠른 전파속도와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대중매체, 불건전한 성인문화 등 청소년에게 성적인 자극과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주는 사회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 통제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 성적 자극을 가장 많이, 쉽게 받는 것은 왜곡되게 묘사된 영상매체를 볼 때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출입이 가능한 퇴폐 향락업소 또한 성비행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과학의 발달로 컴퓨터 통신 등 새로운 매체들 또한 쉽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유해한

경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 대한 조정과 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관되고 강력한 국가의 행정력이 필요하다.

가정, 학교, 사회는 유해환경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 준다.

감시와 통제로 일관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성충동을 자극하는 환경에 대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도와 준다.

6) 기타

일탈청소년들에 대한 특별 지도가 필요하다.

이성교제가 성비행으로 발전하는 것은 청소년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가족문제, 학교에서의 부적응 문제 등—에 직면했을 때 이성교제가 바람직한 대인관계가 아닌 갈등의 도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놀이문화의 하나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일탈청소년에게 많이 일어나 이성교제와 성비행이 엄연히 다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단과 목적이 되기도 한다.

일탈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성비행을 미리 예방하고, 사후에 교정하여야 하며, 이들이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여 건강한 생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 1 장 서 론

청소년기는 성적인 잠재기인 아동기에서 벗어나 제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이다. 이때부터 급격한 심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성애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갖고 동경하게 되며, 이성교제를 원하게 되고, 성충동과 성적 갈등으로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신체적 성숙 연령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낮아져서 사춘기 연령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성교제는 문제 청소년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보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최근의 추세는 이성교제가 점점 보편화될 뿐만 아니라 연소화하고 있다. 신세대의 특징중 하나로 이성친구가 있는 사람이 신세대라고 청소년들 스스로가 꼽고 있는 것에서 더욱 명백해진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최근 청소년의 성문제는 사회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청소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단적으로 명시해주는 하나의 표징이 되고 있다. 청소년의 성문제는 고립된 핵가족화 및 노동구조의 변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 및 소비산업의 영향으로 야기된 문화구조의 변화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그러한 구조들의 변화를 들여다 보면, 첫째, 최근 청소년들의 성적 성숙이 과거보다 빨라지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평균 혼인연령은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소년의 이성애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격성으로 나아갈 잠재성을 지니게 된다. 둘째,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사회 문화적 변화에 기인하여 청소년들이 과거처럼 가족에 의해 통제되고 있지 못하다. 어느 시대나 부모와 자녀는 세대차를 보였으나, 요즘의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부모의 권위를 수용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청소년들이 가족에 의해서 더 이상 묶여 있지 않을 때 청소년들은 부모보다 더 많은 시간을 친구와 보내고, 친구에게 동조하므로 또래 친구에게서 심리적 지지를 구하게 된다.

셋째, 입시위주 교육이 낳은 파행적 교육에서 학교성적이 중상위권에서 탈락한 다수의 청소년을 위한 교육적 프로그램 없이 이들을 “날나리”로 또는 비행청소년으로 몰아가고 있다. 청소년들을 부정적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넷째, 산업사회, 후기 산업사회의 파행적 이행은 가치관의 공백을 가져왔고, 성도 자본의 논리를 타고 상품화되고 있다. 소비사회에서 인간과 사물의 사회적 관계를

결정하는 양식에서 육체도 소비의 대상이 되어 아름다움이 교환가치를 가지게 된다(브드리야르, 1992, pp. 189-197). 성 그 자체가 소비의 대상이 되고 성의 폭발 속에서 많은 소비품이 성적인 색채를 띄게 된다. 그런데, 특히 우리사회에서는 성상품화에 청소년이 편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성과학에 의해 저연령의 여자청소년을 선호하기까지 하는 기성세대의 저속한 성문화의 문제가 있다.

또 다른 후기 산업사회의 성관련 특징으로는 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이다. 성은 더이상 사회성원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자체가 쾌락추구의 하나로 변화되고 있는 문제이다. 이러한 성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이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주입되어 의식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다 사춘기의 청소년들은 성적 성숙에 의해 이성과의 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와 안정을 추구하게 되므로 일단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임신, AIDS 등과 관련하여 위험한 집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건전하게 지도 되지 않은 이성교제를 계기로 성비행으로 빠져 중퇴, 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집도 학교도 싫어요”라고 하면서 밤의 여인으로 전락한 가리봉동 일대의 여중고생 가출에 대한 충격르포(중앙일보 1995년 5월 9일 ~ 5월 14일)는 성비행의 잠재성이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실증해 주고 있다.

청소년의 성에너지가 문화활동, 스포츠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해 승화되지 못한 채 무책임한 성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들 삶의 실존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미혼모 문제가 여자청소년의 삶의 뿌리를 송두리채 헤쳐버리는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리고 AIDS문제로서 HIV 감염에서 AIDS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잠복기간이 장기간이므로 청소년기에 감염되고도 모르고 지낼 수 있어, 마치 청소년기의 성(性)은 사회가 주목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오인될 소지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청소년에게 전가하여 개인의 도덕성에만 호소하고, 청소년 문제에 대해 사회가 방관해 버리거나, 또는 통제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청소년의 이성교제, 성행동 문제이다.

사실 우리 사회의 퇴폐·음란문화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성에 대한 논의는 금기시 되어 왔다. 청소년의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성적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묵살해 버림으로써 문제의 뿌경을 밀봉해 왔다. 1984년에서 1994년 사이 10년간 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에서 상담한 청소년의 문제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에 의하면, 성지식, 성적욕구, 이성관계, 임신 등 성고민이 전체상담의 59.3%를 차지하고 그 밖에 40%정도가 학업, 진로, 교우관계 등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나고 있다(서울 YMCA·청소년상담실, 1994, p. 21). 그러나 이 밀봉된 성문제의 심각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자 사회나 학교는 어디서 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 지 몰라 당황하고 있다.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부모들이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해결되어 질 수 없는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청소년이 직면하는 성고민과 성적 부적응을 해소하고 심신양면으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성교제 및 성의식, 성행동에 대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최근에 실시된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관련 연구는 단편적인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어 좀더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체계적인 조사는 최근의 실태를 파악하기에 시의적절 하리라고 본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양상을 다각적으로 다룸으로써 청소년이 성비행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이성교제를 건전하게 지도할 실제적이고 유용한 기초자료로써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지금까지 언급된 문제의식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1)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경험,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다.

(2) 가족, 학교, 대중매체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과 어떻게 관련되었나를 밝힘으로써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3) 부모·교사·청소년지도자들의 청소년의 필요와 욕구, 고민에 대한 이해와 이성교제 및 성고민에 대한 상담 및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한다.

(4) 이성애 대해 건전한 관심과 태도를 가지고 성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성교육 실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일깨워준다.

(5)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성문제로 전락되지 않도록 성비행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내용

이성교제란 이성이라는 말과 교제라는 말이 복합된 것인데, 새우리말큰사전에 따르면 이성은 “서로 다르게 타고난 성질, 암수의 다른 성, 성이 다른 것. 남녀의 성을 달리 하는 것. 특히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음”이라고 되어 있고, 교제는 “서로 사귀. 사귀어 가까이 지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사귀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성교제는 흔히 “데이트한다”고 영어식으로 말해진다. 데이트는 영어로 “dating”이라고 표기되는데, 영미권에서 흔히 이 말은 젊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쌍방에게 유쾌한 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Hurlock, 1955 : 395). 따라서, dating은 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courtship(구애)과는 구별된다. 우리말에서 이성교제는 영어의 dating과 courtship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근의 우리나라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경우는 그 의미가 영어의 dating 개념에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친구의 개념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잡아 이성간의 특별한 애정관계의 의미와 일반적인 동성간의 친구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관계를 가지는 다른 성의 친구에 해당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성교제의 개념도 애정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동성친구같은 그러한 이성간의 친구관계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잡았다. 그 이유는 청소년의 모든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반드시 애인 관계는 아닌 요즘 청소년 문화의 특징을 고려한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점은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와 성에 대한 연구를 결합한 이유에 대한 것이다. 성적 성숙의 특징은 자기 자신 외의 대상 선택을 통한 인간 관계에서 호기심과 성적 만족을 채우려는 것에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성교제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 및 실제 성행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이성교제에 대한 연구와 성에 관련된 내용은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전반적인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양상 파악을 시도한다. 사회과학적 연구는 태도와 행동(경험)으로 나누어지므로, 이성교제의 태도, 경험, 그리고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으로 나누어 실태를 조사한다. 실태로 이성교제나 성관계를 현재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성교제와 성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청소년은 이성교제 및 성관계를 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태도에 대한 연구내용이 향후 청소년의 이성관계에서 행동의 추이를 시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교급별, 학교유형별, 남녀공학여부별, 성별, 학업성적별, 가족구조, 사회계층, 부모의 양육태도, 비행행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교차분석을 통해 그 차이점을 검토해 본다.

위의 연구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성교제 및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기술
- (2) 주요 독립변인에 따른 이성교제 및 성양상의 차이 검토

3.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첫째,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과 이론에 관한 고찰 및 선행연구에 제시되어 있는 실증적 자료에 관해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 관련기관의 전문가, 학교교사, 그리고 청소년문제에 대해 견해를 가진 분 총 19명의 면담, 그리고 21명의 청소년 자신들의 입장을 면담을 통해 최근 청소년의 이성교제 관련 문화와 요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 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인 표본에 대한 설문조사법을 통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은 서울 지역의 학생청소년으로 조사표본의 선정은 성별(남 : 여), 교급별(중학교 : 고등학교), 계열별(인문

계 : 실업계), 남녀공학여부별(남녀공학 : 비공학)로 실제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하여 학교단위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면접조사의 경우는 자료 수집이 예상보다 저조했는데 그 이유는 사춘기 청소년이므로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몹시 꺼리고 수줍어하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설문지는 먼저 국내외의 관련 문헌에 대한 연구를 기초로 작성한 후, 예비 조사를 통해 질문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먼저 1995년 6월 14일 57명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학생들에게 모르는 단어나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설문지에 자세히 적도록 지시한 결과, 많은 문항과 단어들이 수정, 첨가, 삭제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중학생 응답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어감이 좋지 않고 의미전달이 불명확한 키스, 육체관계, 성교 등의 단어는 입맞춤, 성관계로 바꾸었다. 특히 성교라는 용어보다는 sex라는 용어에 익숙하게 응답해서 성관계에 sex를 괄호로 기입해 넣었다.

‘성, 초경, 몽정, 자위행위’ 등은 단어의 뜻을 모르는 학생이 많아 기본적인 의미를 설명하였다. 자위행위에 관해서는 개별인터뷰와 예비조사 결과 은어로 ‘딸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 부가 설명하였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보기의 경우를 앞쪽에 두도록 수정하였다. 예를 들면 주관적 자기 평가에서 모범생을 앞으로 두었다. 성행동의 경험에서는 경험이 없는 경우를 앞쪽으로 두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 직업, 관계 등은 응답자가 보기 편하고,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아버지에 관련된 것, 어머니에 관련된 것으로 묶어 구분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이 사회적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인식되어 교육수준의 상승을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예비조사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무학/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이상으로 보기가 만들어 졌으나 ‘무학’과 ‘국민학교 중퇴, 졸업’에는 응답자가 거의 없어 무학과 국민학교 중퇴 및 졸업을 하나로 묶어 ‘국민학교 졸업이하’로 수정하였다.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관한 문항에서는 현재든 과거든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문항과 현재 이성교제하고 있는 경우에 응답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분했다. 즉 경험유무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는 전자로 묶었고, 전화통화시간 등 '현재'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는 후자로 묶었다. 그 이유를 예를 들어 보면, 이성친구를 가진 경험이 두명 이상일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요되는 데이트경비가 불가상승의 영향으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현재에 초점을 맞춰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은 수정을 거쳐 확정된 설문지의 구성은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23문항,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관한 질문 54문항,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관한 질문 21문항, 문제행동 경험여부에 관한 질문 6문항으로 총 10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조사는 1995년 7월 4일 부터 13일 까지 1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 방법은 본 연구진이 학교를 방문하여 직접 설문지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회수하거나 담당교사에게 전달해 학교 자체에서 학급단위로 실시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261부였는데, 그 중 1,205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34부를 제외한 1,171부에 대하여 SPSS/PC+ (ver. 3.0)를 사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전산처리는 우선 각 문항의 항목별 응답빈도를 산출하여 유효빈도가 극히 낮게 나타난 항목들은 다른 항목과 합산하여 문항을 재조정 한 뒤 선정된 독립변인별로 교차분석(cross-tabulations)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한계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이성관계 및 성에 대한 질문은 매우 개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솔직한 응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즉, 여자

청소년은 과소응답하고, 남자청소년은 장난삼아 과대응답할 문제가 있으므로 자신에 대해 성실히 응답하는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이 연구를 통해 추세의 변화라든가 일반경향의 변화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에 대한 설문조사를 서울지역에 국한하여 실시하였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현황으로 일반화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셋째, 연구 대상의 청소년들을 중고등학생에 제한하였으므로 근로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지 못했다.

넷째, 청소년 이성관계의 실제상황에 대한 파악은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빈번히 드나드는 락카페, 레스토랑, 디스코텍등에 대한 직접 현장관찰로 보완될 수 있으나 이 연구의 자료수집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 및 문헌연구로 제한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조사에서 표집한 청소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특성을 비롯해 가정환경, 부모와의 관계, 문제행동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중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의 집단간 비교에서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특성들은 다음의 <표 1-1>과 같다.

먼저 일반적인 특성으로 응답한 청소년의 성별 비율은 남자가 50.1% 여자가 49.9%이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9.7%, 고등학생이 50.3%이며, 고등학생의 경우 계열별로는 인문계 학생이 51.6% 실업계 학생이 48.4%이다. 남녀공학여부에 따른 분포를 보면 공학과 비공학이 각각 50.0%씩 나뉘어 있다.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님의 직업, 학력 등을 살펴보았으나 여기에서는 생활수준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만을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평가는 상이 10.9%, 중이 83.3%, 하는 5.8%이다.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형제관계, 부모님의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부모님과 의 관계 등 다양한 특징을 알아보았으나 그중 독립변인으로 사용된 것은 먼저

가족구조에 따라 친부모가 모두 계신 정상가족이 86.7%이고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라도 안계신 결손가족은 13.3%이다. 부모와 함께 사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함께 사는 경우가 96.8%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3.2%에 불과하다. 아버지와 대화 정도는 하는 편이 72.6%, 안하는 편이 27.4%이고,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는 하는 편이 91.5%, 안하는 편이 8.5%이다. 부모님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는 찬성하는 편이 33.0%, 그저 그렇다가 36.3%, 반대하는 편이 30.7%이다.

응답자의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모범생인지 아닌지 여부와 학업성적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학업성적만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평가는 상이 20.1%, 중이 56.7%, 하가 23.2%이다. 그 밖에 이성교제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므로 여가시간에 주로 하는 활동을 알아 보았으나 별로 관련성이 없었고, 이성교제를 하려면 데이트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아 용돈액수와 아르바이트 경험을 알아 보았다. 특히 아르바이트 경험은 데이트 비용을 벌 수 있는 기회임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성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므로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였다. 그 결과 한달에 받는 용돈의 액수는 1만원 미만인 9.6%,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은 20.7%, 2만원 이상 3만원 미만은 18.6%, 3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은 17.8%, 4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은 7.8%, 5만원 이상은 15.1%이며, 부정기적인 경우는 10.4%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여부를 보면 없는 경우가 73.9%, 있는 경우는 26.1%이다.

마지막으로 문제행동 여부에 관해 알아보기 위하여 흡연, 음주, 환각제 사용, 노래방 및 비디오방 출입, 유흥업소 출입, 가출 등의 경험 여부를 물어 보았으나, 환각제를 사용한 청소년이나 가출을 해 본 청소년은 거의 없었고, 음주는 마시는 빈도나 정도에 따라 문제행동으로서의 여부가 달라지나 그 구분을 두지 않아 대부분 경험한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노래방 및 비디오방 출입은 부모님과 함께 했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문제행동 여부의 평가자료로 활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흡연과 유흥업소 출입만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16.9%이고 습관적으로 피우지 않거나 경험이 없는 경우는 83.1%이며, 유흥업소를 출입해 본 경우는 23.3%이고 경험이 없는 경우는 76.7%이다.

〈표 1-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특성

(N=1171)

변 수	구 분	백분율 (%)	빈 도
성 별	남	50.1	587
	여	49.9	584
교 급	중학교	49.7	582
	고등학교	50.3	589
계 열	인문계	51.6	304
	실업계	48.4	285
공 학 여 부	공학	50.0	585
	비공학	50.0	586
생 활 수 준	상	10.9	127
	중	83.3	973
	하	5.8	68
가 족 구 조	친부모	86.7	1011
	홀아버지	2.7	31
	홀어머니	6.9	81
	친아버지+계모	2.0	23
	친어머니+계부	0.7	8
	양부모	0.5	6
	모두 안 계심	0.5	6
거 주 형 태	가족과 함께	96.8	1132
	친척집	1.4	16
	자취	0.7	8
	하숙	0.3	3
	기타	0.9	11

제 2 장 기초개념 및 선행연구 검토

1. 기초개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관련점들은 사춘기라는 발달단계와 관련되어 있다. 사춘기(Puberty)는 라틴어(Pubertas)에서 “성인에 달한 시기”를 의미하는데, 이말은 생식기관의 성숙으로 성적 기관이 작용하여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장병립, 1985a : 65). 사춘기의 급격한 신체적 변화는 성호르몬의 분비에 의하여 남녀의 제2차 성적 특징 및 심리적 변화와 함께 온다. 이러한 변화는 이성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이 때부터 성적 욕구를 가지게 된다.

1) 사춘기

(1) 사춘기의 발달

사춘기란 새우리말큰사전에 따르면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성선자극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되는 시기.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고 춘정을 느끼게 됨. 청년 초기로서 보통 15-20세를 이룸”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소녀의 경우 초경을, 소년의 경우 몽정을 경험하는 시기를 사춘기로 잡는 것이 보통이다. 1960년대에 비해 발육상태가 향상되어 호르몬의 변화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경과 몽정을 기준으로 하면 여자는 약14세 남자는 약 14.5세부터 사춘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성 및 성에 대한 관심은 초경이나 몽정이 나타나기 전에 발생하므로 심리적 측면의 성적 반응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리발달적 사춘기는 12세에서 14세 사이에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최상진, 1983 : 359).

G. H. Pearson은 사춘기적 발달을 대체로 10.5세 무렵부터 시작하는 생리학적 변화의 한 극점으로 보고 있고, L. S. Stone과 J. Church는 사춘기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청소년기가 시작한다고 보고 있으며, E. B. Hurlock는 사춘기적 성장과 변화의 중요성을 확신하면서 청소년기는 성적 성숙에 의해 시작하고 그것은 평균적으로 여자 13세 남자 14세라고 보고 있다(최동규, 1990 : 6).

미국의 경우는 여성의 초경 연령이 1850년대 이래 매 10년마다 4개월씩 내려가 최근엔 12.5세라고 한다(Dryfoos, 1990 : 66). 그리고 1960년대에는 19세기 말에 비해 사춘기가 2년 정도 빨라졌다고 한다(Coleman & Husen, 1985 : 17).

사춘기는 성적 성숙의 정도에 따라 사춘기전(prepubescent), 사춘기(pubescent), 그리고 사춘기후(postpubescent)의 3단계로 나누어 진다(장병립, 1985a : 65-66).

사춘기전 : 신체적 변화가 시작되었으나 생식기능은 미발달의 단계

사 춘 기 : 생식세포(sex cell)가 생식기내에서 생성중의 단계로서 아직은 신체적 변화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

사춘기후 : 성숙기관이 성숙하여 제2차 성적특징이나 신체적 특성이 충분히 발달한 단계

(2) 사춘기의 신체적 변화

성적인 잠재기인 아동기를 거쳐 사춘기를 맞이하게 되면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몇 가지의 성징이 나타난다(박기하, 1988 : 88). 먼저 남자의 경우는 음모가 생기며 겨드랑이 밑에도 모발이 생기기 시작하고 코밑에 수염이 나면서 목소리의 변성, 여드름의 발생, 골격구조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강인해지며 땀샘의 발달에 의한 발한과 남성적 체취 등이 강해지고 야간에 몽정을 경험하게 된다. 여자의 경우는 초경의 경험, 유방의 융기, 음모의 발생, 골반의 확대, 피부의 팽팽, 곡선적 체형, 땀샘의 발달에 의한 발한과 여성적 체취 등이 강해진다. 또한 급격한 신체적 성장에 의해 신장과 체중이 급속도로 증가하는데 남성의 성장 급등이 여자보다 더 강력하며 이 시기의 성장 급등은 매우 복합적인 것이어서 뼈와 근육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성장은 남자는 21세, 여자는 17세에 멈추게 된다(이문희, 1993 : 9-10, 재인용).

이와 같이 유별된 남녀의 특징을 제2차 성징이라 한다. 이때가 되면 육체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고 정신적인 면에서도 남자다운, 그리고 여자다운 특징을 나타내면서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각각 성숙해 가는 것이다. 물론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가 많으나 도시나 농촌의 지역간에도 차이가 있으며 가정 환경과 영양 상태에 따라서도 개인차가 많이 나타나고 심한 예에서는 5-6년의 차이가 있게 된다. 사춘기에 있어서 성징의 성숙 현상이나 변화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는 것이 보통이고, 여자는 일반적으로 남자보다 1년내지 2년 가량 앞서서 성숙된다(장병립, 1985a : 78). 이때가 되면 생식기의 변화뿐만 아니라 운동능력이나 내장의 각 기관도 같이 발달되어 13세를 경계로 하여 남아에서는 여아보다 뛰어난 운동능력을 가지게 된다. 반면 여아에서는 운동능력의 발달이 남아보다 뒤지기는 하지만 여자에서 가장 중요한 생식의 준비를 위하여 내부 생식기의 발달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때가 되면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여러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까지 마음에 의식하지 않았던 이성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솟아나게 되고 또 부끄러운 수치감 같은 것이 생기는 것도 이때이다. 이것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남성 호르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차츰 이성을 의식하는 의욕도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박기하, 1988 : 88-91).

여자아이들도 초경 후 남성호르몬의 분비가 있게 되나 남자아이에 비하면 그 양은 적으며 여자아이가 이성을 의식하는 것은 평균하여 초경 후 4, 5년이 지나서이다. 남자아이의 호르몬 양은 여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량이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태도와 관심이 강하고 능동적이며 이성을 의식하는 것도 여자아이보다 빨리 느끼게 된다. 소년의 경우 성적 성숙으로 인한 고환과 음경의 성장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사정에 대해 예비지식없이 경험하여 당황하고 불안해 한다. 사정경험에 대한 불안감과 성적 쾌감을 동시에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성적성숙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게 된다(김태련, 1992 : 34). 이와 같이 사춘기에 제2차 성징을 나타내게 하고 이성을 동경케 하는 원천은 체내에서 분비되는 여러가지 호르몬의 역할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사춘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호르몬은 뇌하수체 호르몬이다. 특히 뇌하수체의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는 갑상선 자극호르몬, 부신피질 자극호르몬 등이 있는데 성장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를 크게 하는 작용을 하며 성선 자극호르몬은 남자에게서는 고환을 자극하여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남성의 제2차 성징

을 출현시키게 되고, 여자에게서는 난소를 발달시켜 두 가지의 여성호르몬을 분비케 하여 여성의 생식기 발달과 더불어 여성의 제2차 성징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박기하, 1988 : 91-92).

사춘기의 이와 같은 급격한 성적 기능의 성숙은 이성애의 호기심으로 나타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이 이성애에 대한 호기심이 우리의 도덕적 사회적 전통이나 사회적 관습에 의해 억압당하게 될 때 성적 부적응을 일으키고,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서 성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한다(이계화, 1988 : 6, 재인용). 그리고 신체발달의 개인차로 인해 열등감을 가질 경우 사회적 적응에 곤란이 올 수 있고, 신체발달의 부조화에 의해 정서적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김태련, 1992 : 34). 청소년이 스스로 신체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변화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정보, 성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정체감, 가족의 분위기나 또래로부터의 지지가 필요하게 된다(이문희, 1993 : 10).

(3) 사춘기의 심리적 변화

제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육체적인 발육과 더불어 생리적으로 발모, 목소리의 변화, 정통 현상, 초조 등이 있을 때가 되면 심리적으로도 성인이 되어 가는 자신을 느끼면서 마음의 변화가 솟아오름을 깨닫게 된다. 경험하지 못한 성인세계의 입구에서 기대와 걱정이 엇갈려 불안감이 짙게 마련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하고 싶은 욕구와 의욕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다. 그러면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로 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게 되면서 미래의 자신에 대한 꿈이 불가능없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것 같이 희망에 가득 차 있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기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지능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도, 지능자체도 구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될 수가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게 마련이다. 이렇게 되면 불쾌하기 짝이 없고 관련된 상대나 이유에 대한 노여움을 품게 된다. 즉 욕구불만인 것이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유없이 화를 잘 내는 것은 청소년 자신의 역부족과 외부로부터의 지지가 원인이라고 한다(박기하, 1988 : 115-117). 이와 같이 사춘기는 신체적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보다 더 큰 심리적 경험을 하게 된다.

사춘기의 심리적 특징을 보면 첫째, 감각적인 사고와 외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시각, 청각, 촉각 등 각종 감각이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므로 외적 자극은 곧 행동의 원인이 된다. 성년이나 유아기에는 자극이 일단 자신의 판단능력에 따라 변용되지만 사춘기에는 무차별로 받아들여 행동에 옮기게 된다. 특히 감각적인 자극에 반응도가 높다. 좋은 것이거나 나쁜 것이거나 우선 그대로 흉내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 둘째,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고나 행동이 대부분이다. 구체적인 행동이나 생각을 가지기에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다. 구체적인 사고나 어떤 결론에 이르기 위한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곧 추상적인 사고뿐이다. 이 추상적 사고가 옳게 받아 들여지면 이에 기준하여 행동이 이루어 진다. 그 행동이 사회규범이나 관습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꾸준히 이어지게 된다. 적어도 그 생각이 지배하는 한에 있어서는 계속되는 것이다. 셋째,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춘기의 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개인주의 사상의 발달이라 할 수 있다. 모든 판단도 혼자 하기를 원한다. 넷째, 소외감, 고독감과 참가 의식이 공존하게 된다. 사춘기에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혼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차중환, 1989 : 27-28).

사춘기의 생리적 변화에 따라 이성과 성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에 달한다. 우선, 자신의 신체나 친구의 신체의 생리적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 후엔 이성의 신체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실제로 무엇이 변하는가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다. 그리고 나서 애정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하고, 성충동을 받는다(Hurlock, 1955 : 370). 성적 징후와 그 행동에 의하여 정서는 성적인 색채를 띠게 되며 급격한 성적 성숙과 더불어 성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수치심이 강해지고 이성애 주의가 끌리면서도 반발하고 또한 외부에 대하여 허세적인 반향이 커진다.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서적 독립이 주요 “발달과업”인 청소년들은 정서적 독립을 추구하여 부모나 다른 성인들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해진다. 그러나, 사춘기 동안의 급격한 신체적 성장에 따른 정체감 혼미에 의해 청소년들은 자신이 누군인가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소속집단에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어느 시기보다도 강하여 친구관계가

중요해 진다(김태련, 1992 : 37). 동성간의 우정 뿐만 아니라 이성간의 우정관계 및 이성교제도 중요해 지는데, 후자의 경우는 성적 성숙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다. 이 시기의 애정 정서 반응으로는 애정을 일으키는 대상이 가정에서 외부로 옮겨 동성친구에게 향하다가 곧 또래의 이성애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기 시작한다(이문희, 1993 : 11). 또한 이때가 되면서 이성애에 대한 마음가짐도 달라지게 된다. 특히 이성에게 잘 보여야 하겠다는 마음가짐은 다소 적극적으로 이성애 교제를 해 보고 싶은 의욕을 싹트게 하기도 한다. 이성을 구하고 싶은 마음은 동성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존재가 되고 싶은 것과 상통하여 경쟁심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외모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멋을 부리려고 한다(박기하, 1988 : 117).

2) 이성교제

(1) 이성관계 발달과 성적 부적응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성에게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 상태를 발전시켜 서로 사귀고 싶다고 느끼게 되는 현상은 자연적인 생리현상에 속한다. 누구나 다 경험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멀지 않았던 과거에 ‘남녀칠세부동석’이란 태도를 사회규범으로 삼고 있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남존여비의 사조 역시 아직도 여기저기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 때문에 성의 이중성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이성간의 사귀기를 원하는 자연현상과 이러한 사회의 규범 사이에는 간격이 있게 되고 청소년은 이 괴리에서 갈등을 느끼게 되지만 자연현상은 규범을 넘어 설 만큼 강렬할 수 있어서 이성간의 교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점차 활발해져 가고 있다(김정태, 1983 : 350). 서구 사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자연스러운 이성교제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의 일반적 경향으로는 이성교제를 애정관계로 발전시켜 생각하느니 보

다는 흔히 있음직한 우정관계의 범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남녀 양쪽이 모두 서로의 친구로 알고 같이 일하기를 원하고, 자기의 개인적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서로의 공동목표를 향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남녀 서로가 새롭고 보다 성숙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농후해지고 있다(박준희 외, 1989 : 122).

청소년기에 이성관계를 갖게 되는 3단계 과정에 대한 허록(Hurlock, 1955)의 논의를 최순남(1994 : 144-146)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① 송아지 사랑(Calf love)

- 일반적으로 청소년기 초기에 나타나는 현상
- 존경과 숭배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사랑의 형태
- 자기의 선생, 인기배우, 가수등이 대상
- 비교적 연장의 이성을 사모

② 강아지 사랑(Puppy love)

- 연령이 비슷한 이성에 대한 성적 관심이 처음으로 생기는 시기
- 이성접촉이 처음이므로 어색하고 불안정
- 마치 강아지들이 모여 장난하는 모습 같음
- 대체로 고등학교 상급학년에서 나타남
- 집단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짐

③ 연애기(Romantic attachment)

- 두 이성이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데이트하는 대상에게 열중함

이성에 대한 관심과 성적 자극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히 해소시키지 못할 때 성적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역으로 이성에 대한 적응 개념은 “이성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부여된 사회적 조건하에서 balance를 보지한 상태에서 정상하게 그리고 순조롭게 발달하여 가는 것”(장병림, 1985a : 219)을 말한다. 이러한 성적 적응을 저해하여 부적응을 가져오는 사회적 심리적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있다(장병림, 1985a : 100-3, 100-4).

① 이성과의 올바른 교제나 접근할 기회 부족

② 사회나 가정의 분위기가 남녀간의 교제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함으로써 문제 초래

③ 유해환경으로 인한 성적자극

④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열등감

⑤ 가정내에 불화, 긴장이 청소년의 관심을 딴 곳으로 돌려 성에 대해 부적응을 가지게 됨

이러한 성적 부적응 가운데 사회 심리적인 증상으로는 성에 대한 극단적인 수치심, 이성을 기피하고 이성에 대해서 반발을 일으키거나, 성에 대한 호기심, 그리고 성적 폭력이 있다.

(2) 이성교제의 기능

이성교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김양희, 1989 : 105-108; 이효재, 1989 : 204; Hurlock, 1955 : 399).

첫째, 사회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성교제는 성숙한 두 남녀에게 상호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각자의 역할을 인지하게 하고 상호관계의 기술을 발전시켜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성교제를 통하여 두 남녀는 개인의 심리적 욕구와 열망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이성과 직접 만나 교제하면서 이성에 대한 적응력을 기르게 되며 자신에게 주어진 성적 역할을 경험 습득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사회화의 계기를 가진다.

둘째, 애정과 이성에 대한 낭만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을 누그러뜨리게 한다. 이성과 사귀어 보기 전에는 애정과 이성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을 수 있다. 직접 교제해 봄으로써 이런 문제를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자신감과 안정감을 주고 정서적인 균형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입시위주 교육에 대한 긴장감, 정서적 황폐때문에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원하게 될 것을 유추하게 한다.

네째, 이성교제가 청소년으로 하여금 또래 집단에게서 인정받게 해주고, 위광을 가져다 준다. 동성집단간에서 뿐만 아니라 이성집단 간에서도 개인적 지위를 확보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학교성적이 중하위권에 있는 학생에게 오기 쉬운 열등감을 이성교제를 통한 지위확립으로써 만회하려고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해볼게 된다.

다섯째, 자아평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성교제를 통한 두 남녀 간의 상호접촉은 상대방의 반응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 및 자아의식을 성숙시킬 수 있다. 특히,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투사하여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자기평가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젊은이들은 사회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정상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성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정신적인 안정과 자아의식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정상적인 인격성장을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오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젊은 남녀는 이성교제를 통하여 여가를 즐기고 낭만적이고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며 자기생활에 흥미와 만족을 느낄 수 있다.

일곱째, 배우자선택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성교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배우자선택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성교제를 하는 많은 남녀는 미혼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혼상대자를 찾으려고 한다. 상대방을 결혼상대자로 결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이성과의 교제경험은 이상적인 배우자선택을 위한 연속적인 과정에 포함된다.

여덟째, 이성의 적응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성과 직접 만나고 친해지고 사귀는 가운데 어색함과 수줍음과 자기의식적인 상태를 서서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일반적 사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성숙한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3) 이성교제의 문제점

이성교제에 수반되는 문제점(최신덕, 1983 : 46) 가운데 청소년과 관련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전의 성행위 통제가 문제된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신체적 접촉이 없을 수 없게 되며, 어느 정도에서 신체적 접촉을 제한할 것인가가 지위비행의 문제와 관련된다.

둘째, 학생의 경우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문제가 있다.

세째, 이성교제에서는 경쟁적 요소가 강조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따라서는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줄 수도 있다.

네째, 이성교제를 잘못하면 유희행동이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퇴폐적 행위로 끝날 경우가 많다.

남녀간의 교제를 갖고자 하는 현상은 성호르몬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교제는 처음에는 만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 그러나 생리적인 현상에는 또 어떤 자극에 대해 곧 적응하고 받아들이는 현상이 있다. 호르몬의 작용은 좀 더 발전되고 강렬한 자극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이 특히 이성교제에 뒤따르게 되어 문제를 만들게 되는 요인이다(김정태, 1983 : 353-354). 따라서 사춘기에 대한 사전 준비나 지식없이 이성애 처음 관심을 갖게 되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를 성에 대한 발달과업의 일부로서 건전하게 성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1)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및 행동의 발달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대학원 학위논문에서 다루어져 왔는데 최근의 연구도 예외는 아니다(강태순, 1993; 고애자, 1990; 김대식, 1981; 김문환, 1994; 김미숙, 1987; 김선희, 1978; 김영희, 1992; 김종희, 1991; 김찬치, 1986; 김한경, 김정자 & 한혜경, 1988; 류혜옥, 1986; 박은주, 1993; 엄주정, 1972; 이제화, 1988; 이문희, 1993; 이순열, 1991; 이양남, 1984; 장정애, 1990; 정은경, 1992; 최동규, 1990; 최영기, 1982). 그 밖에 최근의 연구로는 청소년의 의식연구라든가 가치관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이성교제와 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권이종 & 김문조, 1993;

이장현, 1994; 한국궐립조사연구소, 1991). 본 연구의 문헌검토는 변화의 추이를 보기 위한 것 외에는 가능한 한 최근의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1) 사춘기의 발달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가치관을 조사한 박은주(1993)의 연구에 따르면, 최초로 성에 대한 관심을 가진 시기가 국민학교때인 경우는 29.9%였고 중학교때인 경우는 62.8%, 고등학교때는 7.3%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앞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심리발달적 사춘기는 12세에서 14세 사이에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된 것과 부합되고 있다.

(2) 이성 및 성에 대한 지식정도 및 정보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성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민이 있다는 응답이 45%내외에 달하고 있다(이제화, 1988; 김영희, 1992). 성고민의 내용은 이제화(1988)에 의하면 신체구조 및 2차성징에 대한 고민(11.1%), 성충동(10.0%), 이성문제(8.7%), 자위(4.6%), 월경이나 몽정(3.9%) 등이다. 이문희(1993)의 조사에서는 성문제로 고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55.4%가 없다고 응답했고, 그 다음이 성충동(22.8%), 신체구조 및 2차성징(11.0%) 등으로 나오고 있다. 김영희(1992)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민의 원인은 이성문제가 가장 높은 37.8%, 성충동이 27.7%, 신체구조 및 2차성징이 17.0% 등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신체구조 및 2차 성징, 성충동, 이성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문제의 의논상대는 이제화(1988)에 의하면 친구가 32.4%, 스스로 해결이 25.1%, 잡지나 서적이용이 12.0% 등이다. 성고민의 해결방법에서도 친구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30.3%, 스스로 해결이 23.4%, 어머니가 14.5%, 가족이 6.4%, 해결못함이 6.3% 등이다. 다른 연구(고애자, 1990)에서도 성고민상담자는 친구가 47.3%로 가장 많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가 19.1%, 부모님이 14.7%, 형제 6.7%, 담임선생님 4.2% 등이다. 김영희(1992)의 조사에서도 성문제의 상담자로는 친구(57.1%)를 가장 원하고 있고, 다음은 부모(19.9%)인 것으로 나타

났다. 성문제의 상담자로 원하는 대상 역시 이와 비슷해서 친구가 29.0%, 스스로 해결이 24.0%, 어머니가 22.5%, 선생님이 6.5%, 서적이용이 5.3% 등이다(이계화, 1988).

청소년들이 부모를 성고민의 대상자로 약 다섯 가운데 한명 비율로 원하고 있으나, 실제 의논 상대자로는 그 보다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나 교사들 고민의 의논 대상자로 하기 보다는 친구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다른 주제의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성고민에 대해서도 친구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성지식을 얻는 대상 혹은 경로는 교여자(1990)와 박은주(1993)의 조사에 의하면, 친구들이 60%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의 성지식 출처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이계화, 1988;정은경, 1992)에서는 35-50%의 비율로 친구가 성지식의 습득원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연구물에서 친구가 성지식을 얻는 대상으로 지적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응답율로써 지적하고 있다. 잡지 및 성인 일간지, 책이 60%를 넘게 청소년들의 성지식 출처로 나타나는 연구결과도 있다(최동규, 1990). 김영희(1992)의 조사에서는 성지식의 출처로 비디오가 26.2%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친구 18.2%, 교사 17.6%, 잡지 16.4% 등) 청소년에 대한 대중매체의 영향력의 증대를 볼 수 있다. 박은주(1993)의 조사에서는 성지식을 얻는 매체로 친구가 66.0%, 대중매체 21.9%, 선생님이 9.3% 등이다. 선생님이나 학교수업으로 부터 성지식을 습득한다는 비율이 25%-46%로 나타난 선행연구도 있으나(이문희, 1993; 교여자, 1990; 김종희, 1991;정은경, 1992), 부모로 부터 성지식을 얻게 되는 경우는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종희, 1991).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성지식 습득원은 대부분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친구들로 나타나고 있고, 성인용 대중매체를 그 다음으로 꼽고 있으며, 학교 교사를 성지식의 주 출처로 꼽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를 보면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친구들에게서 성지식을 습득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장정애, 1990), 이것은 또래 집단의 불완전한 성지식에 의해 성고민을 악화시킬 우려를 지니고 있다.

이성교제는 반드시 자기 밖의 다른 대상 선택을 통한 인간관계를 가지는 것이고

또 그 상대자가 다른 성이므로 자연히 성자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성에 대한 태도, 지식, 행위가 이성교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과 관련된 사항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성에 대해 호기심이 많은 부분은 고애자(1990)의 연구에 의하면, 남녀간의 성관계가 54.6%, 생리적 구조가 13.8%, 임신출산에 대한 사항이 10.5% 등이다. 최동규(1990)의 조사에 따르면 성에 대한 지식정도가 전체의 42.6%는 학교수업시간에 배운 수준이고 성인보다 많이 아는 수준은 39.7%가 응답했다. 성에 관한 용어의 인지도는 정자, 난자, 강간, 임신, 자궁, 에이즈, 월경, 낙태 등은 100%가 인지하고 있고, 매독, 인공수정, 미혼모, 동정, 성행위, 음란비디오 등은 90%이상이 인지하고 있으며, 피임기구, 피임약, 자위행위 등은 80%이상이 인지하고 있다. 용어의 인지도와 달리 실제로 그 용어와 관련된 성지식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김영희(1992)의 조사에서는 남녀 신체구조는 30.9%, 정자 및 난자는 18.9%, 사정 및 동정 26.7%, 월경 및 배란 30.1%, 임신 출산 인공수정 22.0%, 피임 22.3%, 자위 25.2% 등이다. 이문희(1993)의 조사에서는 월경에 대해 82.5%, 사정에 대해 68.4%, 임신과정은 19.4%, 아기의 탄생은 73.1%, 에이즈는 81.3%, 인공임신중절은 35.4%가 알고 있었다. 주관적인 성지식의 정도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62.1%, 충분히 알고 있다는 33.2%였다. 그런데 이러한 성지식의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성지식 정도가 더 높았다(정은경, 1992).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성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정작 임신과정, 피임과 같은 중요한 성지식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응답율이 20%내외로 극히 낮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알고 싶은 성지식으로는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종희(1991)의 조사에 따르면 남녀의 차이 8.0%, 생식기의 구조 및 생리 4.5%, 올바른 이성교제 24.6%, 2차성징 및 사춘기의 특징 10.9%, 자위행위의 해결방법 10.1%, 성도덕 11.9%, 과도한 이성생각 14.4%, 성충동 6.3%, 결혼과 임신 9.3% 등이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이성교제에 대한 구체적 교육 및 지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시내 국민학교 고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들에 대한 성교육실태를 조사한 장정애(1990)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들이 성지식에 대해 조금 알고 있을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70.5%로 가장 많고,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없다가 19.5%, 전혀 모를 것이다가 8.0%로 나타나 있다. 자녀들의 성지식 습득방법에 대해서는 잡지, 영화, TV등 정보매체가 53.8%, 아동들의 동료집단이 19.9%, 가정 생활 가족관계가 13.5%, 학교교육이 12.8%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녀의 성지식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예측하는 바와 달리 중요한 용어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주요 성지식 습득 출처가 친구들이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부모들이 자녀의 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보여준다.

(3)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및 동기

한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고애자 : 1990), 동성친구와 비교해 이성친구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10.9%밖에 안되나,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도는 ‘매우 관심있다’와 ‘관심있는 편이다’를 합하면 두명중 한명을 약간 상회하는 비율(53.3%)로 이성친구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관심은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 고3 여학생과 같은 나이의 여성 근로자간의 결혼관을 비교한 김미숙(1987)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전의 이성교제에 관해 전체적으로는 50.5%가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냈고, 집단별로는 여고생의 47.7%, 여성 근로자의 53.4%가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내 남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계화(1988)의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의 69.5%, 여학생의 44.1%가 이성교제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애자(1990)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31.6%가 이성친구와 꼭 사귀고 싶다고 응답했고, 성별로는 남학생(35.0%)이 여학생(27.2%)보다 더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와 ‘바람직하다’를 합산할 경우 47.2%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종희(1991)의 조사에 따르면 이성교제에 대한 긍정적 견해로 75.4%가 응답하고, ‘학생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가 15.0%, ‘나쁜 일이다’가 1.1%, ‘잘 모르겠다’는 8.5%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연구의 대상자나 방법에 따라 응답율에 차이가 나나, 1990년까지는 일반적으로 70%까지의 응답율로써 중고등학생들이 이성교제에 대한 필요성과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최상진은 1983년 연구에서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문헌들을 종합하여 성별로 추론한 결과에 의하면 남고생의 경우 약 80% 내외가, 여고생의 경우는 70% 내외가 이성교제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최상진, 1983 : 366). 김한경 외(1988 : 29)와 이순열(1991 : 45)의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의 64%에서 84%까지가 이성교제를 허용하고 고등학생의 97.4%가 압도적으로 이성과의 데이트를 허용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1994년의 김문환(1994 : 36)의 조사에서는 인문계와 실업계를 반반씩 조사대상으로 했을 경우 92.6%라는 높은 이성교제 찬성율을 보인다. 그러나 1993년 서울시내 전역의 남녀 중고등학생 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문희(1993)의 조사에서는 이성교제에 대한 허용정도는 83.1%에 달하나, 실제로 이성교제의 희망여부에서는 지금 당장 원한다는 응답율과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는 응답율을 합산할 경우 70.3%가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1980년대말 부터 1990년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가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절대다수가 이성교제를 원하거나, 필요로 하거나, 허용하고 있다.

성에 대한 관심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정은경, 1992), 성에 대한 관심중 이성교제를 원하는 이유는 전체의 36.5%가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이기 때문에 원한다고 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호기심과 흥미가 있기 때문에(23.5%), 이성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19.8%)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는 이제화(1988)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서로 배울점이 많을 것 같다는 이유가 57.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12.3%), 이성에 대해 알 수 있게 되므로(9.9%), 경험을 쌓기 위해(6.6%)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원하는 이유에서나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에서 자연스러운 성장과정으로서, 그리고 서로 배울점이 많을 것 같다는 이유에서 이성교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성교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보면, 이성교제를 원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화(1988)의 남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볼 때, 전체적으로 54.7%가 아직 학생이므로 이르다라고 응답했고, 그 다음으로 공부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21.1%)로 나타났다. 고애자(1990)의 조사에 따르면, 이성교제의 장점으로 이성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태도를 갖게 한다는 것에 전체의 38.9%, 이성에 대해서 좀더 바른 이해를 한다에 전체의 31.3%가 응답한 반면, 단점으로는 정신적으로 산만해진다는 35.1%, 주위에서 이상하게 본다는 28.0%가 응답했다. 정은경(1992)의 조사연구에서 이성교제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전체의 42.9%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에 가장 높게 반응하였고, 그 다음은 나쁜 길로 빠질 것 같아서가 27.8%, 성적이 떨어질 것 같아서와 용돈과 시간낭비일 것 같아서가 각각 11.9% 등이다. 이와같이 공부와 관련해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때문에, 연구에 따라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성교제를 원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성친구의 필요성을 느낄 때는 혼자 외롭게 있을 때가 45.1%로 가장 높았고, 친구들이 이성친구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가 35.1% 등이다(고애자, 1990). 발달과정에서 오는 심리적 소외감과 또래집단의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성을 사귀게 되는 경로 또는 계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것은 친구 소개로인데 29% - 45%의 응답율을 보이고, 그 다음으로 국민학교 동창인 경우, 학교나 종교기관 및 클럽 활동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우연히, 그 다음으로 학원이나 독서실로 나타났고, 극소수가 부모의 소개, 롤러스케이팅장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이계화, 1988; 고애자, 1990; 김종희, 1991; 정은경, 1992; 김영희, 1992; 이문희, 1993).

(4) 이성교제 경험

부산시내 남녀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계화(1988)의 1988년도 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의 19.2%, 여학생의 10.7%가 실제로 이성친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1990년도에 광명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성친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고애자(1990)의 연구에서는 전체의 31.8%가 이성친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연령층에서 이성교제에 더 활발한 경향을 볼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대도시의 변두리에 위치한 소도시에서 이성교제율이 더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주시와 전라북도내 읍 면의 중 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종희(1991)의 조사에 따르면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경우는 37.1%였고, 현재 이성교제 중인 경우는 20.8%, 과거에 한 적이 있는 경우는 16.1%,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경우는 23.6%였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1992)의 조사에 따르면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전체적으로 45.5%이고, 남학생(56.4%)이 여학생(34.4%)보다 많았다. 이성친구를 사귀는 경험에 있어서는 전체의 59.9%가 있다고 응답했고, 이 경우에도 남학생(66.7%)이 여학생(53.2%)보다 많았다.

서울 시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문희(1993)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6.0%가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22.0%)이 여학생(13.9%)보다 경험률이 높았다. 박은주(1993)의 조사에서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63.3%를 차지하고 있다. 부천시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은경(1992)의 조사에서도 이성교제의 경험정도에 있어서 총점 5에 대해 남학생은 2.28, 여학생은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과 근로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최동규, 1990)에서는 좀 더 높은 85%의 이성교제 경험을 보여 실업계 고등학생 및 근로청소년의 이성교제율이 일반 인문계 중고등학생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성교제에 대한 경험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확실히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험의 정도를 볼 때 1990년 이후엔 다섯가운데 셋은 이성교제를 이미 해봤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제의 정도는 동성친구와 같은 친구사이가 54.8%로 가장 많고, 동성친구보다 가까운 사이는 26.6%, 알고 인사하는 정도가 10.7%등이다(이문희, 1993). 이성교제에서의 신체접촉 경험은 손을 잡은 경우가 58.8%, 입맞춤이 15.6%, 여자의 가슴 애무가 15.0%, 임신가능한 성적행위가 10.6%였다(최동규, 1990). 다른 연구(김영희, 1992)에서는 입맞춤·애무의 경험이 전체의 26.3%로 남학생(37.9%)이 여학생(14.8%)보다 많았다. 연구에 따라 다른 교제 정도를 보이나, 입맞춤·애무가 26%-31%로 나타나고, 성관계도 10명 가운데 1명은 가진 것으로 드러나, 부모

나 교사의 지도나 감독이 미치지 않는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성행위로, 성문제로, 성비행으로 빠질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2)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

(1) 성적욕구 충족행동

최동규(1990)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12.9%가 성교경험이 있고 집단별로는 실업계 학생(10.9%) 보다는 근로청소년(15.1%)의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전체의 29.0%는 기회가 오면 해보고 싶다고 응답했다. 실업계학생과 근로청소년을 전체로 볼 때 약 43%는 성교를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할 가능성을 비쳐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이미 성에는 노출됐거나 노출될 잠재성을 안고 있다. 참고로 윤락가에 가 본 경험 유무에서 못가본 경우가 73.8%였고 친구와 같이 가 본 경우가 5.9%, 혼자 가본 경우가 1.2%였다.

성경험을 하게 된 최초의 동기는 전체의 65.8%가 호기심에 가장 높게 반응했고 그 다음으로 강제로가 18.4%, 피임에 빠져서가 10.5% 등이다(정은경, 1992).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1992)의 조사에서는 전체의 14.8%가 성교경험을 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24.0%)이 여학생(5.7%)보다 경험률이 높았다. 이문희(1993)의 조사에서는 성적충동 해소방법으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가 전체의 3.9%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는데, 남학생(3.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은주(1993)의 조사에서는 사창가 출입경험이 있는 경우가 13.1%이고 성교경험은 9.5%이다.

이와 같이 10%-15%의 청소년들이 성경험을 이미 가져 본 것으로 드러났고, 성적 충동을 실제로 성경험을 통해 해소하려는 잠재성까지 합하면 상당히 높은 비율의 청소년들이 성경험 쪽으로 기울어 질 것으로 보인다.

(2) 혼전 성관계에 대한 태도

혼전 순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전체적으로 55%-71%의 청소년이 꼭 지켜

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고(김미숙, 1987;김영희, 1992;이문희, 1993;최동규, 1990), 사랑하는 사이이면 혼전 성관계가 괜찮다, 혹은 혼전순결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전체적으로 24%-40%에 이르고 있다(김영희, 1992;박은주, 1993;최동규, 1990).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는 도덕적 양심때문이라는 반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서, 정신건강, 임신우려 등으로 응답하고 있다. 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는, 서로 사랑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현대인에게 순결성의 태도는 별문제가 안된다는 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남녀 모두 순결을 꼭 지켜야 한다는 반응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게 응답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24%-40%의 청소년이 혼전순결을 꼭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므로, 앞으로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사전교육이나 성교육 없이는 AIDS에 노출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볼 수 있다.

앞에서 간략히 검토한 최근의 청소년 이성교제 및 성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이 항상 일관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이성관련 태도와 행위가 폐쇄적이고 남녀분리적인 전통적 가치관과 행위로 부터 벗어나 개방적인 관계로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양상과 동시에 대담하여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양상도 함께 보인다.

그러나 이성과 관련된 이러한 연구가 포괄적으로 다 다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아르바이트, 교제기념 선물주기, 통신기기 이용등과 같은 최근의 변화하는 청소년의 행태와 문화를 반영한 연구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소년의 최근 문화와 사회적 특징을 반영한 포괄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 부터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제 3 장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1. 이성교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1) 이성교제의 필요성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86.3%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는 대부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교급별로만 약간의 차이가 있어 고등학생의 경우 이성교제가 필요없다고 보는 응답이 10.8% 뿐이나 중학생은 16.6%로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성교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사춘기를 3단계로 나누어 볼 때 사춘기전과 중간의 사춘기 단계는 성숙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주된 원인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는 대체로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반해(최상진, 1983;이계화, 1988;고애자, 1990), 이 조사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제는 성별과 무관하게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님이 이성교제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그저 그렇거나 반대하는 편인 경우에는 각각 82.0%와 84.1%가 필요하다고 보아 별 차이가 없으나 찬성하는 편인 경우에는 93.0%로 더욱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돈액수에 따라서는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에 있어 용돈이 5만원 이상인 청소년은 92.7%이나 용돈액수가 낮아질 수록 찬성비율도 조금씩 낮아져 용돈이 1만원 미만인 청소년은 80.2%이고, 용돈을 부정기적으로 받는 청소년의 경우는 77.5% 만이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성교제를 하기 때문에 많은 용돈을 쓰는 것으로 설명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용돈과 이성교제의 관계는 엄격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 강조된다.

아르바이트 경험여부에 따라서도 경험이 없는 경우는 83.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음에 반해 경험이 있는 경우는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가 93.7%에 이르고 있어 아르바이트를 해 본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이성교제의 필요성

(단위 : %)

	필요	불필요	(사례수)	χ^2
전체	86.3	13.7	1163	
교급				
중학교	83.4	16.6	578	7.91**
고등학교	89.2	10.8	585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 편	93.0	7.0	371	21.91**
그저 그렇다	82.0	18.0	423	
반대하는 편	84.1	15.9	358	
한달 용돈				
1만원 이상	80.2	19.8	111	19.12**
1-2만원	85.1	14.9	241	
2-3만원	88.4	11.6	216	
3-4만원	87.1	12.9	209	
4-5만원	88.9	11.1	90	
5만원 이상	92.7	7.3	177	
부정기적	77.5	22.5	120	
아르바이트 경험				
없다	83.6	16.4	856	19.23**
있다	93.7	6.3	303	
출연 경험				
없다	85.0	15.0	957	9.54**
있다	93.3	6.3	194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다	84.0	16.0	885	19.24**
있다	94.4	5.6	269	
	* P<0.05	** P<0.01	*** P<0.001	

흡연경험과 유흥업소 출입경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는 85.0%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경험이 있는 경우는 93.3%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유흥업소 출입경험이 없는 경우는 84.0%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경험이 있는 경우는 94.4%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 청소년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청소년 이성교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욱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한 경우 그 이유로는 이성친구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26.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는 이성을 존중할 줄 아는 자질과 태도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23.3%, 즐거움을 더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경우는 15.2%, 서로에 대한 격려 등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므로가 13.3%, 슬픔과 고독을 달랠 수 있음으로 12.8%,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으로가 9.2%의 순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통해 직접적인 즐거움이나 위로를 얻고자 하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성찰이나 상대 성에 대한 이해 등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개체가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 변화해 나가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을 건전한 방향으로 가지는 태도임을 보여준다.

〈표 3-2〉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단위 : %)
이	유	백분율 (%)
이성친구를 통해 나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26.2
즐거움을 더할 수 있으므로		15.2
슬픔과 고독을 달랠 수 있으므로		12.8
서로에 대한 격려 등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므로		13.3
이성을 존중할 줄 아는 자질과 태도를 기를 수 있으므로		23.3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므로		9.2
계		100.0

2) 이성친구 선택기준

이성친구를 사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가 무엇인지를 물어본 결과 인간성이 69.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외모로 18.0%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 이 두가지 요소 중 하나를 가지고 이성친구를 선택하고자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요소들은 응답자 수에 있어서 거의 차이가 없으나 장래성(4.2%), 돈 잘 쓰는 것(1.8%), 가정환경(1.4%), 학업성적(1.3%)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다.

〈표 3-3〉

이성친구 선택기준

(단위 : %)

	외 모	인간성	학업성적	돈쓰쓰이	가정환경	장래성	기 타	(사례수)	χ^2
전체	18.0	69.9	1.3	1.8	1.4	4.2	3.4	1141	
성별									
남자	27.9	62.5	1.9	1.9	1.2	1.9	3.7	574	57.85***
여자	7.9	77.2	1.8	1.8	1.6	6.5	3.2	567	
	* P<0.05				** P<0.01		*** P<0.001		

변인별로는 성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높은 비율을 차지한 요소들의 순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각 요소별 지지도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두 집단 모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요소인 인간성의 경우 남자는 62.5%, 여자는 77.2%로 여학생의 지지도가 더 높은 반면 두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요소인 외모에 있어서는 남자는 27.9%, 여자는 7.9%로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성친구 선택기준으로써 외모를 더욱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서 이성친구 선택기준은 이성에게서 기대하는 것과 연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이 각각 이성에게서 다소 다른 것을 기대함으로써 이성교제가 갈등적 상황으로 전개할 잠재성이 있어 보인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이성교제에 대한 교육에서 뿐만 아니라 제교육에서

가치관 정립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3) 이성교제를 원하는 동기

어느 때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지 8개 항목을 제시하여 질문한 결과 외롭고 쓸쓸할 때가 29.0%로 가장 많았고, 친구가 자기 이성친구 얘기를 할 때가 그 다음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상하던 이성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 때가 17.7%로 나타났고, 나머지 항목들은 응답률에 있어 별 차이없이 여기에 이어지고 있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있어서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32.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친구가 자기 이성친구 얘기를 할 때 (26.5%)와 외롭고 쓸쓸할 때 (25.9%)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해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은 친구의 영향을 좀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동성친구로 부터 소외당하거나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이성친구를 사귀으로써 상대에게 의지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는 현재 도회지 생활과 공부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소외되는 느낌을 버릴 수 없는 성적이 중하위권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외롭고 쓸쓸해질 때, 그리고 공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이성친구를 찾게 될 것으로 유추해 보게 된다. 면접조사에서 한 남학생이 “노는 애들에겐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이 자기과시가 된다”라고 들려준 것과 연결지어 보면, 학교생활에서 소외받고 외로운 청소년이 이성친구를 가짐으로써 다른 면에서 자기 실력, 지위의 표시로 과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표 3-4〉

이성교제를 원하는 동기

(단위 : %)

	공부에 서벗어 나고싶 을 때	친구가 이성친 구애기 를 할때	외롭고 쓸쓸할 때	이성에 대해 알고 싶을때	잡지나 소설을 읽을 때	라디오 듣고 TV 볼 때	상상하 던 이성 나타났 을 때	데이트 하는 남녀를 볼 때	기타	(사례수)	χ^2
전체	7.1	20.6	29.0	6.4	2.9	1.8	17.7	7.2	7.3	1112	
성별											
남자	7.7	14.7	32.1	9.5	2.7	1.8	18.0	9.0	4.5	557	57.15***
여자	6.5	26.5	25.9	3.5	3.1	1.8	17.5	5.4	10.1	555	
* P<0.05							** P<0.01		*** P<0.001		

4) 이성과의 친구관계 유지여부

이성친구도 친구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의 57.2%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부정적인 입장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친구관계로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반반이다(26.6%)라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7.6%)는 응답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변인별로는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먼저 성별로는 이성과의 친구관계 유지여부에 관해 남자는 48.4%, 여자는 66.0%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 이에 관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앞의 이성친구 선택기준에서 나타난 남녀학생의 차이에서 남학생이 외모, 여학생이 인간성을 더 중시하는 경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여학생이 더 건전한 사고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급별로도 중학생의 경우는 그렇다가 60.7%, 반반이다가 21.7%, 그렇지

않다가 7.2%, 잘 모르겠다가 10.3%이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그렇다가 53.7%, 반반 이다가 31.3%, 그렇지 않다가 9.9%, 잘 모르겠다가 5.1%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 학생은 이성과의 친구관계 유지에 대해 덜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그렇다고 보는 데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있어서는 성적이 상위권이거나 중위권인 학생은 각각 7.7%와 7.8%이나 하위권의 학생은 10.9%로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또한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상(3.9%), 중(7.5%), 하(11.6%)의 순서로 성적이 낮을 수록 많은 수가 응답하고 있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 이성친구와의 교제가 동성친구와의 교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님의 이성교제 찬반여부에 따라서는 찬성하는 경우는 이성과 친구관계 유지에 대해 그렇다가 61.3%, 그렇지 않다가 9.9%이고 반대하는 경우는 그저 그렇다가 58.3%, 그렇지 않다가 9.2%이나 부모님의 태도가 그저 그런 경우는 그렇다가 53.1%, 그렇지 않다가 6.8%로 나타나 부모님의 찬반 입장이 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비해 청소년 자신의 입장도 그렇다나 또는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건전한 태도가 부모의 입장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으므로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열린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보여준다.

흡연이나 유흥업소 출입 여부에 따라서는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14.9%)가 없는 경우(7.4%)보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많았으며, 유흥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경우(12.2%)도 역시 없는 경우(7.6%)에 비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지위비행 경험이 이성교제를 건전한 친구관계보다는 부정적인 관계로 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친구관계로의 유지여부

(단위 : %)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않다	잘모르겠다	(사례수)	χ^2
전 체	26.2	26.6	8.6	7.7	1167	
성 별						
남 자	48.4	30.3	12.3	9.1	585	43.74***
여 자	66.0	22.9	4.8	6.4	582	
교 급						
중학교	60.7	21.7	7.2	10.3	580	25.42***
고등학교	53.7	31.3	9.9	5.1	587	
학업성적						
상	57.5	30.9	7.7	3.9	233	15.49
중	58.9	25.8	7.8	7.5	655	
하	53.2	24.3	10.9	11.6	267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61.3	23.7	9.9	5.1	372	15.42*
그저그렇다	53.1	31.7	6.8	8.5	426	
반대하는편	58.3	23.8	9.2	8.7	357	
흡연 경험						
없 다	58.0	26.8	7.4	7.8	960	11.90**
있 다	52.1	26.3	14.9	6.7	194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57.4	26.4	7.6	8.6	886	9.87*
있 다	56.5	26.9	12.2	4.4	271	

* P<0.05

** P<0.01

*** P<0.001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종합해 보면, 조사대상 청소년의 대다수가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님의 태

도와 일치하는 것으로 부모님이 자녀의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경우 그 자녀도 이성교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 부모님의 태도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고,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흡연, 유흥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없는 청소년에 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그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되고 아르바이트나 흡연, 유흥업소 출입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도 하나의 경험으로써 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들 조사대상 청소년들이 이성친구를 사귀게 될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인간성’을 선택기준으로 하겠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많았고 그 다음은 ‘외모’를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청소년은 여자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남녀간의 이성친구 선택기준에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들이 가장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 때는 ‘외롭고 쓸쓸할 때’이고, 그 다음은 ‘친구가 자기 이성친구 얘기를 할 때’였으며, 다음으로는 ‘상상하던 이성과 비슷한 사람이 나타날 때’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성별에 있어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는 ‘외롭고 쓸쓸할 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여자는 ‘친구가 자기 이성친구 얘기를 할 때’와 ‘외롭고 쓸쓸할 때’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해 여자청소년은 친구의 영향을 좀 더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가족이나 동성친구로 부터 소외당하거나 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이성친구를 사귀으로써 상대에게 의지하고 싶어함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은 이성친구도 친구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변인별로는 다양한 차이를 보여 성별로는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의 경우 이에 관해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은 이성과의 친구관계 유지에 대해 덜 긍정적이며, 학업성적에 따라서 성적이 낮을 수록 많은 수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의 경우 이성친구와의 교제

가 동성친구와의 교제와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모님의 이성교제 찬반여부에 따라서는 부모님의 찬반 입장이 분명한 경우 불분명한 경우에 비해 청소년 자신의 입장도 ‘그렇다’나 또는 ‘그렇지 않다’는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흡연이나 유흥업소 출입 여부에 따라서는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응답이 많았으며, 유흥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경우도 역시 없는 경우에 비해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의 지위비행 경험의 이성교제를 건전한 친구관계보다는 부정적인 관계로 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성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 있어 성별, 교육별 차이는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중학생이 교제를 할 경우 관계에 대한 태도에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이성교제시 갈등이 발생할 잠재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음을 보여 준다.

2. 이성교제 관련사항에 대한 태도

1)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태도

청소년을 통해 알아본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님의 일반적인 태도는 ‘적극적으로 찬성’과 ‘대체로 찬성’을 이성교제에 대해 ‘찬성하는 편’으로, ‘그저 그렇다’와 ‘알고도 모른 체한다’를 이성교제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그저 그렇다’로, ‘대체로 반대’와 ‘무조건 반대’를 이성교제에 대해 ‘반대하는 편’으로 조작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도록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부모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는 찬성하는 편이 32.2%, 그저 그렇다는 입장이 36.8%, 반대하는 편이 31.0%로 나타나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는 먼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학생의 경우는 부모님이 찬성하는 편이 38.8%이나 여학생의 부모님은 25.6%이며, 반대하는 편인 경우도

남학생의 부모님은 20.8%이나 여학생의 부모님은 41.1%나 되어 부모님들은 아들 보다는 딸의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성역할에 입각하여 딸을 보호하거나 현실적으로 여자가 성폭력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회이므로 미리 보호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어느 경우든 여자청소년에게 가해지는 규제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재학중인 학교가 남녀공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자녀가 남녀공학에 다니는 부모님의 경우는 34.7%가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29.7%의 부모님만이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자녀가 남녀공학에 다닐 경우 이성교제에 대해 좀더 허용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 의해서 영향받는 것으로만 흔히 알려진 사실과는 달리 부모도 자녀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경우인데 남녀공학의 경우 자녀가 이성과 어울려도 별 문제가 없다고 부모가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도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부모님이 상류층(42.5%), 중류층(31.7%), 하류층(21.2%)의 순으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님의 허용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높을 수록 현상을 유지하거나 계층적 상향이동에 대한 강렬한 추구 때문에 자녀가 학업을 소홀히 하고 이성교제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통제할 것 같은데 그와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 어머니와의 대화정도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 어머니와 대화를 하는 편인 경우 부모님이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경우가 각각 35.1%와 33.8%를 차지했으나, 대화를 안하는 편인 경우에는 각각 27.2%와 25.0%를 차지해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자녀에 대한 이해가 커져 이성교제에 대해서도 허용적인 입장을 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3-6〉

부모의 교제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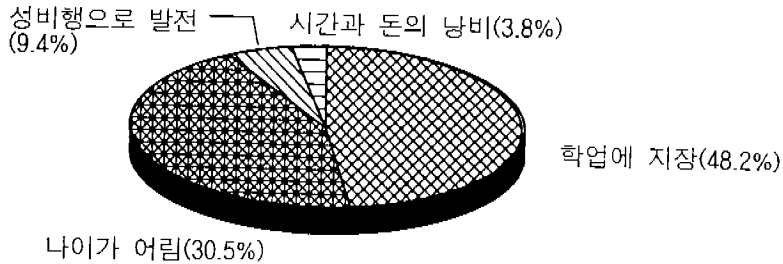
(단위 : %)

	찬 성	그저그렇다	반 대	(사례수)	χ^2
전 체	32.3	36.8	31.0	1159	
성 별					
남 자	38.8	40.0	20.8	577	58.07***
여 자	25.6	33.3	41.1	582	
공학여부					
공 학	34.7	37.8	27.6	577	6.81*
비공학	29.7	35.9	34.4	582	
생활수준					
상	42.5	29.9	27.6	127	11.36*
중	31.7	37.0	31.4	963	
하	21.2	48.5	30.3	60	
아버지와의 대화					
하 는 편	35.1	35.7	29.2	720	6.16*
안하는편	27.2	37.9	34.9	272	
어머니와의 대화					
하 는 편	33.8	36.9	29.3	903	9.19*
안하는편	25.0	29.8	45.2	84	

* P<0.05 ** P<0.01 *** P<0.001

부모님이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학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48.2%로 거의 과반수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성교제를 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이기 때문이라는 경우도 38.5%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비행으로 발전할 우려

때문이라는 경우는 9.4%, 시간이나 돈이 낭비되기 때문이라는 경우는 3.8%였다.



〈그림 1〉 부모가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이유

2) 이성교제시 부모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이성교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바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전체의 53.9%가 이해하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고, 31.4%는 짐작으로 불량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 11.0%는 모르는 척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으며, 교제를 못하도록 말려주시면 좋겠다는 응답자는 2.7%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이성교제에 대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아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는 성별에 따라 남자(49.7%) 보다는 여자(58.4%)가 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을 구하고 있고 여자(7.6%) 보다는 남자(14.4%)가 어른들의 간섭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다른 항목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짐작으로 불량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항목에 있어서는 중학생 (28.2%) 보다는 고등학생 (34.5%) 이 더 많이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 중에서도 계열에 따라 인문계 학생 (57.3%)은 실업계 학생 (48.4%)에 비해 적극적인 도움을 바라고 있고 또 실업계 학생 (39.9%)은 인문계 학생 (29.5%)에 비해 보다 소극적인 이해를 구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부모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단위 : %)

	이해하고 도와주었 으면	불량하게 보지말았 으면	모르는척 해주었으 면	교제를말 려주었으 면	기 타	(사례수)	χ^2
전 체	54.0	31.4	11.0	2.1	1.9	1163	
성 별							
남 자	49.7	31.8	14.4	2.4	1.7	584	23.94***
여 자	58.4	30.9	7.6	2.9	2.2	579	
교 급							
중 학 교	55.0	28.2	11.9	4.0	1.0	578	12.36*
고등학교	53.0	34.5	10.1	1.4	1.0	585	
계 열							
인 문 계	57.3	29.5	12.3	0.7	0.3	302	14.91**
실 업 계	48.4	39.9	7.8	2.1	1.8	283	
가족구조							
정상가족	54.1	32.5	10.6	1.9	0.9	1004	20.26**
결손가족	54.5	22.7	14.3	7.1	1.3	154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61.2	27.5	9.7	1.3	0.3	371	23.86**
그저그렇다	50.4	32.6	12.9	2.3	1.9	427	
반대하는편	51.5	34.1	9.3	4.5	0.6	355	

* P<0.05

** P<0.01 *** P<0.001

가족구조가 정상가족(32.6%)인 경우에는 결손가족(22.7%)에 비해 불량하게 보지 않기를 바라는 청소년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부모님의 이성교제 찬반여부에 따라서도 부모님이 찬성하는 입장인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에 비해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을 바라는 항목에 응답한 청소년이 61.2%로 가장 많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입장인 경우에는 불량하게 보지 말았으면 하는 소극적인 이해를 바라

는 항목에 응답한 청소년이 34.1%로 가장 많아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기대수준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3) 이성교제에 관한 사전지식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인 55.0%의 청소년이 어른들로 부터 이성교제의 의미나 이성교제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도움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이성교제의 방법과 예절에 대해서는 잘 아는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조금 아는 경우(44.4%)나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경우(39.0%), 전혀 모르는 경우(5.8%) 등 조금 알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 어른들의 도움말이 막연한 금지사항이거나, 통제일 뿐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받은 성교육도 이성교제에 도움이 되는 편이라고 하는 청소년은 38.8%인데 반해 잘 모르겠다(29.7%)와 도움이 안되는 편(28.6%),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2.9%) 등 성교육을 통해 이성교제에 대한 도움을 받거나 받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연히 이성간의 교제를 막기 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제방법과 예절을 가르침으로써 남녀가 모여 건전한 친교를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사전에 교육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른들로 부터 이성교제에 대한 도움말을 들은 경험을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는 도움말을 들은 경우가 43.2%이나 여자는 66.7%나 되어 예상대로 어른들이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해 더 많은 걱정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님과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동거하는 청소년은 55.7%가 도움말을 들은 경험이 있음에 반해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청소년은 34.2%만이 도움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가족구조에 따라서도 정상가족(56.3%)의 청소년이 결손가족(46.8%)의 청소년에 비해 도움말을 들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부모님이 이성교제를 찬성(63.3%)하는 경우, 반대(55.0%)나 그저 그렇다(47.6%)는 경우에 비해 도움말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도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님의 개방된 태도가 오히려 이성교제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아닌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8〉

부모의 도움말 여부

(단위 : %)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전 체	49.7	50.3	1166	
성 별				
남 자	43.2	56.8	583	64.09***
여 자	66.7	33.3	583	
교 급				
중 학 교	53.9	46.1	577	0.45*
고등학교	56.0	44.0	589	
가족구조				
정상가족	56.3	43.8	1008	4.87*
결손가족	46.8	53.2	154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55.7	44.3	1128	6.84*
비동거	34.2	65.8	38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63.3	36.7	373	19.58***
그저그렇다	47.6	52.4	424	
반대하는편	55.0	45.0	358	

* P<0.05

** P<0.01

*** P<0.001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에 대한 지식정도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성별로 조금 알고 있는 정도 이상의 비율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남자 53.2%, 여자 57.3%), 잘 아는 경우는 남자(13.2%)가 여자(8.4%)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다.

교급별로는 잘 알거나 조금 아는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항목에 관해서는 의외로 중학생 (35.5%) 보다 고등학생 (42.4%) 의 비율이 높았다. 이것은 중학생의 경우 이성교제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가 좁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고등학생에 비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3-9〉 교제방법이나 예절에 대해 아는 정도

(단위 : %)

	잘안다	조금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사례수)	χ^2
전 체	10.8	44.4	39.0	5.8	1164	
성 별						
남 자	13.2	40.0	39.6	7.2	583	15.70**
여 자	66.7	33.3	583			
교 급						
중 학 교	11.1	45.6	35.5	7.8	577	12.26**
고등학교	10.6	43.3	42.4	3.7	587	
생활수준						
상	19.2	33.6	40.0	7.2	125	20.98**
중	9.3	46.6	38.7	5.4	968	
하	17.6	33.8	39.7	8.8	68	

* P<0.05 ** P<0.01 *** P<0.001

이성교제에 대한 성교육의 도움여부를 변인별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는 도움이 되는 편이 31.5%이고 안되는 편이 31.3%인데 반해 여자는 도움이 되는 편이 46.1%, 안되는 편이 25.9%로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할 때 사전의 성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도 큰 차이를 보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항목에 관해 중학생 (23.1%)

에 비해 고등학생(33.9%)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나이가 들 수록 성교육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38.3%)이 실업계 학생(28.7%)에 비해 성교육의 도움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서도 비공학(31.1%)의 학생이 공학(26.0%)의 학생에 비해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동거하는 경우(28.4%) 보다는 따로 사는 경우(35.1%)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편인 경우(27.5%) 보다는 하지 않는 편인 경우(34.5%)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0〉

성교육 도움여부

(단위 : %)

	매우도움	약간도움	잘 모름	별로안됨	도움안됨	교육안받음 (사례수)	χ^2
전 체	9.5	29.3	29.8	14.9	13.7	2.9 1162	
성 별							
남 자	9.0	22.4	32.0	12.9	18.4	5.3 581	66.25***
여 자	10.0	36.1	27.5	16.9	9.0	0.4 581	
교 급							
중 학 교	11.6	28.5	35.4	12.5	10.6	1.4 576	39.69***
고등학교	7.3	30.0	24.2	17.2	16.7	4.4 586	
계 열							
인문계	6.3	31.6	19.4	19.7	19.1	3.9 304	12.32*
실업계	8.5	28.4	29.4	14.5	14.2	5.0 283	
공학여부							
공 학	10.7	30.0	31.7	13.5	12.6	1.6 577	13.60*
비공학	8.2	28.5	27.9	16.2	14.9	4.3 585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9.6	29.2	30.2	14.7	13.7	2.7 1124	12.41**
비동거	5.4	32.4	16.2	21.6	13.5	10.8 37	
아버지와의 대화							
하는편	10.3	31.0	28.6	15.9	11.6	2.6 716	15.95**
안하는편	6.2	25.8	29.8	14.9	19.6	3.6 275	

* P<0.05

** P<0.01

*** P<0.001

청소년의 이성교제 관련사항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을 통해 알아본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님의 일반적인 태도는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변인별로는 성별로 아들보다는 딸의 이성교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재학중인 학교가 남녀공학인지 아닌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 자녀가 남녀공학에 다닐 경우 이성교제에 대해 좀더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부모님의 허용도가 낮고, 부모님이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할수록 이성교제에 대해 허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부모님이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로는 학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과반수에 이르고 있어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잘 반영해 주고 있고 다음으로는 이성교제를 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이기 때문이라는 경우도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비행으로 발전할 우려 때문이라는 경우와 시간이나 돈이 낭비되기 때문이라는 경우는 소수였다.

이성교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바라는 바로는 ‘이해하고 도와주었으면 좋겠다’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짐작으로 불량하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자신의 이성교제에 대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이주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을 구하고 있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어른들의 간섭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의 이성교제 찬반여부에 따라서도 부모님이 찬성하는 입장인 경우에는 나머지 경우에 비해 적극적인 이해와 도움을 바라는 항목에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고, 부모님이 반대하는 입장인 경우에는 불량하게 보지 않는 소극적인 이해를 바라는 항목에 응답한 청소년이 가장 많아 부모님의 태도에 따라 청소년의 기대수준도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어른들로 부터 이성교제의 의미나 이성교제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도움말을 들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으나 이성교제의 방법과 예절에 대해 잘 아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했고 조금 아는 경우나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경우, 전혀 모르는 경우 등 조금 알거나 잘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 어른들의 도움말이 막연한 금지사항이거나, 통제일 뿐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움말을 들은 경험은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매우 높아 남자청소년보다는 여자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해 더 많은 걱정과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님과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동거하는 청소년이 도움말을 들은 적이 더 많고 또한 가족구조에 따라서는 정상가족의 청소년이 결손가족의 청소년에 비해 도움말을 들은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경우, 반대나 그저 그렇다는 경우에 비해 도움말도 가장 많이 듣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에 대한 지식정도도 성별로 조금 알고 있는 정도 이상의 비율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잘 아는 경우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있다. 교급별로는 잘 알거나 조금 아는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으나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항목에 관해서는 의외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지금까지 받은 성교육도 이성교제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거나 받을 것이라고 보지 않는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성교육 또한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막연히 이성간의 교제를 막기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제방법과 예절을 가르침으로써 남녀가 모여 건전한 친교를 가질 수 있는 지식이 사전에 교육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변인별로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할 때 사전의 성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교급별로는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성교육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이 실업계 학생에 비해 성교육의 도움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서는 비공학의 학생이 공학의 학생에 비해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동거하는 경우보다는 따로 사는 경우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편인 경우보다는 하지 않는 편인 경우 역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3. 성에 대한 태도

1) 성에 대한 관심

성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그저 그렇다’가 53.4%, ‘많다’와 ‘대단히 많다’가 각각 24.8%, 9.5%이고, ‘거의 없다’와 ‘전혀 없다’가 각각 9.6%, 2.8%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관심 정도가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지나치게 성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비춰진 것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이성에 대한 관심이 저연령화해 가는 현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중학생은 성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거나 무관심한 경우도 상당하고 발달단계에서 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정도 이상으로 청소년이 성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표 3-11〉에 의하면 성에 대한 관심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대단히 많다’와 ‘많다’가 49.6%, 여학생의 경우 18.8%인 반면 ‘거의 없다’와 ‘전혀 없다’가 남학생의 경우 6.5%, 여학생의 경우 18.1%이다. 이처럼 남학생이 성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두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 실제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을 수 있고, 둘째 여학생은 성에 대해 소극적인 것이 미덕으로 사회화되어 질문에 솔직히 응답하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다. 세째로는 여학생은 성 자체보다는 인간관계를 중시하여 이성과의 인간관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 응답률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

〈표 3-11〉

성에 대한 관심정도

(단위 : %)

	대단히 많다	많다	그저그렇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사례수)	χ^2
전 체	9.5	24.8	53.4	9.6	2.8	1162	
성 별							
남 자	15.8	33.8	43.8	4.8	1.7	582	140.39***
여 자	3.1	15.7	63.1	14.3	3.8	580	
교 급							
중 학 교	8.3	21.6	54.0	12.3	3.8	578	19.94***
고등학교	10.6	27.9	52.9	6.8	1.7	584	
공학여부							
공 학	8.6	21.6	54.6	11.7	3.5	579	13.73**
비공학	10.3	28.0	52.3	7.4	2.1	583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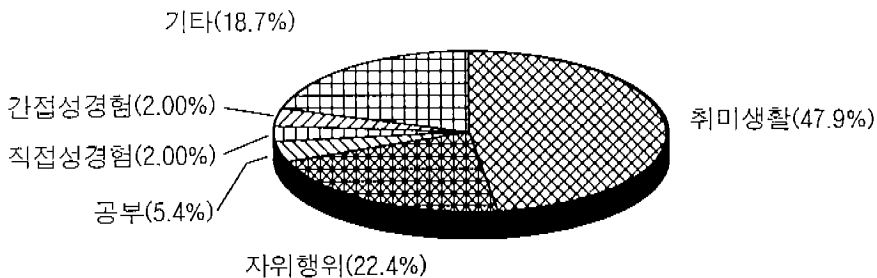
성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했을 때 ‘대단히 많다’와 ‘많다’가 공학의 경우 30.2%, 비공학의 경우 38.3%이고, 거의 없다, 전혀 없다가 공학의 경우 15.2%, 비공학의 경우 9.5%이다. 이로부터 학교내에서 이성접촉이 자유로운 경우 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의 경우 ‘대단히 많다’와 ‘많다’가 29.9%, 고등학생의 경우 38.5%이다. 반면 ‘거의 없다’와 ‘전혀 없다’가 중학생의 경우 16.1%, 고등학생의 경우 8.5%이다. 고등학교 학생 시절은 성적 감정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이므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2) 성에 대한 욕구 및 해소방법

성에 대한 욕구의 정도를 물었을 때 ‘가끔 느낀다’가 과반수 이상인 58.3%를 차지하고 있고 ‘전혀 느끼지 않는다’가 22.6%, ‘자주’ 그리고 ‘항상 느낀다’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19.1%이다.

이러한 성에 대한 욕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묻는 문항에서 욕구를 전환시키기 위해 운동, 음악감상 등 취미생활을 하는 경우가 47.9%, 공부를 하는 경우가 5.4%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성과 관련된 행동, 즉 ‘자위행위를 한다’, ‘전화 등을 통한 간접적인 성경험을 한다’, ‘직접적인 성경험을 한다’가 각각 22.4%, 2.8%, 2.8%이다. 이외에 기타 응답으로 오락활동 및 친구 등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성에 대한 욕구의 경험은 청소년기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를 비롯한 외적 요소들이 청소년들의 성욕구를 더욱 자극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성적 욕구에 대처하여 운동, 음악감상 등 취미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것은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성욕구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는 대신 인간발달 과정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인식하고 취미생활을 하는 등 욕구를 승화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찾으려 하여 성에 대한 욕구를 성비행 등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 성에 대한 욕구의 해소방법

3) 성적 자극을 받는 시기

일상생활 중 성적 자극을 언제 받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성적자극을 받지 않는다고 한 25.4%의 응답자를 제외하면 영화, TV, 비디오를 볼 때가 33.6%로 가장 많았고, 그 외 실제 포옹장면을 볼 때가 5.7%, 소설, 잡지를 볼 때, 그림, 사진을 볼 때가 각각 6.7%, 3.8%를 차지하고 있어 시각적인 것에 의해 자극받을 때가

성적자극을 받는 시기는 성별, 교급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이성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친구들로 부터 성관계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성적자극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2배 이상이다. 전반적으로 성적 자극을 받는 집단에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성적 자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3배 가량 된다. 중학생은 친구들로 부터 성관계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가 15.1%로 고등학생의 경우 8.6%에 비해 높은 편이고, 다른 경우는 전반적으로 고등학생의 비율이 높다. 그리고 성적 자극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더 높다.

(단위 : %)

* $P < 0.05$ ** $P < 0.01$ *** $P < 0.001$

- 75 -

대한 느낌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 정도인 반면 기분이 좋다, 유익하다, 본대로 행동해 보고 싶다가 각각 19.0%, 7.7%, 9.2%를 차지하고 있어 이러한 매체들이 청소년들에게 성적자극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유해매체에 대한 문제의식이 부족한 청소년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3-14〉 성묘사 매체에 대한 느낌

느 낌	백 분 율(실수)
기분이 좋았다	19.0(217)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49.7(568)
본대로 행동에 보고 싶었다	9.2(105)
유익했다	7.7(88)
혐오감이 들었다	14.4(165)
계	100.0(1143)

4) 성관련 고민과 대처방법

월경, 몽정, 자위행위, 임신, 출산, 유방·성기, 이성친구로 인한 성적 충동, 성적 인 욕구, 성관계, 성폭행, 성병 등과 같은 성과 관련된 고민의 경험유무를 물었을 때 성적 충동에 관한 고민을 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15.8%), 그 다음 주로 많이 하는 고민으로는 자위행위(14.1%), 유방·성기(12.9%), 성관계(12.0%), 이성친구로 인한 성적충동(11.4%) 등이 있다. 청소년 관련 상담기관에 의하면 성문제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담내용도 단순한 성지식이나 호기심에서 직접적인 성관계나 이로 인한 구체적인 문제(임신, 성병 등)들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결과 또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고 있어 성관계(12.0%), 성병(7.3%), 성폭행(6.1%), 임신(5.5%), 출산(3.9%) 등에 대해 고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직접적인 경험으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러한 추세는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고민이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5〉

성관련 고민의 경험유무

(단위 : %)

	월경	동정	생리·성기	성관계	성병	성폭행	임신	출산	자위행위	성충동	성욕
있다	14.1	5.6	12.9	12.0	7.3	6.1	5.5	3.9	14.1	11.4	15.8
없다	85.9	91.4	87.1	88.0	92.7	93.9	94.5	96.1	85.9	88.6	84.2

(N=1171)

위와 같은 성과 관련된 고민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대처, 해결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전체 응답자 중 성과 관련된 고민을 한 적이 없는 경우인 46.7%를 제외하면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19.2%로 성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 가운데 5명중 1명이 성과 관련된 고민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친구와 상의한다가 14.0%, 그외 부모, 형제자매와 상의하는 경우가 각각 6.8%, 2.0%이고 학교 선생님, 상담실에 전화로 상담, 전문가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는 경우는 0.3%, 0.7%, 0.4%로 극히 적었다. 앞으로 청소년을 기다리는 상담실보다는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상담실이 되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16〉

성관련 고민에 대한 대처방법

방	법	백 분 율(실수)
부모와	상의	6.8(76)
학교	선생님과 상담	0.3(3)
친구와	상의	14.0(157)
잡지나	서적을 본다	3.8(43)
고민해	본 적 없다	46.7(525)
형제·자매와	상의	2.0(23)
상담실에	전화상담	0.7(8)
전문가에게	직접상담	0.3(4)
해결하지	못함	19.2(216)
기타		6.1(69)
계		100.0(1124)

<표 3-17>

의논 상대

(단위 : %)

	부모	형제 자매	친구	교사	상담실	이야기 하기 창피	의논할 필요 없음	기타	(사례수)	χ^2
전 체	17.1	5.0	46.5	3.2	7.2	7.8	11.5	1.8	1142	
성 별										
남 자	10.4	3.6	46.9	3.1	6.7	9.7	16.8	2.8	578	76.52***
여 자	23.9	6.4	46.1	3.4	7.6	5.9	6.0	0.7	564	
교 급										
중 학 교	22.3	6.0	43.6	2.5	6.2	8.4	10.2	0.9	569	33.48***
고등학교	11.9	4.0	49.4	4.0	8.2	7.2	12.7	2.6	573	
계 열										
인문계	12.0	3.0	47.0	5.0	10.7	9.0	12.7	0.7	300	20.69**
실업계	11.7	5.1	52.0	2.9	5.5	5.1	12.8	4.8	273	
공학여부										
공 학	21.8	6.3	43.8	2.3	6.2	7.0	11.3	1.2	568	28.18***
비공학	12.4	3.7	49.1	4.2	8.2	8.5	11.7	2.3	574	
흡연경험										
없 다	18.6	4.8	44.3	3.7	7.0	8.7	11.1	1.6	939	26.48***
있 다	8.4	5.3	57.9	1.1	7.4	3.7	13.7	2.6	190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18.9	4.8	43.8	3.8	7.4	9.1	10.9	1.3	866	35.59***
있 다	10.2	5.3	56.4	1.5	6.0	3.4	13.9	3.4	266	

* P<0.05

** P<0.01

*** P<0.001

성과 관련된 내용의 의논 상대로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대상은 친구 (46.5%) 이고, 부모 17.1%, 자신을 밝히지 않은 상담실이 7.2%, 형제자매가 5.0 %, 선생님이 3.2%, 그 외 이야기하기가 창피하거나 의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각각 7.8%, 11.3%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가장 친밀한 또래는 서로의 고민에 대한 의논상대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성에 관한 지식이 왜곡되거나 흥미 위주의 대화가 오가기 쉬우므로 고민하는 청소년 자신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다. 청소년들이 성문제 상담자로서 친구를 제외하면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부모가 상담자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청소년이 접한 환경을 잘 알고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모는 바람직한 성문제 상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성에 관해 터부시 하는 행동보다는 자녀가 상담해 오는 내용에 대해 귀기울이고 바른 지도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과 이를 뒷받침할 부모 교육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성과 관련된 내용의 의논 상대는 성별, 교급별, 계열별, 공학여부, 지위비행의 경험여부에 따라 그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 교급별로는 중학생, 계열별로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남녀공학 학생이, 그리고 지위비행 경험이 없는 사람이 성과 관련된 내용의 의논 상대로 부모, 형제·자매를 지적한 비율이 높다. 반면 남학생, 고등학생, 특히 실업계 고등학생, 비공학 학생,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친구를 의논 상대로 선호하는 비율이 높다.

앞에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부모와 상담하는 경우는 6.8%에 지나지 않았지만 부모와 상담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17.1%나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부모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질문해 보았다. 그 결과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부모에게 성에 대해 질문해 보지 않은 것 (75.9%)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상생활 중에 부모가 보여준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이전에 자녀가 성에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부모의 태도가 부정적이었을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리고 부모·자녀간에 아예 대화의 통로가 막혀 있었을 수도 있다. 평상시 문제가 있기 전에 사소한 일에서부터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자세가 요구된다.

〈표 3-18〉

성관련 질문에 대한 부모의 태도

(단위 : %)

	질문안함	친절히 설명	대답을 회피	화들냄	기타	(사례수)	χ^2
전 체	75.9	14.5	6.3	1.7	1.6	1155	
성 별							
남 자	80.7	8.8	6.9	1.6	2.1	579	33.48***
여 자	71.0	20.5	5.6	1.9	1.0	576	
부모님의교제찬반							
찬성하는편	71.7	21.5	4.6	0.5	2.2	367	38.24***
그저그렇다	81.5	10.5	6.4	1.0	0.7	421	
반대하는편	74.4	12.4	7.9	3.4	2.0	355	

* P<0.05

** P<0.01

*** P<0.001

청소년인 자녀가 성에 관해 질문했을 때 부모의 태도는 자녀의 성별, 부모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자녀의 성별이 여자인 경우 남자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부모의 비율이 더 높고 대답을 회피하는 비율이 더 낮다. 그리고 남학생의 경우 부모에게 성에 관한 질문을 한 적이 없는 비율(80.7%)이 여학생(71.0%)보다 더 높다. 부모가 이성교제에 대해 찬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는 반대하는 경우보다 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더 높다. 이로부터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성과 이성교제에 대해 보수적이든 개방적이든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평상시에 대화하는 가정은 청소년과 부모관계가 유연하여 청소년이 부모에게 접근하여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성지식 및 정보원

요즈음 청소년들은 올바른 성지식을 접할 열려진 통로가 없다고 한다.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개의 문항으로 성지식을 아는 정도와 성지식의 출처를 질문하였다.

〈표 3-19〉

남녀의 성충동 차이

(단위 : %)

	많이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사례수)	χ^2
전 체	11.0	59.3	29.7	1162	
성 별					
남 자	14.1	54.5	31.4	582	15.79***
여 자	7.9	64.1	27.9	580	
교 급					
중 학 교	8.7	55.7	35.6	578	22.05***
고등학교	13.4	62.8	23.8	584	
공학여부					
공 학	11.2	54.7	34.0	579	11.37***
비공학	10.8	63.8	25.4	583	
출연경험					
없 다	7.9	59.6	32.5	957	64.39***
있 다	26.4	57.5	16.1	193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7.8	58.7	33.5	883	53.32***
있 다	21.5	61.1	17.4	270	

* P<0.05 ** P<0.01 *** P<0.001

성충동의 남녀 차이, 피임법, AIDS의 3문항으로 청소년들이 이와같은 성관련 지식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았다. 결과 남녀 성충동의 차이와 피임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29.7%, 51.9%이고, AIDS에

대해서는 동성연애나 주사바늘을 통해서만 생기는 병이라고 부정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18.8%, 모른다가 33.0%로 우리 청소년 두명 가운데 한명은 AIDS의 위협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남녀 성충동의 차이, 피임법, AIDS에 관한 지식을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살펴보면 비공학의 학생보다 공학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경우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성과 자연스런 접촉이 성지식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와는 연관성이 없었고, 상급생의 경우가 성관련 지식을 접한 경험이 더 많다는 당연한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리고 지위비행의 유무와 위의 성지식은 연관성이 있어 흡연,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위의 성지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았다. 이것은 일시적 실수로 임신하거나 AIDS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성교육을 미리 시작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 외 성별, 계열 등의 변수들은 성관련 지식과 독립적이었다.

<표 3-20>

피임법

(단위 : %)

	많이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사례수)	χ^2
전 체	5.5	42.6	51.9	1154	
성 별					
남 자	8.4	46.3	45.3	574	30.93***
여 자	2.6	39.0	58.4	580	
교 급					
중 학 교	3.9	33.5	62.7	571	53.06***
고등학교	65.1	51.5	41.3	583	
공학여부					
공 학	5.9	36.4	57.7	574	18.12***
비공학	5.0	48.8	46.2	580	
흡연경험					
없 다	3.7	40.1	56.2	949	66.54***
있 다	14.6	56.3	29.2	192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3.4	37.7	58.9	876	88.96***
있 다	12.3	59.3	28.4	268	

* P<0.05

** P<0.01

*** P<0.001

〈표 3-21〉

AIDS

(단위 : %)

	많이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사례수)	χ^2
전 체	18.8	48.2	33.0	1165	
성 별					
남 자	17.3	56.4	28.4	584	17.58***
여 자	20.3	42.2	37.5	581	
교 급					
중 학 교	18.4	40.2	41.4	580	40.49***
고등학교	19.1	56.2	24.6	585	
공학여부					
공 학	17.7	45.4	36.9	582	8.34*
비공학	19.9	51.1	29.0	583	
흡연경험					
없 다	19.5	45.3	35.2	958	20.41***
있 다	14.9	62.9	22.2	194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19.9	42.8	37.3	885	44.97***
있 다	15.2	65.6	19.3	270	

* P<0.05

** P<0.01

*** P<0.001

위의 내용을 포함한 성지식의 출처를 묻는 문항에서 친구를 통해 (31.3%) 가장 많이 습득하고 있고, 성교육용 자료와 책이 20.0%, 선생님을 통해서가 19.1%, 라디오·TV·영화를 통해서가 13.3% 그외 출처를 보면 신문·잡지 6.0%, 부모 4.3%, 그림·사진 3.8%, 형제 1.7%, 기타 다른 어른 0.5% 등이다. 성에 관련된 지식을 어디에서 얻는지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에서 친구를 통해 가장 많이 습득한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고, 성

교육용 자료와 책, 선생님과 부터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학교 성교육이 체계화되고 조기 실시되어 잘못된 성과학이 성적 에너지 분출로 오도되지 않도록 지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22〉 성지식의 출처

출	처	백 분 율 (%)
부모		4.3
교사		19.1
성교육용 자료와 책		20.0
라디오, TV, 영화		13.3
친구		31.3
형제·자매		1.7
기타 어른		0.5
그림, 사진		3.8
신문, 잡지		6.0
계		100.0

6) 성적접촉에 대한 태도

데이트할 때 중고등학생으로서 용납될 수 있는 행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손잡는 것까지만 허용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37.1%를 차지했고, 입맞춤하는 것이 32.9%, 포옹하는 것이 21.6% 등 성적인 접촉에 관해 비교적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성관계까지도 용납된다고 하는 청소년도 8.4%를 차지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살펴본 다음의 표에서 데이트할 때 용납될 수 있는 행위와 관련된 가장 큰 특징은 성별과의 연관성이다. 남학생의 경우 손잡는 것, 포옹과 같은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낮고, 입맞춤, 성관계에 응답한 비율은 여학생보다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데이트시 신체적 접촉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이성교제에서 가능한 신체접촉

(단위 : %)

	손잡기	포옹하기	입맞춤	성관계	(사례수)	χ^2
전 체	35.5	20.7	31.5	8.0	1121	
성 별						
남 자	27.8	20.7	38.0	13.5	561	71.00***
여 자	46.4	22.5	27.9	3.2	560	

* P<0.05 ** P<0.01 *** P<0.001

7) 성행위 및 순결에 대한 태도

남녀간 성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인 빈도를 살펴보면 인간의 자연스런 발달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체응답자 중 62.5%로 가장 많았고 추하다고 생각한다고 8.4%, 쾌락이라고 8.9%, 생각해 본 적 없다고 20.2%로 나타났다.

변인별로 먼저 성별에 따른 성행위에 대한 생각을 보면 남학생의 경우 인간의 자연스런 발달과정이다, 쾌락이라고 여기는 비율이 여학생보다 더 높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남녀 성관계에 대해 당연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고, 여학생의 경우 ‘추하다고 생각한다, 생각해 본 적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남학생보다 더 많아 성관계에 관한 질문 자체를 회피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의미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의 경우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공학

여부, 계열, 학업성적 등은 성관계에 대한 생각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지위비행의 유무와 성관계에 대한 생각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흡연과 유흥업소 출입의 경험 이 있는 경우 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더 적고 '인간의 자연스런 발달과정으로 본다'와 '쾌락이다'라고 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표 3-24>

성행위에 대한 태도

(단위 : %)

	추함	자연스러움	쾌락	생각안함	(사례수)	χ^2
전 체	8.4	62.5	8.9	20.2		
성 별						
남 자	3.6	66.5	14.7	15.2	585	93.84***
여 자	13.3	58.4	3.1	25.2	579	
교 급						
중 학 교	10.2	56.1	6.4	27.3	579	48.78***
고등학교	6.7	68.7	11.5	13.2	585	
흡연 경험						
없 다	2.6	75.6	11.9	9.8	193	29.54***
있 다	9.6	60.0	8.5	21.9	958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5.2	72.5	13.8	8.6	879	41.20***
있 다	9.4	59.9	7.5	23.3	269	

* P<0.05

** P<0.01

*** P<0.001

성의식이 점차 개방화되어 가는 추세와 함께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혼전 순결에 대한 관념이다. 조사결과 '남녀 다같이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47.3%)했으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면 결혼 전 성관계를 갖는 것도 상관없다'와 '요즈음 세상에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가 각각 20.2%, 19.9%로 청소년 5명 중에 2명은 혼전 순결에 대해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로 드러나고 있다. 그 외 ‘남자만 지켜야 한다’ 0.2%, ‘여자만 지켜야 한다’는 4.9%를 차지하고 있다.

순결에 대한 생각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 과반수 이상(57.5%)이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면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상관없다(11.7%)’와 ‘요즈음 세상에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상당수(21.7%) 있어 성개방 풍조에 대한 남녀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 보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면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상관없다’와 ‘요즈음 세상에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다. 교급별로 순결에 대한 의식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없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상급생이 순결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학여부에 따라서는 많은 차이는 나지 않지만 공학의 경우 순결의식이 개방적이다. 지위비행의 유무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는 경험이 없는 학생이,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상관없다와 요즈음 세상에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에는 경험이 있는 학생이 많이 응답하고 있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비행청소년의 성에 대한 무분별한 개방의식은 일반청소년보다 높아 이들에 대한 건전한 이성교제, 성의식 교육 및 지도가 필요하다.

〈표 3-25〉

순결에 대한 태도

(단위 : %)

	남녀모두 지켜야됨	결혼상대 자면가능	남자만 지켜야됨	여자만 지켜야됨	순결을 따 지지 않음	순결 의미 모름	(사례수)	χ^2
전 체	47.3	20.2	.2	4.9	19.9	7.5	1171	
성 별								
남 자	37.2	28.7	.2	8.9	18.1	7.0	575	105.70***
여 자	57.5	11.7	.2	.9	21.7	8.0	572	
교 급								
중 학 교	51.5	17.2		3.9	17.0	10.5	571	32.38***
고등학교	43.2	23.3	.3	5.9	22.7	4.5	576	
계 열								
인문계	43.2	24.6		4.0	22.3	5.3	301	7.18
실업계	43.3	21.8	.7	8.0	23.3	3.6	275	
공학여부								
공 학	45.4	18.9		3.5	22.6	9.5	570	18.36**
비공학	49.2	21.5	.3	6.2	17.2	5.5	577	
출연경험								
없 다	53.5	18.6	.2	3.5	16.0	8.2	944	123.17***
있 다	16.3	30.0		12.1	37.9	3.7	190	
유형업소 출입경험								
없 다	53.3	18.0	.2	3.1	16.9	8.4	870	86.51***
있 다	27.0	28.1		10.9	29.6	4.5	267	

* P<0.05

** P<0.01

*** P<0.001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종합해 보면, 성에 대한 관심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있는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의 관심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비공학의 학생보다는 공학의 학생들이 관심이 적어 학교내에서 이성접촉이

자유로운 경우 성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교급에 따라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관심이 높았다.

성에 대한 욕구는 과반수 이상이 ‘가끔 느낀다’고 응답했으나 성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에 대한 욕구를 ‘항상 또는 자주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배 가량 더 높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성에 대한 욕구를 항상 또는 자주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배 가량 더 높다. 지위비행의 경험유무에 있어서는 흡연 경험, 유흥업소 출입 경험이 성에 대한 욕구정도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과의 접촉할 가능성이 높고 성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요소와 쉽게 접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과는 당연할 지도 모른다. 이러한 성에 대한 욕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지를 묻는 문항에서 욕구를 전환시키기 위해 운동, 음악감상 등 취미생활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일상생활 중 성적 자극을 언제 받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성적자극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영화, TV, 비디오를 볼 때가 가장 많았는데, 이성친구와 함께 있을 때, 친구들로 부터 성관계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성적자극을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의 2배 이상이다. 전반적으로 성적자극을 받는 시기에 남학생의 비율이 높고 성적 자극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한 여학생의 비율은 남학생의 3배 가량 된다. 중학생은 성적 자극을 받은 적이 없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높다.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성을 묘사한 영화, 비디오, 만화, 광고 등의 매체에 대한 느낌에 대해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절반 정도인 반면 기분이 좋다, 유익하다, 본대로 행동해 보고 싶다는 반응도 적지 않아 이러한 매체들이 청소년들에게 성적 자극을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성과 관련된 고민의 경험으로는 성적 충동에 관한 고민을 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주로 많이 하는 고민으로는 자위행위, 유방·성기, 성관계, 이성친구로 인한 성적충동 등이 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방법은 전체 응답자 중 성과 관련된 고민을 한 적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결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아 상당수가 성과 관련된 고민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방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과 관련된 내용의 의논 상대로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대상은 친구이고, 그 다음은 부모로 청소년들이 성문제 상담자로서 친구를 제외하면 그 누구보다도 부모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실제로 부모가 상담자가 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성충동의 남녀 차이, 피임법, AIDS에 관한 지식은 남녀 성충동의 차이와 피임법에 관해서는 모른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AIDS에 대해서는 동성연애나 주사바늘을 통해서만 생기는 병이라고 부정확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다. 변인별로는 비공학의 학생보다 공학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의 경우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성과 자연스런 접촉이 성지식을 얼마나 많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와는 연관성이 없었고, 상급생의 경우가 성관련 지식을 접한 경험이 더 많다는 당연한 결과를 보여 준다. 그리고 지위비행의 유무와 위의 성지식은 연관성이 있어 흡연, 유흥업소를 출입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위의 성지식에 대해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더 많았다.

성지식의 출처로는 친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교육용 자료와 책, 선생님, 라디오·TV·영화 등이다. 성에 관련된 지식을 어디에서 얻는 지에 대한 청소년의 응답에서 친구를 통해 가장 많이 습득한다는 사실은 청소년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다. 성교육용 자료와 책, 선생님이므로 부터가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데이트할 때 중고등학생으로서 용납될 수 있는 행위는 입맞춤이나 포옹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넘어 성적인 접촉에 관해 비교적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남학생의 경우 손잡는 것, 포옹과 같은 가벼운 신체적 접촉에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낮고, 입맞춤, 성관계에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데이트시 신체적 접촉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행위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은 '인간의 자연스런 발달과정이라고 생각한다'가 가장 많았고, 혼전 순결에 대한 관념은 '남녀 다같이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에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면 결혼 전 성관계를 갖는 것도 상관없다'와 '요즈음 세상에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도 적지 않아 혼전 순결에 대해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

도 상당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성별로 ‘남녀 모두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응답률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면 결혼 전 성관계를 가지는 것도 상관없다’와 ‘요즈음 세상에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별 차이가 없어 성개방 풍조에 대한 남녀 차이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장 이성교제 경험

1. 이성친구를 소개받은 경험

이성친구와 만나는 미팅이나 소개팅을 해 본 경험을 알아본 결과 55.1%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1-2번 정도 해 본 사람은 21.5%, 3-5번 정도 해 본 사람은 10.9%, 6번 이상은 12.6%를 차지해 이성친구를 소개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경우 한두번 소개받은 청소년과 세번 이상 소개받은 청소년이 대략 절반 정도로 나뉘어짐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 보면 남녀간에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미팅이나 소개팅을 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이 남자(51.8%) 보다는 여자(58.3%)에게 많고 경험한 횟수도 남자는 6번 이상이 15.1%이나 여자는 10.1%로 나타나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73.4%)이 고등학생(36.8%) 보다 경험이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 횟수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고생 간에 연령의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한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41.3%)이 실업계 학생(31.8%) 보다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횟수도 실업계 학생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문계 학생에 비해 실업계 학생이 학업 부담이 적으므로 여가시간의 차이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라고 분석된다.

남녀공학 여부에 따라서는 남녀공학의 학생(64.9%)이 비공학의 학생(45.2%)에 비해 훨씬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횟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녀공학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이성을 신비화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친구를 연애 대상으로 보지 않거나, 따로 이성친구를 소개받을 필요성이 비공학의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중산층의 청소년이 경험이 없다는 경우도 가장 적고(52.6%), 6번 이상 경험한 청소년도 14.3%로 가장 많아, 하류층이나 상류층보다는 중류층의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를 함에 있어 제약요소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모님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부모님이 찬성

〈표 4-1〉 미팅이나 소개팅 경험여부 (단위 : %)

- 96 -

	없다	1-2번	3-5번	6번이상	(사폐수)	χ^2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48.4	22.0	13.9	15.8	368	16.75*
그저그렇다	61.0	19.1	7.9	12.0	418	
반대하는편	53.1	23.3	11.5	12.1	356	
한달 용돈						
1만원 이상	74.5	16.4	6.4	2.7	110	175.82***
1-2만원	72.2	16.5	5.9	5.5	237	
2-3만원	55.8	24.0	11.5	8.8	217	
3-4만원	46.9	27.1	12.1	14.0	207	
4-5만원	37.8	21.1	18.9	22.2	90	
5만원이상	26.1	23.3	17.0	33.5	176	
부정기적	68.4	17.9	6.0	7.7	117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64.1	19.5	8.6	7.9	852	146.50***
있 다	27.5	26.5	17.4	28.5	298	
흡연 경험						
없 다	61.8	21.2	9.9	7.1	952	230.83***
있 다	16.4	22.8	16.4	44.4	189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65.5	21.3	7.6	5.6	878	293.73***
있 다	17.3	22.2	16.4	38.7	266	

* P<0.05

** P<0.01

*** P<0.001

용돈 액수에 따라서는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용돈이 5만원 이상인 경우는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26.1%이고 6번 이상 경험한 청소년도 33.5%나 되는 반면 용돈이 적을 수록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비율은 반비례하여 용돈이 1만원 이하인 경우는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74.5%에 이르며 6번 이상 경험한 청소년은 2.7%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미팅이나 소개팅 경험은 용돈 액수의 다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미팅이나 소개팅을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용돈이 적은 청소년의 경우 미팅이나 소개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미팅이나 소개팅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을 조르거나 핑계를 대어 용돈을 많이 타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여부에 따라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64.1%)이 있는 청소년(27.5%)에 비해 월등히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횟수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역시 용돈 액수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자신의 경제력에 따른 차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 한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만났던 이성친구들과 서로의 친구를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의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차이라고도 분석해 볼 수 있다.

습관적인 흡연경험에 따라서도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팅이나 소개팅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16.4%에 불과하나 흡연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61.8%에 이르고 있으며, 유흥업소 출입여부에 따라서도 출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미팅이나 소개팅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17.3%에 불과하나 출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65.5%에 이르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미팅이나 소개팅이 그들의 문제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남녀가 건전하게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지역사회, 학교, 가정, 청소년 단체가 제공해야 할 것을 보여준다.

2. 과거 또는 현재 이성교제를 해 본 경험

1) 이성교제 경험여부

현재 이성과 사귀고 있거나 과거에 사귀어 본 일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없다'는 청소년이 49.8%, '있다'는 청소년이 50.2%로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이 대략 반반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90년대의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할 경우 다소 적은 비율이나(김영희, 1992; 박은주, 1993),

그 이전과 비교하면 전반적인 경향이 증가추세를 알 수 있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이성교제를 원하는 청소년은 55.8%, 원하지 않는 청소년은 44.2%로 나타났으며, 이성교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이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청소년이 2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부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가 18.5%,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가 17.6%, 시간, 돈, 기타 여러 가지 면에서 낭비가 될 것 같아서가 12.2%, 내가 좋아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는 10.1%,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가 9.2%, 부모님이 무서워서 2.9% 등이다. 이성에 관심이 없다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관심은 있으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 중에서는 공부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것인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의 이성교제 반대이유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표 4-2〉 이성교제를 원하지 않는 이유

이	유	백 분 율 (%)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9.2
부모님이 무서워서		2.9
공부에 지장을 주므로		18.5
이성에 관심이 없어서		22.3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17.6
좋아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		10.1
시간, 돈 등이 낭비되므로		12.2
기 타		7.1
계		100.0

이성교제 경험여부에 관해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성별에 따라 남자는 경험이 있다(54.0%)는 청소년이 더 많았으나, 여자는 경험이 없다(53.7%)는 청소년이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은 경험이 없다(63.3%)가 더 많았으나, 고등학생은 경험이 있다(63.3%)가 더 많아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중학생과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

는 고등학생의 비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사람이 51.0%이나 실업계 학생은 76.8%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교급별, 계열별 집단차이는 앞의 미팅이나 소개팅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이유 또한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남녀공학여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공학의 학생(45.8%)이 비공학의 학생(54.5%)에 비해 이성교제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녀공학의 학생에 비해 비공학의 학생들은 이성친구를 쉽게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호기심과 청소년기의 자연스런 이성에 대한 끌림으로 이성교제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라 생각된다. 혹은 이것은 인식의 차이에 서 오는 것일 지도 모르는데, 남녀공학의 학생들은 이미 자연스런 이성교제를 거의 매일 하는 셈이므로 형식적으로 이성교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으나, 반면 비공학 학생들은 이성과의 만남은 이성교제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데서 오는 것인 지도 모른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성적이 상위권(42.9%)이나 중위권(48.4%)인 학생에 비해 하위권(60.8%)인 학생의 이성교제 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상 이성교제가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보는 부모님이나 교사들의 우려와 직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성교제 때문에 성적이 하위권이 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의 경우 학업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이성교제와 같은 학업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 경우는 입시위주 교육에 의해 하위권 학생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이 전무한 교육의 문제가 청소년들을 이성에 대한 관심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용돈 액수에 따라서는 한달 용돈이 1만원 미만인 경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37.5% 뿐이나 용돈 액수가 늘어날 수록 이성교제 경험자의 비율도 늘어나 용돈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성교제 경험이 80.1%에 이르고 있어 이 역시 미팅이나 소개팅 경험과 마찬가지로 용돈액수의 다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여부에 따라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은 40.5%이나 아르바이트를 해본 청소년은 77.4%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미팅이나 소개팅의 경험에 관한 분석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부모님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찬성(57.5%)이나 반대(52.0%)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그저 그렇다(43.0%)는 경우 이성교제의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 청소년 지위비행 여부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여, 흡연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88.1%인데 반해 흡연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43.1%이며, 유흥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82.2%이나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41.0%로 문제행동 경험과 이성교제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경우의 이성교제 희망여부에 관해서도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먼저 생활수준에 따라 현재까지 이성교제 경험은 없지만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중류층(58.2%)이나 하류층(56.3%)에 비해 상류층(40.0%)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류층 청소년에 비해 중·하류층의 청소년들은 이성교제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의 이성교제에 관한 태도에 따라서는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경우(66.5%), 그저 그렇다(53.6%)나 반대하는 경우(50.9%)에 비해 이성교제를 원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 80.0%가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어 흡연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55.4%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또한 유흥업소 출입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77.8%가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으나 유흥업소 출입 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54.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 문항의 경우 경험자의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이성교제의 관련성을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표 4-3〉

이성교제 경험여부

(단위 : %)

	없 다	있 다	(사례수)	χ^2
전 체	49.8	50.2	1168	
성 별				
남 자	46.0	54.0	585	6.93**
여 자	53.7	46.3	583	
교 급				
중 학 교	63.3	36.7	580	83.33***
고등학교	36.6	63.4	588	
계 열				
인문계	49.0	51.0	304	42.05***
실업계	23.2	76.8	284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42.5	57.5	372	17.34***
그저그렇다	57.0	43.0	426	
반대하는편	48.0	52.0	358	
학업 성적				
상	57.1	42.9	233	17.89***
중	51.6	48.4	655	
하	39.2	60.8	268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59.5	40.5	859	122.36***
있 다	22.6	77.4	305	
흡연 경험				
없 다	56.9	43.1	962	129.90***
있 다	11.9	88.1	193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59.0	41.0	888	140.81***
있 다	17.8	82.2	270	

* P<0.05

** P<0.01

*** P<0.001

〈표 4-4〉

이성교제에 대한 희망여부

(단위 : %)

	원하지않는다	원한다	(사례수)	χ^2
전 체	44. 2	55. 8	570	
흡연 경험				
없 다	44. 6	55. 4	538	4. 75*
있 다	20. 0	80. 0	20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45. 4	54. 6	515	9. 07**
있 다	22. 2	77. 8	45	

* P<0. 05

** P<0. 01

*** P<0. 001

2) 최초의 교제 시기 및 동기

처음 데이트를 한 시기는 중학생의 경우 국민학교 때가 42.3%, 중학교 때가 57.7%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국민학교 때가 15.1%, 중학교 때가 55.9%, 고등학교 때가 29.0%라고 응답하여, 최근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저연령화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5〉

최초의 교제시기

(단위 : %)

	국1,2,3	국4,5,6	중1	중2	중3	고1	고2	전 체
중학생	5. 5	36. 8	39. 8	17. 9				201 (35. 5)
고등학생	1. 4	13. 7	15. 6	23. 6	16. 7	23. 6	5. 5	365 (64. 5)

이들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하게 된 동기는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하게 되었다는 청소년이 59.1%로 가장 많아 절반 이상이 별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은 슬픔과 고독을 달래기 위한 것을 동기로 들고 있는 청소년

이 가장 많으나 그 비율은 11.4%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이성교제의 필요성으로 자아성찰과 이성애에 대한 이해 등을 들은 경향과는 차이가 있어 이성교제에 대한 이상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성교제를 하고 싶은 때로 '외롭고 쓸쓸할 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과 비교해도 실제 이성교제를 하게 되는 것은 필요성을 느끼고 원하는 그 때라기 보다는 우연하게 기회가 닿았을 때임을 알 수 있다.

〈표 4-6〉 이성교제를 하게 된 동기

동 기	백 분 율 (%)
이성애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6.5
서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아서	8.7
슬픔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11.4
남들은 있고 나는 없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4.4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3.2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59.1
특별한 동기가 없었음	4.8
기 타	1.9
계	100.0

3) 부모의 인지여부

자신이 이성친구를 과거에 사귀었거나 현재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고 계신지를 알아보았는데 부모님이 알고 계신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전체의 50.7%를 차지해 과반수 정도의 부모님이 자녀의 이성교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알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24.9%를 차지했으며, 모르신다는 경우는 24.4%정도였다. 알고 계실 것 같다는 말은 자신의 이성과의 교제를 부모님께 명확히 알려드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이것과 모르신다라는 경우를 합할 경우 두명 가운데 한명은 이성교제에 대해 부모와 대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

다.

〈표 4-7〉

부모의 이성교제 인지여부

(단위 : %)

	알고계심	알고 계실 것 같음	모르심	(사례수)	χ^2
전 체	50.7	24.9	24.4	582	
아버지와의대화					
하 는 편	54.0	24.3	21.7	350	7.20*
안하는편	40.9	30.2	28.9	149	
어머니와의 대화					
하 는 편	51.0	25.4	23.6	449	2.40
안하는편	39.6	33.3	27.1	48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70.9	18.3	10.8	213	81.24***
그저그렇다	45.3	33.1	21.5	181	
반대하는편	32.4	24.9	42.7	185	

* $P < 0.05$

** $P < 0.01$

*** $P < 0.001$

부모님의 인지여부는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다른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아버지와의 대화정도 및 부모님의 이성교제 찬반여부에 따라 서만 차이가 나타나 있다. 즉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편(54.0%)일 때가 안하는 편(40.9%)일 때에 비해 자녀의 이성교제 사실에 대한 인지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부모님이 자녀의 이성교제를 찬성할 때(70.9%)가 그저 그렇다(45.3%)나 반대할 때(32.4%)에 비해 자녀의 이성교제 사실에 대한 인지도도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면접조사에 의하면 청소년 자신이 분류하는 건전한 이성교제와 불건전한 이성교제의 기준이 부모에게 알리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부모의 인지가 중요하다. 부모님 모르게 이성교제를 할 때 부모를 속이기 시작하여 이성교제가 문제행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부모님과 자녀간의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하게 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학업에 미치는 영향

이성교제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청소년(64.4%)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지장을 준다는 청소년은 22.7%였으며, 더욱 열심히 공부한다는 청소년은 12.9%였다.

〈표 4-8〉

학업에 미치는 영향

(단위 : %)

	학업에지장줌	영향주지않음	더욱열심히공부	(사례수)	χ^2
전 체	22.7	64.4	12.9	582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17.4	67.6	15.0	213	11.93*
그저그렇다	21.4	69.2	9.3	182	
반대하는편	29.3	56.5	14.1	184	

* P<0.05 ** P<0.01 *** P<0.001

변인별로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부모님의 이성교제 찬반여부에 따라 부모님이 찬성(17.4%)하거나 그저 그런 경우(21.4%)에 비해 반대(29.3%)하는 경우 공부에 지장을 준다고 보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성교제를 이미 해 본 응답자들에 대한 문항이므로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성교제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공부에 지장을 주었을 수도 있지만, 한편 공부에 지장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반대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5) 만나는 시간과 장소

이성친구와 만나는 시간은 별 규칙 없이 아무 때나 만나는 경우가 50.7%로 가장 많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27.7%로 그 다음이며, 토요일이 15.0%, 평일 방과 후는 6.5%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성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은 시간을 정해 놓고 규칙적으로 데이트를 하기보다는 편의에 따라 시간날 때마다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남녀공학의 같은 학교 학생지간의 교제일 경우 수시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학교 남녀공학이거나, 비공학일 경우는 독서실, 학원 등으로 청소년의 하루 생활이 주로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부모의 보호 밖에서 이미 자유로운 남녀간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표 4-9〉 이성친구와 만나는 시간

시 간	백 분 율 (%)
아무때나	50.7
일요일이나 공휴일	27.7
토요일	15.0
평일 방과 후	6.5
계	100.0

이성친구와 주로 만나거나 가는 장소는 노래방이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커피점이나 카페로 17.9%였으며, 공원이나 야외가 14.5%이고, 그 밖의 장소로 간다는 청소년의 비율이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현상은 근래 노래방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 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얘기할 곳이 없어서 노래방 밖에 못간다는 면접조사 결과도 이것을 보충설명하는 자료다. 노래방의 밀폐된 환경이 주는 청소년에 대한 그 유해성에 관해 논란이 있으므로 우려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면접조사 자료에 의하면 만나서 놀 공간이 없어서 걸어서 다니면서 얘기하거나, 부모님이 안계시면 집에 가서 얘기한다고 하는 데 부모가 안계시는 집에 이성친구가 함께 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성적 충동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부모가 반드시 이점을 자녀가 이해하도록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표 4-10〉

이성친구와 만나는 장소

장 소	백 분 율 (%)
친구의 집	7.0
커피점	17.9
극장	3.4
비디오방	4.8
분식점 또는 빵집	5.8
운동경기장	1.0
공원이나 야외	14.5
본인의 집	3.9
독서실 또는 도서관	2.7
노래방	25.0
소주방	4.6
유흥장 또는 오락장	3.3
교회, 절 등 종교시설	2.7
기타	3.4
계	100.0

6) 만나서 하는 일과 대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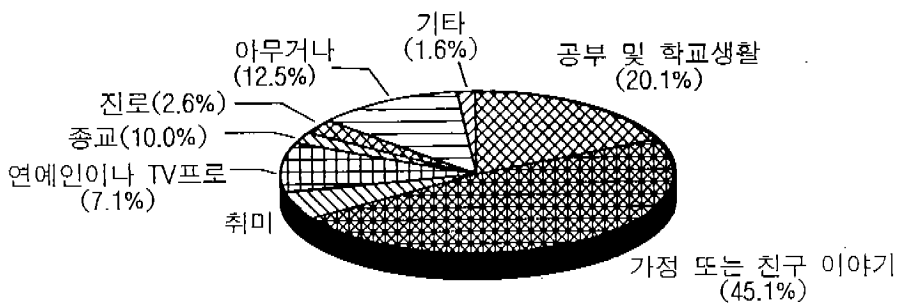
이성친구와 만나서 하는 일은 이야기가 40.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오락이나 놀이로 20.4%이며, 영화나 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이 15.2%, 먹는 일은 12.7% 등이다.

따라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는 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많은 청소년들(45.1%)이 가정 또는 친구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은 공부 및 학교생활(20.1%)이며, 연예인이나 TV프로(10.0%)에 관해서도 이야기

하나, 취미 또는 종교, 진로 등에 관해서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응답해 청소년들이 진지한 이야기로 토론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가족과 친구같은 의미있는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공부에 대한 압박과 그 대응 등 매일 매일 신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1〉 이성친구와 만나서 하는 일

하는 일	백 분 율 (%)
이야기	40.5
스포츠	1.7
공부	2.7
기타	6.8
오락	20.4
문화활동	15.2
먹기	12.7
계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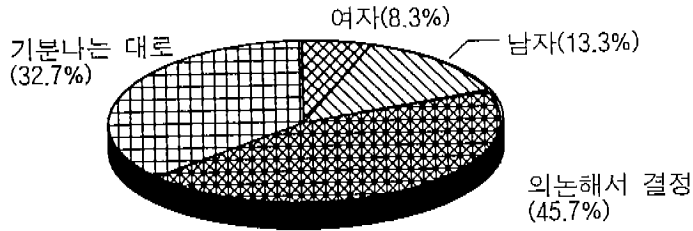


〈그림 3〉 이성친구와 하는 이야기

7) 만나는 장소와 할 일의 결정

이성친구와 만날 때 어디서 만나고 무엇을 할 지의 결정은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청소년이 45.7%로 가장 많았고, 기분나는 대로 결정한다는 경우도 32.7%나 되어

대부분 남녀간에 결정권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나, 차별을 하는 일부에 있어서는 남자가 결정한다(13.3%)가 여자가 결정한다(8.3%)보다 많았다. 이것은 힘의 관계를 드러내는 의사결정권과 관련된 성역할의 변화하는 한 모습으로 평등한 관계를 보여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4〉 만나는 장소와 할 일의 결정

8) 교제비용의 부담

이성교제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충당하고 있고(76.5%),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도 있었으나 7.3%에 불과했다.

〈표 4-12〉 교제비용의 출처

출 처	백 분 율 (실수)
부모	76.6 (439)
아르바이트	7.3 (42)
형제·자매	2.6 (15)
친구에게 빌려서	1.6 (9)
기 타	11.9 (68)
계	100.0 (573)

교제 비용을 내는 사람은 남자가 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5.7%, 여자가 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4%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앞의 의사결정권과는 달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의식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그때 그때 돈 있는 사람이 낸다는 청소년(38.5%)이나 반반씩 낸다는 청소년(12.4%)도 적지 않았다.

〈표 4-13〉 교제비용을 내는 사람

비용 내는 사람	백 분 율(실수)
주로 여자가 부담	3.4(19)
서로 반반씩 부담	12.4(69)
주로 남자가 부담	45.7(255)
그때그때 돈있는 사람이 부담	38.5(215)
계	100.0(558)

9) 통신매체 이용여부

이성친구와의 전화통화 시간을 알아본 바는 주 1회 이상이 5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불규칙적으로 하는 경우가 30.1%, 월 1회 이상이 3.0% 등이다.

한 번 전화할 때의 통화 시간은 30분 이상 60분 미만이 32.8%, 10분 이상 30분 미만이 31.3%, 60분 이상이 25.7% 등으로 용건만을 전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길어 청소년들의 전화통화는 용건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를 데이트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성친구와 께께나 음성사서함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을 해 본 경험을 알아본 결과, 이용해 본 청소년이 60.8%였고 이용해 보지 않은 청소년이 39.2%로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께께나 음성사서함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는 성별의 경우 남자 청소년(53.6%) 보다는 여자 청소년(69.2%)의 이용률이 높고, 교급별로는 중학생(45.6%) 보다는 고등학생(69.3%)의 이용률이 높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60.1%) 보다는 실업계 학생(75.8%)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4〉

비비사용여부

(단위 : %)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전 체	39.2	60.8	574	
성 별				
남 자	46.4	53.6	308	14.58***
여 자	30.8	69.2	266	
교 급				
중 학 교	54.4	45.6	206	31.03***
고 등 학 교	30.8	69.3	368	
계 열				
인 문 계	39.9	60.1	153	10.33*
실 업 계	24.2	75.8	215	
생활수준				
상	55.8	44.2	52	7.82*
중	38.3	61.7	486	
하	29.8	70.2	161	
학업성적				
상	48.0	52.0	98	9.91**
중	41.7	58.3	309	
하	29.8	70.2	161	
한달 용돈				
1만원 이상	66.7	33.3	42	46.84***
1-2만원	57.5	42.5	87	
2-3만원	46.2	53.8	106	
3-4만원	34.3	65.7	105	
4-5만원	34.0	66.0	50	
5만원 이상	22.6	77.4	137	
부정기적	29.8	70.2	47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47.2	52.8	341	23.33***
있 다	27.2	72.8	232	
흡연 경험				
없 다	47.5	52.5	404	40.90***
있 다	18.9	81.1	169	
유형업소 출입경험				
없 다	50.6	49.4	354	50.07***
있 다	20.9	79.1	220	

* P<0.05

** P<0.01

*** P<0.001

생활수준별 이용률은 자신의 가정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44.2%, 중류층은 61.7%, 하류층은 71.4%가 응답해 자신의 가정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수록 뽀뽀나 음성사서함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뽀뽀의 가격을 생각할 때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되나 한편으로는 뽀뽀 정도는 용돈을 절약해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고 생활수준이 낮을 수록 방이나 전화기를 혼자 쓰지 못하고 가족과 함께 써야할 것이므로 자신만의 통신매체로 뽀뽀나 음성사서함의 이용이 높은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학업성적에 따른 이용률은 상위권이 52.0%, 중위권이 58.3%, 하위권이 70.2%로 성적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다.

용돈 액수에 따라서는 1만원 미만의 경우 이용률이 33.3%이고 용돈 액수가 늘어날 수록 이용률도 고르게 높아져 5만원 이상인 경우는 77.4%로 가장 높았으며 용돈을 부정기적으로 받는 청소년의 경우도 70.2%로 이용률이 높았다. 용돈을 부정기적으로 받는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이들 중 대다수가 용돈을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타서 쓰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들 중 부분적으로 뽀뽀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살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르바이트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없는 청소년(52.8%)보다 해본 적이 있는 청소년(72.8%)의 이용률이 높았다. 이는 뽀뽀의 사용이 가정의 생활수준보다는 청소년 자신의 경제력과 더욱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흡연이나 유흥업소 출입 경험에 따라서는 이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흡연 52.5%, 유흥업소 49.4%)보다 경험이 있는 청소년(흡연 81.1%, 유흥업소 79.1%)의 뽀뽀나 음성사서함 이용률이 높았다. “웬만큼 노는 아이들은 대부분 사용” 한다는 학생의 말이 이 문화현상을 적절히 대변해 주는 것 같다.

10) 이성과 동성 친구간의 친밀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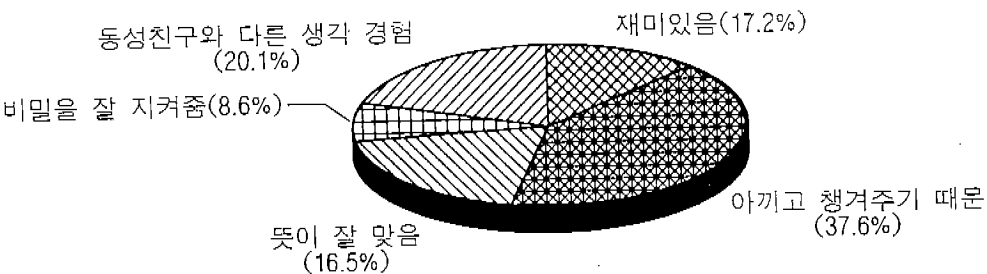
동성친구와 이성친구 중 어느 쪽이 더 좋은가를 알아본 결과, 이성친구가 더 좋다는 청소년이 34.9%로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서로 아끼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 이성친구가 더 좋다는 청소년이 37.6%로 가장 많았다. 면접조사 자료에 의하면, 음성정보 서비스를 통해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밥 먹었니?” 라고 관심을 보이고 챙겨주는 경우가 있었다.

〈표 4-15〉 이성과 동성 친구 중 더 좋은 친구

더 좋은 친구	백 분 율(실수)
이성친구	34.9 (204)
비슷하다	20.5 (120)
동성친구	30.1 (176)
경우에 따라 다름	14.5 (85)
계	100.0 (585)

이것을 앞에서 이성교제를 원하는 경우에 대해 외롭고 쓸쓸할 때가 가장 높은 응답율(29.0%)을 보인 것과 연관지어 볼때, 동성끼리는 경쟁의 대상이 되므로, 이성친구사이에 학교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서로 이기고 챙겨줄 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본다. 그 다음은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생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가 20.1%, 더 재미있으므로가 17.2%, 뜻이 더 잘 맞으므로가 16.5%, 비밀을 더 잘 지켜주므로는 8.6%였다.



〈그림 5〉 이성친구가 더 좋은 이유

현재 또는 과거의 이성교제 경험을 종합하면, 이성교제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이 대략 반반씩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서 이성교제를 원하는 청소년이 과반수를 조금 넘고 있으며, 이성교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이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공부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등으로 공부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는 청소년이 많은 편인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님의 이성교제 반대이유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률은 여자보다는 남자 청소년이 더 많았고,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많았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 보다 실업계 학생의 경험률이 높았다. 남녀공학여부에 따라서는 공학의 학생보다 비공학의 학생의 경험률이 높았다. 학업성적에 따라서는 성적이 하위권인 학생의 이성교제 경험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용돈 액수가 많을 수록 경험률이 높으며, 부모님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 비해 별다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는 그저 그렇다는 경우 이성교제의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흡연, 유흥업소 출입 등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있는 청소년의 경험률이 높았다.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경우의 이성교제 희망여부에 관해서도 집단별로 생활수준에 따라 현재까지 이성교제 경험은 없지만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이 중류층이나 하류층에 비해 상류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님이 이성교제에 관해 찬성하는 경우, 그저 그렇거나 반대하는 경우에 비해 이성교제를 원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흡연이나 유흥업소 출입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없는 청소년에 비해 이성교제를 한 경험률도 높았지만 이성교제를 원하는 비율도 높았다.

처음 데이트를 한 시기는 국민학교나 중학교 때가 대부분을 차지해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저연령화해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이들 청소년이 이성교제를 하게 된 동기는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하게 되었다는 청소년이 가장 많아 절반 이상이 별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청소년이 이성친구를 과거에 사귀었거나 현재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고 계신 경우는 전체의 과반수 정도이고, 이는 아버지와 대화 정도 및 부모님의 이성교제 찬반여부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 편일 때가 안하는 편일 때에 비해 자녀의 이성교제 사실에 대한 인지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부모님이 자녀의 이성교제를 찬성할 때가 그저 그렇다나 반대할 때에 비해 자녀의 이성교제 사실에 대한 인지도도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성교제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청소년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부모님이 이성교제에 찬성하거나 그저 그런 경우에 비해 반대하는 경우 공부에 지장을 준다고 보는 청소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친구와 만나는 시간은 별 규칙 없이 아무때나 만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성친구와 주로 만나거나 가는 장소는 노래방이나 커피점, 카페, 공원 등이며, 이성친구와 만나서 하는 일은 이야기나 오락, 놀이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 또는 친구 이야기로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 다음은 공부 및 학교생활이며, 연예인이나 TV프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나, 취미 또는 종교, 진로 등에 관해서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응답해 청소년들이 진지한 이야기로 토론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가족과 친구같은 의미있는 관계에 대해 얘기하고, 공부에 대한 압박과 그 대응 등 매일 매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성친구와 만날 때 어디서 만나고 무엇을 할 지의 결정은 의논해서 결정한다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기분나는 대로 결정한다는 경우도 적지 않아 대부분 남녀간에 결정권에 있어 차별을 두지 않고 있으나, 차별을 하는 일부에 있어서는 남자가 결정한다가 여자가 결정한다보다 많았다. 이성교제에 드는 비용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충당하고 있고, 교제 비용을 내는 사람은 남자가 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절반정도인데 반해 여자가 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극소수로 매우 큰 차이를 보여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남녀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의식의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성친구와의 전화통화 시간을 알아본 바는 주 1회 이상이 과반수를 넘었고, 한번 전화할 때의 통화 시간은 30분 이상이 많아 용건만을 전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길어 청소년들의 전화통화는 용건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 보다는 그 자체를 데이트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성친구와 뽀빠나 음성사서함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을 해 본 경험을 알아본 결과 이용해 본 청소년이 이용해 보지 않은 청소년보다 훨씬 많았다.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신속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뽀빠나 음성사서함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로는 남자 청소년보다는 여자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이용률이 높으며,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보다는 실업계 학생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수준별 이용률은 자신의 가정의 생활수준이 낮다고 생각할 수록 뽀빠나 음성사서함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에 따른 이용률은 성적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났고, 용돈이 많을 수록 이용률이 높았으며, 아르바이트 및 흡연, 유흥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경우 이용률이 높았다.

동성친구와 이성친구 중에서 이성친구가 더 좋다는 청소년이 10명중 3명 이상을 차지했는데, 그 이유로는 서로 아끼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 이성친구가 더 좋다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3. 현재의 이성교제 경험

1) 이성친구 유무

〈표 4-16〉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 유무

(단위 : %)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전 체	73.6		26.4		1162	
교 급						
중 학 교	80.6		19.4		577	29.16***
고등학교	66.6		33.4		584	
계 열						
인 문 계	74.4		25.6		301	17.03***
실 업 계	58.3		41.7		283	
공학여부						
공 학	77.1		22.9		581	7.50**
비공학	70.0		30.0		580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67.3		32.7		370	15.93***
그저그렇다	79.7		20.3		424	
반대하는편	72.4		27.6		355	
학업성적						
상	77.7		22.3		229	14.94***
중	75.7		24.3		653	
하	64.4		35.6		267	
아르바이트경험						
없 다	80.3		19.7		856	77.85***
있 다	54.2		45.8		301	
흡연 경험						
없 다	79.0		21.0		956	95.36***
있 다	44.8		55.2		192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79.7		20.3		882	78.48***
있 다	52.4		47.6		269	

* P<0.05

** P<0.01

*** P<0.001

현재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는 청소년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26.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앞에서 살펴본 전체 이성교제 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90년대의 선행연구에서 21-36%가 현재 사귀고 있다고 응답한 결과에 비하면 다소 낮은 것이다(김영희, 1992; 이문희, 1993).

변인별로는 중학생(19.4%) 보다는 고등학생(33.4%) 이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이 많았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25.6%) 보다는 실업계 학생(41.7%) 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공학의 학생(22.9%) 보다 비공학의 학생(30.0%) 이 이성친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과거 또는 현재의 이성교제 경험과 일치하는 경향으로 그 이유도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앞의 결과와 달리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 또는 현재의 이성교제 경험률은 여자보다 남자가 현저히 많았으나 현재 이성친구 유무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 밖에 학업성적이 상(22.3%)이나 중(24.3%)인 학생보다는 하(35.6%)인 학생이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용돈액수가 많을 수록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19.7%) 보다 있는 청소년(45.8%) 이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의 교제 찬반여부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찬성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도 가장 많았고, 흡연이나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보다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2) 교제대상

〈표 4-17〉 교제대상

대 상	백 분 율(실수)
중학생	32.2(97)
재수생	1.7(5)
성 인	3.9(12)
고등학생	57.8(174)
대학생	3.3(10)
기타	1.0(3)
계	100.0(301)

청소년이 교제하고 있는 이성친구의 연령대나 신분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누구와 교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중학생의 경우는 상대방도 중학생인 경우가 84.4%로 가장 많고 고등학생과 사귀는 청소년이 약간(13.8%) 있었으나 재수생이나 대학생, 또는 성인과 사귀는 청소년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 또 고등학생의 경우도 역시 상대방도 고등학생인 경우가 83.7%로 가장 많았고 중학생이나 재수생, 대학생, 성인 등과 사귀는 청소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성친구를 사귀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교제동기

현재의 이성친구와 교제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청소년이 34.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PC통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청소년이 16.7%였으며, 클럽이나 종교단체를 통해서가 13.0%, 국민학교나 중학교 동창생인 경우가 10.0% 등이었고, 그 밖에 폰팅이 6.4%, 선후배를 통해서가 5.4%,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가 3.7% 등이다. 클럽이나 종교단체보다 PC통신을 통해 알게 된 계기가 더 높은 것이 특기할 점으로, 최근의 청소년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동 기	백 분 율 (실수)
국민학교, 중학교 동창생	7.0 (30)
독서실 또는 도서관에서 만남	2.3 (7)
클럽이나 종교단체를 통해서	13.0 (39)
선후배를 통해서	5.4 (16)
폰팅	6.4 (19)
기타	4.0 (12)
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3.7 (11)
친구의 소개로	34.1 (102)
부모나 어른의 소개로	1.3 (4)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3.0 (9)
PC통신	16.7 (50)
계	100.0 (299)

4) 교제시기, 장소 및 만나는 횟수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를 처음 사귄 시기는 중학생의 경우 국민학교 때가 20.2%, 중학교 때가 79.8%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국민학교 때가 4.1%, 중학교 때가 10.9%, 고등학교 때가 85.0%라고 응답해 이들 청소년의 이성교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면접조사 자료에서 나타난 “쉽게 만나 쉽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말을 상기하게 한다.

〈표 4-19〉

처음 만난 시기

(단위 : %)

교 급	국1,2,3	국4,5,6	중1	중2	중3	고1	고2	전 체
중학생	5.5	36.8	39.8	17.9				201(35.5)
고등학생	1.4	13.7	15.6	23.6	16.7	23.6	5.5	365(64.5)

이성친구를 맨 처음 만난 곳은 특정한 곳이라기 보다는 많은 청소년이 길(41.7%)에서 만났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학교가 22.0%, 공원이 13.3%, 음식점이 7.3% 등이다. 이것을 앞서 교제계기로 친구의 소개나 PC통신으로 알게 된 경우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과 관련지어 보면 청소년들이 우연히 길에서 만나 이성친구를 사귀기 보다는 만날 곳이 마땅치 않아 길에서 만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마땅치 않음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최근에 만나는 횟수는 월 1-2회 정도가 21.7%, 주1회 정도가 20.3%이며, 매일 만나는 청소년들도 16.7%나 되고 있다. 또한 주2회 정도는 17.0%, 불규칙적이라는 경우가 15.3%, 격일은 9.0%였다. 만나는 횟수에 비하여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한 파악이나 지도의 정도가 극히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앞으로 청소년의 이성과의 관계가 방향을 잃고 표류되어나 않을까 우려된다.

〈표 4-20〉

처음 만난 장소

장 소	백 분 율(실수)
도서관	4.0(12)
종교시설	9.7(29)
오락실	0.7(2)
음식점	7.3(22)
학교	22.0(66)
공원	13.3(40)
당구장	1.3(4)
기타	41.7(125)
계	100.0(300)

〈표 4-21〉

만나는 횟수

횟 수	백 분 율(실수)
매일	16.7(50)
주2회 정도	17.0(51)
월1-2회 정도	21.7(65)
격일	9.0(27)
주1회 정도	20.3(61)
기타	15.3(46)
계	100.0(300)

5) 현재 이성친구 선택기준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의 어떤 면에서 매력을 느꼈는지 알아본 결과,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는 청소년이 49.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모였다는 청소년이 25.7%로 이 두 가지 요소가 이성친구를 선택하는 압도적인 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예절이 바르다거나 취미가 같다는 등의 이유를 들고 있는 청소년도 있으나 두드러지는 비율을 차지하지 못했다.

〈표 4-22〉

현재 이성친구 선택기준

기 준	백 분 율(%)
외모	25.7
예절	8.1
학업성적	2.6
동정으로	2.4
장래성	2.0
취미	5.9
성격	49.0
인기	3.1
가정환경	1.2
계	100.0

6) 교제비용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데이트를 할 때 하루에 쓰는 비용을 알아보았는데, 돈을 쓰지 않는다는 청소년이 3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으로 22.8%였으며,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이나, 5천원 미만, 2만원 이상은 각각 16.4%, 15.4%, 13.4%로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1만원 이상 쓰는 청소년은 약 30%에 해당된다.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게 하기 위해 쓰지 않는다,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으로 묶어 변인별로 살펴보았다. 데이트할 때 쓰는 비용은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데이트 비용을 쓰지 않는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17.4%) 보다는 여자 청소년(46.3%)이 훨씬 많았고 쓰는 액수에 있어서도 남자 청소년은 1만원 이상 쓰는 경우가 48.3%나 되는 반면 여자 청소년은 11.4%에 불과하다. 이것은 데이트 비용의 경우 전적으로 남자가 내거나 남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청소년들의 생각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청소년들은 돈을 버는 것이 남자의 역할이므로 쓰는 것도 남자가 담당해야 한다고 하는 가부장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상대편 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평등한 남녀관계를 이루어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청소년 이성교제의 의의와는 배치되는 행동이라 할 수 있겠다.

교급별로는 중학생(43.9%) 보다 고등학생(25.1%)의 경우 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비율이 적었을 뿐 아니라 1만원 이상 쓰는 경우도 중학생은 18.6%이나 고등학생은 36.1%에 이르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예상대로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고(상 14.8%, 중 31.7%, 하 54.5%), 상류층의 청소년 중에는 하루에 2만원 이상을 쓰는 청소년도 3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용돈 액수에 따라서는 5만원 이상인 경우 데이트 비용을 쓰지 않는 청소년이 19.0%로 가장 적고 용돈을 부정기적으로 받는 청소년이 46.7%로 가장 많았다. 정해진 금액을 계획하여 쓰는 것이 다른 유형의 행동에서도 계획하고 절제하도록 할 것이므로 용돈사용에 관해 지도할 필요가 있겠다.

〈표 4-23〉

데이트비용

(단위 : %)

	쓰지않음	1만원미만	1만원이상	(사례수)	χ^2
전 체	31.0	16.4	13.4	298	
성 별					
남 자	17.4	26.2	22.1	149	57.85***
여 자	46.3	6.7	4.7	149	
교 급					
중 학 교	43.9	6.5	12.1	107	17.90**
고등학교	25.1	22.0	14.1	191	
생활수준					
상	14.8	14.8	33.3	27	18.05*
중	31.9	16.5	11.6	249	
하	54.5	18.2	9.1	22	
한달 용돈					
1만원 이상	29.4	35.3	35.3	17	30.21*
1-2만원	44.7	34.2	21.1	38	
2-3만원	40.0	46.0	14.0	50	
3-4만원	29.1	47.3	23.6	55	
4-5만원	25.0	37.5	37.5	24	
5만원 이상	19.0	32.1	48.8	84	
부정기적	46.7	30.0	23.3	30	

* P<0.05

** P<0.01

*** P<0.001

〈표 4-24〉

선물비용

(단위 : %)

	쓰지않음	1만원미만	1만원이상	(사례수)	χ^2
전 체	25.8	30.4	43.8	299	
한달 용돈					
1만원 이상	47.1	23.5	29.4	17	
1-2만원	31.6	39.5	28.9	38	
2-3만원	19.2	46.2	34.6	52	
3-4만원	18.2	32.7	49.1	55	22.74*
4-5만원	34.8	13.0	52.2	23	
5만원 이상	25.0	21.4	53.6	84	
부정기적	26.7	30.3	43.3	30	

* P<0.05

** P<0.01

*** P<0.001

이성친구에게 한번 선물하는데 쓰는 비용 또한 데이트 비용과 같은 이유로 쓰지 않는다, 1만원 미만, 1만원 이상으로 묶어 구분하였다. 1만원 이상이 43.8%로 가장 많고 1만원 미만은 30.4%이며 선물을 하지 않는 청소년은 25.8%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과의 심층면접에서 이성교제를 함에 있어 선물비용이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선물비용은 변인들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용돈 액수에 있어서만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용돈이 1만원 이하인 청소년은 선물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경우가 47.1%나 되는 반면, 5만원 이상인 청소년은 25.0%로 나타났고, 선물 액수에 있어서도 용돈이 1만원 미만인 청소년은 선물 액수가 1만원 이상인 경우가 29.4%이나 용돈이 5만원 이상인 청소년은 53.6%나 되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선물을 주는 시기는 생일, 입학, 졸업 등 특별한 날이 38.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마음내킬 때마다 주는 경우가 26.6%이며, 선물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21.1%였다. 면접조사에서는 이성친구를 만난지 100일 되는 날에 기념으로 이성교제 당사자 간에 선물을 교환하고, 동성친구들도 축하하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는 풍속이 청소년 사이에 번지고 있다고 한다.

〈표 4-25〉 선물주는 때

선물주는 때	백 분 율(실수)
선물해 본 적 없다	19.1 (65)
마음내킬 때마다	23.8 (81)
기타	11.5 (39)
생일 · 입학 · 졸업 때	34.4 (117)
만날 때마다	1.2 (4)
계	100.0 (340)

7) 이성친구와의 친밀도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와의 친한 정도를 알아 본 결과는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가 27.7%, 서로 이해하고 비밀을 털어 놓는 정도가 19.6%,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는 23.6%, 입맞춤이나 포옹을 하는 정도는 21.3%, 성관계를 한 경우는 7.8%로 나타나 대부분 육체 관계 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손을 잡고 다니는 정도의 건전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이성친구와 입맞춤이나 포옹을 한 청소년의 경우 성관계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들과 성관계를 한 비율을 합치면 29.1% 정도가 성비행 또는 성비행화할 우려가 있어 적은 수치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다.

변인별로는 먼저 성별에 따라 여자 청소년(입맞춤이나 포옹 17.8%, 성관계 2.0%)에 비해 남자 청소년(입맞춤이나 포옹 25.0%, 성관계 13.9%)의 경우는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현재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 차이가 없었음을 생각할 때 의외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방법에서도 우려하는 바를 언급했던 것과 같이 남학생은 현실보다 과장하고 여학생은 축소하여 응답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표 4-26〉

친밀도

(단위 : %)

	가벼운 대화 나누기	이해하고 비밀털어 놓기	손잡거나 팔짹끼기	입맞춤 이나 포옹하기	성관계	(사례수)	χ^2
전 체	27.7	19.6	23.6	21.3	7.8	296	
성 별							
남 자	25.0	18.8	17.4	25.0	13.9	144	20.86***
여 자	30.3	20.4	29.6	17.8	2.0	152	
교 급							
중 학 교	35.5	22.7	25.5	11.8	4.5	110	14.63**
고등학교	23.1	17.7	22.6	26.9	9.7	186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38.3	16.7	26.5	12.3	6.2	162	31.87***
있 다	14.9	23.1	20.1	32.1	9.7	134	
출연 경험							
없 다	35.5	23.4	23.4	14.2	3.6	197	44.61***
있 다	12.2	12.1	24.2	35.4	16.2	99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37.7	21.7	24.6	12.0	4.0	175	41.79***
있 다	13.2	16.5	22.3	34.7	13.2	121	

* P<0.05

** P<0.01

*** P<0.001

교급별로는 중학생(입맞춤이나 포옹 11.8%, 성관계 1.5%)에 비해 고등학생(입맞춤이나 포옹 26.9%, 성관계 9.7%)의 경우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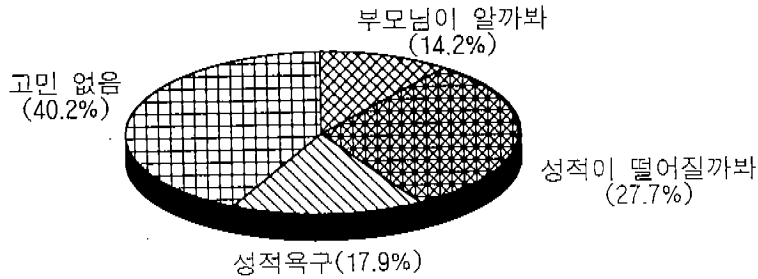
아르바이트 경험여부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였는데,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38.3%)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 아르바이트를 해 본 청소년은 입맞춤이나 포옹을 하는 정도(32.1%)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 학교

나 가정, 사회에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이나 유흥업소 출입 경험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여 흡연 경험이 없는 청소년(입맞춤이나 포옹 14.2%, 성관계 3.6%)과 유흥업소 출입경험이 없는 청소년(입맞춤이나 포옹 12.0%, 성관계 4.0%)에 비해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입맞춤이나 포옹 35.4%, 성관계 16.2%)과 유흥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입맞춤이나 포옹 34.7%, 성관계 13.2%)이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이성교제에 따른 고민

이성친구를 사귀으로써 갖게 되는 고민은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청소년이 27.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적인 충동이나 이성친구의 성적 요구가 17.9%, 부모님이 알까봐 불안하다는 14.2% 등이었으나, 고민이 없다는 청소년도 40.2%나 차지해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따른 고민이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인 충동을 다른 문화활동이나 스포츠, 사회활동을 통해 승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나 이성친구의 성적 요구를 적절히 거부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청소년들이 성비행으로 빠질 잠재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원래 바로선 아이는 이성친구 사귀다고 해서 뺄어지지 않아요”라는 면접 조사의 자료는 청소년 이성교제에 대한 우려를 다소 누그러뜨려 주기는 하나, 청소년기의 왕성한 에너지를 감안하면 여전히 이들을 지도할 프로그램과 시설이 필요한 것이다.



〈그림 6〉 이성교제에 따른 고민

현재의 이성교제 경험을 종합하면, 조사대상 청소년 10명중 4명은 현재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이성친구가 있는 청소년이 많았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인문계 학생보다는 실업계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녀공학의 학생보다 비공학의 학생이 이성친구가 많았다. 그 밖에 학업성적이 '상'이나 '중'인 학생보다는 '하'인 학생이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고, 용돈액수가 많을 수록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으며,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있는 청소년이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님의 교제 찬반여부에 따라서는 부모님이 찬성하는 경우 자녀에게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도 가장 많았고, 흡연이나 음주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보다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상대방은 중학생의 경우는 상대방도 중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고등학생의 경우 역시 상대방도 고등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소년들은 주로 자신과 비슷한 또래와 교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이성친구와 교제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다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PC통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그 밖에 클럽이나 종교단체를 통해서, 국민학교나 중학교 동창생인 경우 등이었다.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를 처음 사귄 시기는 중학생의 경우 중학교 때가 대부분이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고등학교 때가 대부분으로 이들 청소년의 이성교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성친구를 맨 처음 만난 곳은 특정한 곳이라기 보다는 많은 청소년이 길에서 만났다고 응답하고 있다. 최근에 만나는 횟수는 월 1회 내지 2회 정도가 가장 많았다.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의 선택이유는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외모였다.

현재 이성교제를 하고 있는 청소년이 데이트를 할 때 하루에 쓰는 비용은 돈을 쓰지 않는다는 청소년이 10명중 3명 정도였으나 1만원이상 쓰는 청소년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남자 청소년은 1만원 이상 쓰는 경우가 여자 청소년에 비해 훨씬 많았다. 또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경우 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비율이 적었을 뿐 아니라 1만원 이상 쓰는 경우도 더 많았다. 생활수준이 낮아질수록 비용을 쓰지 않는다는 비율이 높고, 상류층의 청소년 중에는 하루에 2만원 이상을 쓰는 청소년도 10명중 3명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용돈 액수에 따라서는 5만원 이상인 경우 데이트 비용을 쓰지 않는 청소년이 가장 적었다.

이성친구에게 한번 선물하는데 쓰는 비용은 1만원 이상이 가장 많았고 특히 선물 액수에 있어서 용돈액수가 많을 수록 선물액수도 비쌌다. 이러한 선물을 주는 시기는 생일, 입학, 졸업 등 특별한 날이 가장 많았다.

현재 사귀고 있는 이성친구와의 친한 정도를 알아 본 결과는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나 서로 이해하고 비밀을 털어 놓고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가 대부분이나 입맞춤이나 포옹을 하는 정도와 성관계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여자 청소년에 비해 남자 청소년,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경우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았고, 아르바이트 및 흡연과 유흥업소 출입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친구와 육체관계를 가진 비율이 높았다.

이성친구를 사귀으로써 갖게 되는 고민은 성적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성적인 충동이나 이성친구의 성적 요구이며, 부모님이 알까 봐 불안하다는 경우도 있었으나, 고민이 없다는 청소년도 10명중 4명이나 차지해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따른 고민이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4. 성경험

1) 사춘기 시작시기

신체 및 생리의 변화는 청년기에 당면하는 적응문제의 근원이다. 신체 및 생리의 변화 중 남자의 몽정과 여자의 초경은 사춘기의 시작을 알리는 생리적 지표가 된다(이춘재 외, 1988 : 31-33).

남학생 585명의 몽정시기를 조사한 결과 중학생의 경우 중1, 2학년 때 경험한 경우가 61.1%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학교 고학년에 경험한 경우가 12.7%이다. 이에 반해 고등학생의 경우 중1, 2학년 때 경험한 경우가 36.3%, 중3학년이 29.3%, 국민학교 고학년이 9.2%, 고등학교 때 경험한 경우가 12.5%이다. 여학생 583명 중 초경을 경험한 시기가 국민학교 고학년이 중학생의 경우 36.8%, 고등학생의 경우 25.6%이고 중학교 때 경험한 경우가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 51.9%, 73.7%이다. 다른 연구에서도 중·고생의 몽정·초경 시작시기는 신체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외에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신체적 발달이 가속화되어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위의 조사 결과 또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보다는 중학생의 경우 몽정·초경을 빨리 경험한 사람이 더 많다.

<표 4-27>

몽정 시작시기

(단위 : %, N=494)

교 급	경험없음	국민학교	중1	중2	중3	고1	고2	전 체
중학생	11.0	37.1	44.0	7.9				291(51.2)
고등학생	0.0	30.0	38.3	23.1	12.3	0.4	0.0	277(48.8)

<표 4-28>

초경 시작시기

(단위 : %, N=568)

교 급	경험없음	국민학교	중1	중2	중3	고1	고2	전 체
중학생	25.8	13.2	40.7	20.4				221(44.7)
고등학생	11.0	10.3	27.1	29.3	16.1	5.5	0.7	273(55.3)

몽정, 초경시기와 더불어 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질문하였다. 표<4-29>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성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더 빨라짐을 알 수 있다. 즉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저학년 때 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즉 중학생의 경우 국민학교 때가 35.3%, 중1학년 때가 52.1%, 중2학년 때가 12.6%이고,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 국민학교 때 25.7%, 중1, 2, 3학년이 각각 25.8%, 27.5%, 9.6%를 차지하고 있고, 고1, 2학년 때가 각각 8.6%, 1.4%를 차지하고 있다.

〈표 4-29〉 성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

(단위 : %)

교 급	국민학생	중1	중2	중3	고1	고2	전 체
중 학 생	35.3	52.1	12.6				527 (49.4)
고등학생	25.7	25.8	27.5	9.6	8.9	1.4	561 (50.6)

2) 입맞춤 경험

입맞춤을 경험해 본 청소년은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21.5%로 나타났다. 과거 연구에서 입맞춤 경험자의 비율이 10%미만인 것에 비해 21.5%라는 수치는 높은 편이다. 이들이 입맞춤을 한 상대는 애인이 52.0%로 가장 많고, 그냥 알고 지내는 이성친구가 38.4% 기타, 잘 모르는 사람이 8.9%이다.

입맞춤의 경험여부는 교급과 상호연관성이 있어 중학생이 입맞춤을 경험한 경우는 12.0%, 고등학생이 입맞춤을 경험한 경우가 31.0%를 차지하고 있어 상급생의 입맞춤 경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입맞춤 경험비율이 43.2%로 인문계 고등학생의 2배를 차지하고 있다.

〈표 4-30〉

입맞춤 경험유무

(단위 : %)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전 체	78.2	21.4	1169	
성 별				
남 자	75.9	24.1	585	4.49***
여 자	81.0	19.0	584	
교 급				
중 학 교	88.0	12.0	581	61.76***
고등학교	69.0	31.0	588	
계 열				
인문계	80.5	19.5	303	38.55***
실업계	56.8	43.2	285	
학업성적				
상	83.3	16.7	233	25.22***
중	81.3	18.7	657	
하	67.5	32.5	268	
흡연 경험				
없 다	86.9	13.1	962	254.61***
있 다	35.1	64.9	194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87.0	13.0	889	169.54***
있 다	49.6	50.4	270	

* P<0.05

** P<0.01

*** P<0.001

상 대	백 분 율(실수)
애인	52.8(143)
그냥 알고 지내는 이성친구	38.4(104)
기타	8.9(24)
계	100.0(271)

3) 성관계 경험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를 보면 연구대상의 지위, 연령, 지역 등에 따라 성관계 경험자의 비율이 차이가 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성관계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중 7.5%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나 청소년의 성행동 추세나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88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로 이들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관계 경험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인문계열보다는 실업계열의 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업성적과도 연관성이 있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과 중위권인 학생이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성적이 하위권으로 갈수록 성관계를 한 비율은 높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성적이 성경험과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한 Small & Luster(1994)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성관계의 경험유무는 가족구조와는 연관성이 없는 반면 부모와의 동거여부와는 연관성이 있었다. 즉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성관계 경험 비율이 높다. 지위비행의 유무 또한 성관계 경험여부와 연관성이 있어 흡연 경험과 유흥업소 출입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중학생의 경우 경험자 모두 성관계 당시 중학생이었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교 때 경험한 경우가 51.5%, 고등학교 때 경험한 경우가 48.5%이며, 그 상대자는 애인인 경우가 58.2%, 그냥 알고 지내는 이성친구가 41.8%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자의 신분은 고등학생이 45.1%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학생이 31.7%였다.

〈표 4-32〉

성관계 경험유무

(단위 : %)

	없 다	있 다	(사례수)	χ^2
전 체	92.5	7.5	1170	
성 별				
남 자	88.7	11.3	586	23.63***
여 자	96.2	3.8	584	
교 급				
중 학 교	97.1	2.9	581	35.04***
고등학교	87.9	12.1	589	
계 열				
인문계	91.4	8.6	304	7.27***
실업계	84.2	15.8	285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92.8	7.2	1131	6.70***
비동거	81.6	18.4	38	
학업 성적				
상	95.7	4.3	232	29.57***
중	94.4	5.6	657	
하	84.8	15.2	269	
흡연 경험				
없 다	97.2	2.8	964	189.87***
있 다	68.4	31.6	193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96.7	3.3	890	102.15***
있 다	78.1	21.9	270	

* P<0.05

** P<0.01

*** P<0.001

〈표 4-33〉 성관계 동기

성관계를 한 장소는 호텔이나 여관방이 21.7%, 상대방 부모님의 집이 19.3%, 상대방의 자취방이 13.3% 등이다. 이것은 자녀가 친구집에 놀러갈 때 반드시 성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부모들에게 확산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4-34〉 성관계 장소

- 137 -

4) 피임 경험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한 경우는 전체의 2.6%에 불과했는데,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콘돔이 45.0%로 가장 많았다.

〈표 4-35〉 피임방법

방 법	백 분 율(실수)
콘돔 사용	45.0(18)
먹는 피임약	17.5(7)
월경주기법	15.0(6)
질외 사정	17.5(7)
기타	5.0(2)
계	100.0(40)

대부분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라는 것이 23.2%로 가장 많았고, 피임도구나 약을 구할 수 없어서는 14.3%, 피임방법을 몰라서도 19.6%나 차지했다. 이러한 결과는 성관계를 경험한 일부 청소년이 성관계로 인한 임신, 성병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피임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교육시 피임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한다.

〈표 4-36〉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

이 유	백 분 율(실수)
피임방법을 몰라서	19.6(11)
피임도구나 약을 구할 수 없어서	14.3(8)
피임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2.5(7)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23.2(13)
기타	30.4(17)
계	100.0(56)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경험을 종합하면, 남학생의 몽정과 여학생의 초경시기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보다는 중학생의 경우 몽정·초경을 빨리 경험한 사람이 더 많다. 청소년들이 성에 관심을 가지는 시기가 더 빨라서 중학생의 경우 고등학생보다 저학년 때 성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입맞춤을 경험해 본 청소년은 10명 중 2명 정도이고, 이들이 입맞춤을 한 상대는 애인이 절반정도로 가장 많았다. 입맞춤의 경험여부는 교급과 상호연관성이 있어 상급생의 입맞춤 경험 비율이 훨씬 높았고, 계열별로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우 입맞춤 경험비율이 인문계 고등학생의 2배를 차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입맞춤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다. 입맞춤 경험여부는 학업성적과도 연관성이 있어 성적이 하위권일수록 입맞춤 경험비율은 높다. 지위비행의 유무 또한 입맞춤 경험여부와 연관성을 보여주는데 흡연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입맞춤을 경험한 비율이 4배가 훨씬 넘고, 유흥업소 출입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입맞춤을 경험한 비율이 3배가 훨씬 넘는다.

성관계의 경험이 있는 경우는 총 88명으로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나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88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성관계 경험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인문계열보다는 실업계열의 학생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학업성적과도 연관성이 있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과 중위권인 학생이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성적이 하위권으로 갈수록 성관계를 한 비율은 높아진다. 또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는 청소년의 경우 성관계 경험 비율이 높고, 흡연 경험과 유흥업소 출입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성관계의 상대자는 애인인 경우가 절반을 넘고, 성관계를 하게 된 동기도 자신이 원한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성관계를 한 장소는 호텔이나 여관방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대방 부모님의 집이며 다음은 상대방의 자취방 등이다.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한 경우는 극소수였는데,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콘돔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라는 것이 가장 많았고, 피임도구나 약을 구할 수 없어서, 피임방법을 몰라서 등이다.

제 5 장 결 론

1. 조사결과 요약

이 연구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및 경험과 성에 대한 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청소년의 이성교제 및 성고민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결과 나타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보면, 청소년들은 대다수가 이성교제를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용돈액수가 많을수록 필요성을 인정하는 비율도 높았고 부모님이 자녀의 이성교제를 찬성하는 경우와 아르바이트나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성친구를 사귄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인간성'이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은 '외모'가 차지했는데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외모를 중시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은 이성과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자보다는 여자, 고등학교생보다는 중학생, 성적이 하위권 보다는 중상위권, 지위비행 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경우 더욱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나 교사의 태도 등 이성교제 관련사항에 대해 보면, 청소년의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학생의 부모가 여학생의 부모보다 또 비공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보다는 남녀공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 자녀와 대화를 자주하는 부모, 그리고 생활수준이 높을 수록 허용도가 높았다. 부모님이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경우 그 이유는 과반수 정도가 학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이성교제를 하게 될 경우 부모나 교사의 도움과 이해 또는 묵인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청소년의 과반수 이상은 어른들로 부터 이성교제에 관한 도움말을 들은 경험이 있으나 실제 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을 아는 청소년은 매우 적었고 성교육 또한 이성교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고등학생 중에서도 실업계보다는 인문계 학생, 남녀공학 보다는 비공학의 학생이 더욱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세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성적 욕구를 느끼는 청소년도 10명중 8명이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해소방법으로는 운동이나 음악감상 등 취미활동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 성적 자극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영상매체를 볼 때이고 가장 많은 성관련 고민은 성적 충동이며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는 상담실이나 전문가와 상담하기 보다는 주로 친구와 상의하고 있거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관련 지식도 주로 친구를 통해 얻고 있다. 그리고 성행위에 대한 생각은 자연스런 발달과정으로 보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는데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또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더욱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추하게 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혼전 순결에 대해서는 지켜야 한다고 보는 청소년과 그렇지 않다는 청소년이 대략 반반씩 차지하고 있고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네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이성교제 경험을 살펴 보면, 청소년 10명중 4-5명 정도는 미팅이나 소개팅의 경험이 있고 이성교제를 한번이라도 해 본 청소년은 절반 정도이며 현재 사귀고 있는 청소년도 4명중 1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 실업계 고등학생, 남녀공학 학생 보다 비공학 학생, 생활수준이 상하인 경우보다 중류층인 경우, 용돈액수가 많을 수록, 부모님이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경험률이 높았다. 또한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 중에도 이성교제를 원하는 청소년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의 대다수가 이성교제를 하고 있거나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치 않는 경우 그 이유로는 공부에 지장이 있을까 우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다섯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구체적인 이성교제 실태를 보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최초의 교제시기는 중학교 때가 가장 많았고 교제 동기는 우연히 기회가 닿았다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중 부모님 모르게 사귀는 청소년은 4명중 1명 정도이고 이성교제가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청소년은 별로 없었다. 이들 청소년은 불규칙하게 만나 노래방이나 카페에 가는 경우가 많고, 주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교제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청소년도 많았지만 한번에 2만원 이상 쓰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성별에 따라 차이가 많아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생활수준이 높거나 용돈이 많을 수록 교제 비용을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이성친구가 동성친구보다 서로 아끼고 잘 챙겨주기 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마음을 나누는 정도가 가장 많았지만 입맞춤을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청소년도 적지 않았다. 특히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육체관계의 경험률도 높았다. 그러나 이성교제에 따른 고민은 성적이나 성충동에 대해 우려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없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해 살펴 보면, 남학생의 동정 시기는 중학교 1, 2 학년 정도가 대부분이고 여학생의 초경시기 역시 비슷하게 나타나 있다. 성에 관심을 갖는 시기는 더욱 빨라 이미 국민학교 때부터 시작되어 중학교 1학년 정도에는 대부분 관심을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인 접촉의 허용범위는 입맞춤이나 포옹까지는 대부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허용적인 태도는 남학생과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및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더욱 두드러 진다. 실제 입맞춤을 경험한 청소년은 5명중 1명 정도로 그 상대는 애인이거나 이성친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인문계 보다는 실업계, 성적이 낮을 수록,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경우 입맞춤 경험률이 높았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 1170명 중에서 88명을 차지해 우려할 정도는 아니나, 앞에서 10명중 8명이 성적 충동을 가졌다는 점과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청소년이 응답자의 약 반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다.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인문계 보다는 실업계, 지위비행 경험이 있는 경우 특히 성관계 경험률이 높았다. 이들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한 경우는 극히 적었는데 대부분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를 원하고 있고 실제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성교제는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이성교제는 성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성적인 문제에 있어 대부분 건전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청소년들은 이성교제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도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이성교제 경험은 여자 보다는 남자, 중학생 보다는 고등학생, 인문계 고등학생 보다는 실업계 고등학생의 경험률이 높았고 이성교제 실태 전반에 있어 주로 관련이 있는 요인은 부모님의 이성교제 찬반에 관한 태도, 용돈 액수, 아르바이트 경험, 흡연이나 유흥업소 출입 등 청소년 지위비행 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성별에 따라 이성교제나 성에 대한 태도와 경험이 다르고 교급에 따라 달라지며 계열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들 각 집단의 특수성을 파악해 지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의 지위비행은 이성교제 경험이나 성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지위비행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이성교제가 불건전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요망된다. 따라서 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매우 보편적인 현상이고 성인들의 우려와는 달리 매우 건전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므로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나 교사의 부정적인 시각은 그들의 교제를 음성화시켜 오히려 부정적으로 몰아 갈 가능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의 이성교제는 그들 자신의 선택의 문제로 의도적으로 제재하거나 권장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단 원하는 청소년이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그들

에 대한 배려로 건전한 이성교제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겠다.

세째, 청소년의 지위비행 경험의 성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나 교사는 평소에 청소년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 보아 이성교제가 성문제로 발전하지 않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네째, 이성교제를 원하는 청소년은 많은 반면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을 아는 청소년은 매우 적어 자칫 청소년의 무지로 인해 이성교제 중에 성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성교제 지침서나 성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2.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태도, 경험의 실태를 파악하여 이성교제를 건전하게 지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이를 위해 이성교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건전한 이성교제 및 성교육을 위한 교육적 지원, 성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 등을 시사하고 있다.

1) 이성교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인식 전환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또래끼리의 응집력이 커 또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또래 관계의 하나인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음성적으로 되지 않도록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수용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기는 이성에 대해 강렬한 호기심을 가지며 동경하게 되고 이성교제를 원하는 시기이다. 조사 결과 또한 이성교제를 경험한 청소년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성교제의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성교제를 원하는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청소년보다 많았다. 이렇게 청소년에게 있어서 이성교제가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주 생활의 장인 가정과 학교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현상에 대한 인식에 인색할 뿐만 아니라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부’라는 식으로 이성교제를 통제해 왔다. 이성교제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청소년 문제는 이러한 기성세대의 부정적 인식과 태도, 교육방침에 반하여 음성적인 방법으로 이성교제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건전한 이성교제를 위해서는 우선 청소년의 이성교제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현상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2)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시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도 능력을 강화할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부모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성교제에 대한 지도 능력을 갖도록 한다.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청소년들이 이성교제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교육은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발달과 성장을 도모하고 자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증진시킴으로써 성인으로서 그리고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청소년의 이성교제에 관해서 조언이나 지시의 성격이 아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이성교제를 지도하는 방법에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다.

- 부모는 평소 자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자녀의 이성교제를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자녀 스스로가 이성교제 사실과 내용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도록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일상생활 중에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올바른 이성교제를 할 수 있도록 훈육하여야 한다.
- 부모는 자녀에게 바람직한 부부상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상을 제시한다. 현대사회 가족문제 중 빈번히 나타나는 것 중 하나가 부부불화의 문제인데 이는 부부 당사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과정 중인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성관계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바람직한 부부상을 보여줌으로써 자녀에게 이성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식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게 하여 궁극적으로 이성교제의 바람직한 상(像)을 실생활에서 체득하게 한다.

- 청소년이 입맞춤, 성관계 등 성행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현대사회로 올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 조사 결과 또한 전체 응답자 중 일부에 해당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증명해 주었다. 청소년 자신의 성행동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질문하지 않았지만 경험률의 증가 추세나 관련 사례들을 분석해 볼 때 이러한 성행동의 의미에 대한 성행동에 뒤따르는 책임은 고사하고 인식조차 부재한 상태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행동을 이성친구와 경험하는 비율이 높다. 부모는 이성교제가 성비행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이성친구를 존중하고 다치지 않게 해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순결을 지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 이성친구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되 단 둘만 있게 되어 성비행을 저지를 만한 분위기를 갖지 않도록 성인이 없을 경우는 이성친구끼리 집에 있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가치관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하고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을 학습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한다.

이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성교제시 지금까지의 성교육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실제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을 아는 청소년도 매우 적게 나타났다. 따라서 남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이들 수련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성교제의 방법이나 예절을 학습하고 이성교제나 성에 대한 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4) 건전한 이성교제와 성교육을 위한 교육적 지원

(1) 중·고등학교의 남녀공학을 확대 실시한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녀공학 학생들이 비공학 학생에 비해 이성교제 경험률이 더 높다. 이것은 사춘기의 남녀가 격리되어 있을 때 이성을 이상화하여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는 것으로 유추된다. 따라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남녀공학의 확대를 통해 이성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 이성에 대한 무조건적 반발감이나 환상을 가지는 대신 학교생활 속에서 남녀의 특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평등과 서로에 대한 존경, 협력을 체득하게 한다.

(2) 이성교제와 성교육 지침서를 개발 보급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들에게 이성교제의 의미, 방법, 예절 등을 알려주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그리고 이성교제시 유의해야 할 성문제 등을 알려 주기 위한 지침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가치관 정립 및 실제적인 지식 전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지금까지 성교육 프로그램에 이용된 외국에서 제작한 슬라이드나 비디오 테이프 대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료, 각 연령에 알맞은 다양한 자료가 제작·보급되어야 한다. 성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접적인 교육 외에도 비디오, 만화 등 신세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케이블 TV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다채널 시대, 전문채널 시대가 열리고 있고 기존 방송국의 방송시간 확대 등으로 지금까지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TV는 더욱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TV매체를 통해 지금까지 전달된 기획물 중 이성교제나 성과 관련된 것은 거의 전무하나 그나마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보호 제로지대, 미성년자 가출의 현장」, 「막을 수 있나 10대의 가출」, 「인공유산」 등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비행을 중심으로 이성교제의 부정적인 측면만 흥미위주로 제작되었다. 기존의 기획물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건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획물의 제작과 보급이 필요하다.

(3) 교과서의 이성교제와 성교육 부분을 개정한다

-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성교제가 보편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과서에서는 ‘일찍이 이성관계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다 보면 학업을 통한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를 방해하여 자신의 발전을 막게 된다(중2 가정 p. 39)’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다(중2 가정 p. 39)’ 등 청소년기에 가질 수 있는 이성에 대한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지 않고 이성교제의 불건전한 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청소년이 이성과 교제할 때 충분히 유념해야 할 주의사항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바람직한 남녀관계를 정립시켜 바람직한 이성교제의 상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 생리적 지식만을 전달하고 있고 성을 종족보존의 수단으로만 이해시키려 하는 교과서의 내용 및 형식을 개정해야 한다. 성지식의 정도와 성지식의 출처에 관한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청소년은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가치관으로 고민하고 있다. 청소년이 공식적인 통로로서 1차적으로 성지식을 획득하는 곳은 학교이다. 본 조사 결과에서도 성교육용 자료와 책, 선생님을 통해서 성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40%를 넘는다. 그러나 교과서에 담긴 성교육 내용은 생리적 지식에 그치거나 그나마도 아예 외면되고 있고 성을 종족보존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해시키려 하는 등 혼란스러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관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생물, 가정, 체육, 도덕 등 여러 과목으로 나누어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내용은 단편적이고 범위가 뚜렷하지 않으며 중복되는 등 체계적인 면도 부족하므로 재구성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은 첫째, 초·중·고등학교 학년별 내용이 그 각각의 발달 단계에 적절해야 하고 상호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둘째, 피상적이고 간략한 서술 대신 청소년의 현실적인 고민, 의문과 호기심을 진지하게 풀어 주면서 과학적인 성지식과 긍정적인 성가치관을 갖게 한다. 셋째, 동성애, AIDS 등 최근의 현안을 신속히 다루어 대중매체를 통해 청소년에게 왜곡되고 편중되게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남녀 모두에게 평등한 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조사 결과 남학생과 비교해 볼 때 여학생은 이성교제나 성에 관련된 문항에 대한 응답률이 낮고 응답한 내용 또한 소극적인 것이 많아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의 형식이나 내용 또한 이러한 차별적 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녀 청소년이 같은 기준의 성교육을 받게 하여 현재 여학생의 순결에 치우쳐진 성교육의 시각을 남학생, 여학생 모두에게 평등하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

(5) 각 학교에 성교육 및 이성교제·성문제 상담 전문기를 배치한다

각 학교에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 교사를 두어 성교육 및 이성교제·성문제 상담을 담당하게 한다.

(6)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할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한다.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소년의 이성교제를 지도하고 성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여 지도 방안을 세울 수 있는 위원회를 조직한다. 교사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이성교제나 성과 관련된 고민이 당연한 발달 과정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민임을 인식시키고 대처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에 대해 알고 있는 여러 사항과 그로 인한 학부모의 고민을 교사 및 다른 학부모와 토의해 봄으로써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이해심을 가지게 되고 지도 방안 또한 세울 수 있게 된다.

5) 성문제 예방을 위한 사회환경 개선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주변의 향락산업, 급격히 빠른 전파속도와 광범위한 영향력을 지닌 대중매체, 불건전한 성인문화 등 청소년에게 성적인 자극과 잘못된 성의식을 심어 주는 사회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

(1)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강력한 행정적 통제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에도 나타났듯이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 성적 자극을 가장 많이 쉽게 받는 것은 왜곡되게 묘사된 영상매체를 볼 때이다. 그리고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출입이 가능한 퇴폐 향락업소 또한 성비행을 용이하게 한다. 특히 과학의 발달로 컴퓨터 통신 등 새로운 매체들 또한 쉽게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는 유해환경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에 대한 조정과 통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관되고 강력한 국가의 행정력이 필요하다.

(2) 가정, 학교, 사회는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감시와 통제로 일관하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여 그릇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성충동을 자극하는 환경에 대해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도와준다.

6) 일탈청소년에 대한 지도

이성교제가 성비행으로 발전하는 것은 청소년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 - 가족문제, 학교에서의 부적응 문제 등 - 에 직면했을 때 이성교제가 바람직한 대인관계가 아닌 갈등의 도피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놀이문화의 하나로 이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일탈청소년에게 많이 일어나 이성교제와 성비행이 엄연히 다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수단과 목적이 되기도 한다.

일탈청소년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일시적이고 충동적인 성비행을 미리 예방하고 사후에 교정하여야 하며 이들이 학교와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여 건강한 생활로 복귀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태순. 1993. “여고생의 이성교제,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애자. 1990. “중학교 학생들의 이성친구에 대한 태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이중, 김문조. 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생활세계적 접근”. 「한국 10대 청소년의 의식구조」. 세미나 자료.
- 김대식. 1981. “고교생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문환. 1994.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생의 이성 교제에 관한 비교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 1987. “한국청소년의 결혼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희. 1978. “이성교제와 성경험의 유발요인 추출에 관한 조사연구”.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양희. 1989. “성역할과 이성교제”. 「가족관계학」. 수확사.
- 김영희. 1992.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태. 1983. “청소년과 이성교제(1)”.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김정태. 1989. “청소년의 성문제와 지도대책”. 「청협」. 제13집 제4호 12월호.
- 김종희. 1991. “중등학교 여학생의 성지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치. 1986. “한국청소년의 성비행 요인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련. 1992. “청소년기의 발달과 발달과업”. 한국청소년연구원(편). 「청소년심리학」. 한국청소년연구원.

- 김한경. 1991. “산업체 근로청소년의 성문제”. 『가정의 벗』. 9월호.
- 류혜옥. 1986. “청소년의 성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기하. 1988. 『십대의 성』. 범우사.
- 박은주. 1993. “청소년의 성 가치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준희, 전찬화, 정식영, 황용연. 1989. 『중 고교생을 위한 성교육』. 교육출판사.
- 박준희. 1980. “바른 이성교제의 발달과 남녀교제의 지도”. 『청소년』. 봄호.
- 보드리야르, 장. 이상을 역. 1992. 『소비의 사회: 그 신화와 구조』. 문예출판사.
- 서동인. 1992. “청소년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연구』. 제10호.
- 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 1994. 『청소년상담활동보고서 1984-1994』. 서울 YMCA 청소년상담실.
- 신상목. 1986. “고등학교 학생들의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연선. 1992a. “데이트 강간을 일으키는 위험요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편. 『데이트 강간 세미나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 안연선. 1992b. “데이트 강간이란?”. 한국성폭력상담소 편. 『데이트 강간 세미나 자료집』. 한국성폭력상담소.
- 안창일. 1994. “자율시대 중 고생의 교외생활과 이성교제”. 『한국의 청소년상』. 서울 YMCA 청소년상 심포지움 모음집 II. 서울 YMCA.
- 엄주정. 1972. “여고생의 이성교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계화. 1988. “중 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규화. 1988. “중 고등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봉. 1983. “복장자율화가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문희. 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경. 1994. “피임”. 「일그러진 성문화 새로보는 성」. 동아일보사.
- 이순열. 1991. “성교육 도서를 활용한 성교육 지도 실천 연구”. 미간행연구논문.
- 이양남. 1984. “중학생들의 이성교제에 관한 의식조사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장현. 1994. “10대 청소년들의 가치관 연구”. 「홍대논총」. 제26집 2호.
- 이춘재. 1988. “청년기의 신체 및 생리의 변화”. 이춘재 외, 「청년심리학」. 인간 발달복지연구소.
- 이효재. 1989. 「가족과 사회」. 경문사.
- 장병림. 1985(a). 「청년심리학」. 법문사.
- 장병림. 1985(b). 「청년심리학」. 법문사.
- 장정애. 1990. “어머니의 학력 및 사회계층별 성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경. 1992. “청소년의 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차종환. 1989. 「청소년 그들은 누구인가」. 바울서신사.
- 천정웅. 1993. “청소년지표 1991-미국 청소년복지의 추세”. 「한국청소년연구」. 제13호. 한국청소년개발원.
- 청소년교육선교회. 1989. 「청소년기사 자료집 I, II, III, IV」. 청소년교육선교회.
- 최동규. 1990. “청소년의 성문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상진. 1983. “청소년과 이성교제(2)”.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편.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최순남. 1994.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한신대학교 출판부.
- 최신덕. 1983. 「결혼과 가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영기. 1982. “중학교 학생의 이성교제 실태조사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국겔럽조사연구소. 1991.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한국겔럽조사연구소.

- Abbey, Antonia. 1982. "Sex Differences in Attributions for Friendly Behavior : Do Males Misperceive Females' Friendli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5) : 830-838.
- Abbey, Antonia. 1991. "Misperception as an Antecedent of Acquaintance Rape : a Consequence of Ambiguity in Communication Between Women and Men." pp. 96-112 in *Acquaintance Rape: The Hidden Crime*, edited by Andrea Parrot & Laurie Bechhofer. New York :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Andrea Parrot & Laurie Bechhofer. New York :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Bechhofer, Laurie, & Andrea Parrot. 1991. "What is Acquaintance Rape?." pp. 9-25 in *Acquaintance Rape: The Hidden Crime*, edited by Andrea Parrot, & Laurie Bechhofer. New York :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Bem, Sandra Lipsitz, & Ellen Lenney. 1976. "Sex Typing and the Avoidance of Cross-Sex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1) : 48-54.
- Bohmer, Carol. 1991. "Acquaintance Rape and the Law." pp. 317-334 in *Acquaintance Rape: The Hidden Crime*, edited by Andrea Parrot & Laurie Bechhofer. New York :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Brooks-Gunn, Jeanne, Cherrie B. Boyer, & Karen Hein. 1988. "Preventing HIV Infection and AID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 Behavioral Research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merican Psychologist* 43 (11, November) : 958-964.
- Brooks-Gunn, Jeanne, Frank. F. Furstenberg, Jr. 1989. "Adolescent Sexu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44(2, February) : 249-257.
- Burkhart, Barry R. 1991. "Conceptual and Practical analysis of Therapy for acquaintance Rape Victims." pp. 287-303 in *Acquaintance Rape: The Hidden Crime*, edited by Andrea Parrot & Laurie Bechhofer.

- New York :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Burt, Martha R. 1991. "Rape Myths and Acquaintance Rape." pp. 26-40 in *Acquaintance Rape: The Hidden Crime*, edited by Andrea Parrot & Laurie Bechhofer. New York :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Calhoun, Karen S., & Ruth M. Townsley. 1991.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Acquaintance Rape." pp. 57-70 in *Acquaintance Rape: The Hidden Crime*, edited by Andrea Parrot & Laurie Bechhofer. New York : A Wiley-Interscience Publication.
- Campbell, Anne C. 1994. "Friendship as a Factor in Male and Female Delinquency." pp. 365-380. in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edited by Hugh c. Foot, Antony J. Chapman, & Jean R. Smith. New Brunswick : Transaction Publishers.
- Chilman, Catherine S. 1985. "Some Psychosocial Aspects of Adolescent Sexual and Contraceptive Behaviors in a Changing American Society." pp. 219-246 in *School-Age Pregnancy & Parenthood*, edited by Jane B. Lancaster & Beatrix A. Hamburg. New York : Aldine De Gruyter.
- Coleman, James S., & Torsten Husen. 1985. *Becoming Adult in a Changing Society*.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DiBlasio, Frederick A., & Brent B. Benda. 1994. "A Conceptual Model of Sexually Active Peer Association." *Youth & Society* 25(3, March) : 351-367.
- Dorius, Guy L. Tim B. Heaton, & Patrick Steffen. 1993. "Adolescent Life Events and Their Association with the Onset of Sexual Intercourse." *Youth & Society* 25(1, September) : 3-23.
- Dryfoos, Joy G. 1990. "Prevalence of Adolescent Pregnancy." pp. 61-78 in *Adolescents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Flora, June A. & Carl E. Thoresen. 1988. "Reducing the Risk of AIDS in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43(11, November) : 965-970.
- Foot, Hugh C., Antony J. Chapman, & Jean R. Smith. 1994. "Introduction." pp. 1-11. in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edited by Hugh c. Foot, Antony J. Chapman, & Jean R. Smith. New Brunswick : Transaction Publishers.
- Foot, Hugh C., Antony J. Chapman, & Jean R. Smith. 1994. "Patterns of Interaction in Children's Friendships." pp. 267-289. in *Friendship and Social Relations in Children*, edited by Hugh c. Foot, Antony J. Chapman, & Jean R. Smith. New Brunswick : Transaction Publishers.
- Hurlock, Elizabeth B. 1955.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 McGraw-Hill Book Company, Inc.
- King, Alan J. C. 1989. "Changing Sex Roles, Lifestyles and Attitudes in an Urban Society." pp. 265-275 in *The Social World of Adolescents : International Perspectives*. New York : Walter de Gruyter.
- Lamprot, Lyndal L., & Thomas Andre. 1993. "AIDS Knowledge and Sexual Responsibility." *Youth & Society* 25(1, September) : 38-61.
- O'Meara, J. Donald. 1989. "Cross-Sex Friendship : Four Basic Challenges of an Ignored Relationship." *Sex Roles* 21(7/8) : 525-543.
- Shotland, R. Lance, & Jane M. Craig. 1988. "Can Men and Women Differentiate between Friendly and Sexually Interested Behavior?."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1(1) : 66-73.
- Small, Stephen & Tom Luster. 1994. "Adolescent Sexual Activity : An Ecological, Risk-Facto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February) : 181-192.

부 록

1. 설 문 지
2. 통 계 표

청소년 이성교제 실태에 관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설립된 문화체육부 산하의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조사는 청소년 여러분의 이성교제와 성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답은 옳고 그름이 없으며 또 그것이 누구의 응답인지 일체 밝혀지지 않습니다. 응답하신 사항들은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한 근거자료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건전한 이성교제를 돕기 위한 본 연구에 협조해 주시는 뜻에서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995. 7.

한국청소년개발원

(137-130)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일동제약BL 4층

이 영 숙 578-7921(교환 169)

이 춘 화 578-7926(교환 157)

이 정 애 578-7921(교환 170)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되는 번호에 ○표하거나 써 주십시오(1~10).

1. 성별 : 남() 여()
2. 학생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① 불교 ② 기독교 ③ 천주교 ④ 유교 ⑤ 없다
 ⑥ 기타()
3.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① 가족이 함께 사는 집에서 ② 친척 또는 아는 사람 집에서
 ③ 자취하고 있다 ④ 하숙하고 있다 ⑤ 기타 (어디?)
4. 현재의 부모님은 다음 사항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두 분 모두 친부모 ② 아버지만 계신다. ③ 어머니만 계신다.
 ④ 친아버지와 계모(새엄마) ⑤ 친어머니와 계부(새아빠)
 ⑥ 두 분 모두 양부모 ⑦ 두 분 모두 안 계신다.
5.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정의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 ② 중 ③ 하
6. 형제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① 남자형제만 있다. ② 여자형제만 있다.
 ③ 남자형제도 있고 여자형제도 있다. ④ 형제가 없다.
- 7-1. 자신이 어떤 학생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범생이라고 생각한다. ② 평범한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③ 불량학생이라고 생각한다. ④ 잘 모르겠다.
- 7-2. 자신의 학업성적은 학급에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위권 ② 중위권 ③ 하위권
8. 한 달에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은 교통비를 제외하고 얼마입니까?
 월평균 용돈액수 : _____ 원

9. 아르바이트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있다면 어떤 일인지 쓰세요 _____)
10. 여가시간을 주로 어떻게 보냅니까?
 ① 스포츠 ② 음악감상(라디오 청취) ③ TV 또는 비디오 시청
 ④ 컴퓨터 통신 ⑤ 전자오락 ⑥ 만화책 또는 잡지 보기
 ⑦ 책읽기 ⑧ 기타()

* 아래의 질문은 아버지가 계신 학생만 응답해 주십시오(11~16).

11. 당신의 아버지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적어 주십시오
 ① 하시는 일(자세하게) ② 직업이 없다
12.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국민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중퇴, 졸업 ③ 고등학교 중퇴, 졸업
 ④ 대학교 중퇴, 졸업이상
13. 아버지가 당신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① 다정하고 말붙이기 쉽다 ② 엄하고 말붙이기 어렵다
 ③ 다정하지도 엄하지도 않다
14. 현재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① 아주 좋아한다 ② 좋아하는 편이다
 ③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④ 싫어하는 편이다
 ⑤ 아주 싫어한다
15. 당신은 아버지와 대화를 어느 정도 합니까?
 ① 아주 많이 ② 조금 하는 편 ③ 잘 안하는 편 ④ 전혀 안함
16. 아버지와 함께 하는 대화의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① 학업에 대해서 ② 친구관계에 대해서 ③ 집안일에 대해서
 ④ 진로에 대해서 ⑤ 여가생활에 대해서
 ⑥ 기타(_____)

* 아래의 질문은 어머니가 계신 학생만 응답해 주십시오 (17~22).

17. 어머니는 직장생활을?

- ① 하신다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_____)
- ② 안하신다

18.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 ① 국민학교 졸업이하 ② 중학교 중퇴, 졸업 ③ 고등학교 중퇴, 졸업
- ④ 대학교 중퇴, 졸업이상

19. 어머니가 당신에게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 ① 다정하고 말붙이기 쉽다 ② 엄하고 말붙이기 어렵다
- ③ 다정하지도 엄하지도 않다

20. 현재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아주 좋아한다 ② 좋아하는 편이다
- ③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다
- ④ 싫어하는 편이다 ⑤ 아주 싫어한다

21. 당신은 어머니와 대화를 어느 정도 합니까?

- ① 아주 많이 ② 조금 하는 편 ③ 잘 안하는 편
- ④ 전혀 안함

22. 어머니와 함께 하는 대화의 내용은 주로 무엇입니까?

- ① 학업에 대해서 ② 친구관계에 대해서 ③ 집안일에 대해서
- ④ 진로에 대해서 ⑤ 여가생활에 대해서
- ⑥ 기타(_____)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와 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되는 번호에 ○표하거나 써 주십시오 (1~14).

1-1. 당신은 이성 교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필요하다. ② 불필요하다

1-2. 이성교제가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가지를 선택하세요.

- ① 이성친구를 통해 나자신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므로
- ② 즐거움을 더할 수 있으므로
- ③ 슬픔과 고독을 달랠 수 있으므로
- ④ 서로에 대한 격려 등으로 학업에 도움이 되므로
- ⑤ 이성을 존중할 줄 아는 자질과 태도를 기를 수 있으므로
- ⑥ 배우자 선택이나 결혼생활에 필요하고 유익한 지혜를 얻을 수 있으므로

2. 만약 당신이 앞으로 이성친구를 사귄 때에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 ① 외모 ② 학업성적 ③ 인간성 ④ 돈 잘 쓰는 것
⑤ 가정환경 ⑥ 장래성 ⑦ 기타(구체적으로)

3. 이성친구도 친구관계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 ① 그렇다 ② 반반이다 ③ 그렇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4-1. 일반적으로 이성교제에 대해 부모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 ① 적극적으로 찬성 ② 대체로 찬성 ③ 그저 그렇다
④ 알고도 모른 채한다 ⑤ 대체로 반대 ⑥ 무조건 반대

4-2. 부모님이 이성교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① 학업에 지장이 있으므로
② 이성교제를 하기에 너무 이른 나이이므로
③ 성비행으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④ 돈 등이 낭비되므로
⑤ 기타()

11. 데이트할 때 중고등학생으로서 용납될 수 있는 행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 ① 손잡는 것 ② 포옹하는 것 ③ 입맞춤하는 것
④ 기타 (하고 싶은 것? _____)

12-1. 이성과 입맞춤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2-2. 처음으로 입맞춤을 경험한 상대자는 다음 중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① 입맞춤경험이 없다 ② 애인/서로 좋아(사랑)하는 사이
③ 그냥 알고 지내는 이성친구 ③ 기타(누구? _____)

13-1. 혹시 성관계 (sex)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3-2. 처음 성관계 (sex)를 경험했을 때, 몇 학년이었습니까?

- ① 성관계 (sex)경험이 없다 ② 중학교 ()학년 때
③ 고등학교 ()학년 때 ④ 기타(_____)

13-3. 성관계 (sex)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 ① 성관계 (sex)경험이 없다 ② 자신이 원해서
③ 자신은 원하지 않았으나 상대가 원해서 받아들임
④ 상대가 강제로 성폭행

13-4. 그러면 당신이 처음 성관계 (sex)를 경험하였던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① 성관계 (sex)경험이 없다
② 호텔, 여관 또는 여인숙 등의 숙박업소 ③ 노래방 ④ 비디오방
⑤ 상대방의 집 (□ 부모집 □ 자취방 □ 하숙집)
⑥ 본인의 집 (□ 부모집 □ 자취방 □ 하숙집)
⑦ 야외 (□ 공원 · 놀이터 □ 산 · 들 · 바다 □ 길가)
⑧ 기타(어디? _____)

13-5. 첫 성관계 (sex) 상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 ① 성관계 (sex) 경험이 없다 ② 애인/서로 좋아(사랑)하는 사이
- ③ 그냥 알고 지내는 이성친구 ④ 기타(누구? _____)

13-6. 첫 성관계 (sex) 상대자는 그 당시 다음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성관계 (sex) 경험이 없다 ② 국교생 ③ 중학생
- ④ 고등학생 ⑤ 재수생 ⑥ 대학생
- ⑦ 성인 ⑧ 잘 모르겠다

14-1. 피임(성관계sex로 인해 임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4-2. 주로 무슨 방법이었습니까?

- ① 피임방법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② 콘돔 사용 ③ 먹는 피임약
- ④ 월경 주기법 ⑤ 질외 사정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14-3. 피임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성관계 (sex)를 한 적이 없다.
- ② 피임방법을 몰라서
- ③ 성관계 (sex)할 때 피임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 ④ 피임도구나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 ⑤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
- ⑥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해당되는 번호에 ○표하거나 써 주십시오 (1~16).

1-1. 당신은 현재 이성과 사귀거나 과거에 사귀어 본 일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2. 그러면 당신은 이성교제를 원하니까?

- ① 아니오 ② 예

1-3. 이성교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 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 ② 부모님이 무서워서
- ③ 공부에 지장이 생길 것 같아서
- ④ 이성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 ⑤ 부끄럽고 자신이 없어서
- ⑥ 내가 좋아할 만한 상대가 없어서
- ⑦ 시간, 돈, 기타 여러 면에서 낭비가 될 것 같아서
- ⑧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 현재 이성과 사귀거나 과거에 사귀어 본 학생만 응답하시오 (2~16).

2. 당신이 처음 데이트했을 때 학년은?

- ① 국민학교 (학년 _____) ② 중학교 (학년 _____)
③ 고등학교 (학년 _____) ④ 기타 (_____)

3. 당신에게 이성교제친구가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있다는 사실을 부모님이 알고 계십니까?

- ① 알고 계신다 ② 알고 계실 것 같다 ③ 모르신다

4. 당신이 이성교제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이성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 ② 서로 배울 것이 많을 것 같아서
- ③ 슬픔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 ④ 남들은 있고 나는 없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 ⑤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 ⑥ 우연히 기회가 닿아서
- ⑦ 기타(_____)

5. 이성교제가 당신의 학업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 ① 공부에 지장을 준다 ②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더욱 열심히 공부하게 된다

6. 이성친구와 만나는 시간은 주로 언제입니까?

- ① 일요일(공휴일) ② 토요일 ③ 평일 방과 후 ④ 아무때나

7. 만나서는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시나요? 가장 많은 경우를 2가지 답해 주세요.

- ① 이야기 ② 오락(놀이 등)
- ③ 스포츠 ④ 문화활동(영화·전시회 관람 등)
- ⑤ 숙제나 공부 함께하기 ⑥ 먹는 일
- ⑦ 기타(_____)

8. 이성친구와 만나서 하는 이야기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 ① 공부 및 학교생활 ② 가정 또는 친구 이야기
- ③ 취미 ④ 연예인, TV프로
- ⑤ 종교 ⑥ 진로
- ⑦ 기타(_____)

9. 이성친구와 주로 만나거나, 가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장 많은 경우 2가지를 답하십시오)

- ① 친구의 집 ② 본인의 집 ③ 커피점 (카페)
- ④ 독서실 또는 도서관 ⑤ 극장 ⑥ 노래방
- ⑦ 비디오방 ⑧ 소주방 ⑨ 분식점 및 빵집 등
- ⑩ 유흥장 및 오락장 ⑪ 운동 경기장 ⑫ 종교시설 (교회, 절 등)
- ⑬ 공원이나 야외 ⑭ 기타 (_____)

10. 이성친구를 만날 때 어디서 만날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누가 결정합니까?

- ① 주로 여자가 결정한다 ② 주로 남자가 결정한다
- ③ 서로 의논해서 결정한다 ④ 기분나는 대로 결정한다

11. 이성과 사귀는 비용은 어떻게 준비합니까?

- ① 부모로부터 (용돈포함) ② 형제자매로부터 ③ 아르바이트해서
- ④ 친구에게 빌려서 ⑤ 기타 (_____)

12. 이성친구를 만날 때 드는 비용은 누가 냅니까?

- ① 주로 여자가 낸다 ② 주로 남자가 낸다
- ③ 서로 반반씩 낸다 ④ 그때 그때 돈 있는 사람이 낸다

13. 이성친구와 하는 전화통화시간은?

- ① 주 ()회 한번에 약 ()분 정도
- ② 월 ()회 한번에 약 ()분 정도
- ③ 자주 할 때도 있고 몇 달씩 통화하지 않을 때도 있다
- ④ 기타 (_____)

14. 이성친구와 빼빼, 음성사서함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15-1. 동성친구와 이성 친구 중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 ① 이성친구 ② 동성친구 ③ 비슷하다. ④ 경우에 따라 다르다.

15-2. 이성친구가 더 좋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2가지만 답하십시오)

- ① 더 재미있으므로
② 서로 아끼고 잘 챙겨주므로
③ 이성친구와 뜻이 더 잘 맞으므로
④ 비밀을 더 잘 지켜주므로
⑤ 동성친구와의 관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생각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16.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가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 현재 이성친구를 사귀고 있는 사람만 응답하십시오(1~11).

1.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 ① 중학생 ② 고등학생 ③ 재수생
④ 대학생 ⑤ 성인 ⑥ 기타 (_____)

2. 언제부터 사귀었습니까?

- ① 국민학교 때부터 ② 중1 때부터 ③ 중2 때부터
④ 중3 때부터 ⑤ 고1 때부터 ⑥ 고2 때부터

3. 어느 면에서 상대방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2가지만 답하십시오)

- ① 외모를 보고 ② 취미가 같아서
③ 예절이 발라서 ④ 성격이 마음에 들어서
⑤ 학업성적이 좋아서 ⑥ 인기가 높아서
⑦ 동정 때문에 ⑧ 가정 환경이 좋아서
⑨ 장래성이 있어서

4. 최근에 만나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일 ② 격일 ③ 주2회 정도
 ④ 주1회 정도 ⑤ 월 1-2회 정도 ⑥ 기타(_____)
5. 요즘 만나는 이성친구를 맨 처음 만난 곳을 기억하시면 답해주세요.
 ① 도서관 ② 학교 ③ 교회
 ④ 공원 ⑤ 오락실 ⑥ 당구장
 ⑦ 음식점 ⑧ 기타(_____)
6. 요즘 데이트할 때 하루에 당신이 쓰는 비용은 대체로 얼마입니까?
 ① 쓰지 않는다. ② 2천원 미만
 ③ 2천원 이상 - 5천원 미만 ④ 5천원 이상 - 1만원 미만
 ⑤ 1만원 이상 - 2만원 미만 ⑥ 2만원 이상
7. 이성친구에게 선물하는 데 쓰는 비용은 1회에 대체로 얼마입니까?
 ① 쓰지 않는다. ② 2천원 미만
 ③ 2천원 이상 - 5천원 미만 ④ 5천원 이상 - 1만원 미만
 ⑤ 1만원 이상 - 2만원 미만 ⑥ 2만원 이상
8. 이성친구에게 선물은 언제 해 보았습니까?
 ① 선물해 본 적이 없다 ② 생일 · 입학 · 졸업 때
 ③ 마음내킬 때마다 준다 ④ 만날 때마다 준다
 ⑤ 기타(_____)
9. 당신이 이성을 교제하게 된 계기는 어떤 것입니까?
 ① 국민학교 동창생 ② 한동네에 살고 있어서
 ③ 독서실 또는 도서관에서 만남 ④ 친구의 소개로
 ⑤ 클럽이나 종교단체를 통해서 ⑥ 부모나 어른의 소개로
 ⑦ 선후배를 통해서 ⑧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⑨ ☐ 폰팅 ☐ PC통신 ☐ 음성사서함 ⑩ ☐ 기타(_____)

10. 이성친구와는 어느 정도 친합니까? (있는대로 답하십시오)

- ① 가벼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도
- ② 서로 이해하고 비밀을 털어놓는 정도
- ③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정도
- ④ 입맞춤이나 포옹을 하는 정도
- ⑤ 성관계 (sex)

11. 이성친구를 사귀으로써 갖게 되는 고민은 어떤 것입니까?

- ① 부모님이 알까봐 불안하다
- ② 성적이 떨어질까봐
- ③ 성적인 충동, 이성친구의 성적 요구
- ④ 기타 (_____)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 해당되는 번호에 ○표하거나 써 주십시오 (1~16).

1. 처음으로 성(신체적 변화 또는 이성친구)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① 국민학교()학년 때

② 중학교 ()학년 때

③ 고등학교()학년 때

2-1. 초경(처음으로 생리가 시작됨)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여학생만 답하십시오)

① 국민학교()학년 때 ② 중학교()학년 때

③ 고등학교()학년 때 ④ 기타()

2-2. 몽정(잠자는 사이에 정액이 배출되는 것)은 언제 처음으로 경험했습니까? (남학생만 답하십시오)

① 국민학교()학년 때 ② 중학교()학년 때

③ 고등학교()학년 때 ④ 기타()

3. 성행위(입맞춤, 포옹, 성관계 등)에 대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추하다고 생각된다 ② 인간의 자연스런 발달과정이라고 본다

③ 쾌락이다 ④ 생각해 본적 없다

4. 입맞춤, 애무, 성욕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느끼십니까?

① 항상 느낀다 ② 자주 느낀다 ③ 가끔 느낀다

④ 전혀 느끼지 않는다

5. 성적 충동을 느꼈을 때 주로 어떻게 해소합니까?
- ① 성적 충동을 느낀 적이 없다 ② 운동, 음악감상 등을 한다
 ③ 자위행위(딸딸이)를 한다 ④ 공부에 전념한다
 ⑤ 직접적인 성경험을 한다 ⑥ 전화 등을 통한 간접적인 성경험을 한다
 ⑦ 기타(_____)
6. 성적 자극을 가장 심하게 받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 ① 이성친구와 함께 있을 때
 ② 친구들로부터 성관계(sex)에 관한 얘기를 들을 때
 ③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 이성과 몸이 닿았을 때
 ④ 남녀의 실제 포옹장면을 볼 때
 ⑤ 소설, 잡지를 볼 때
 ⑥ 그림, 사진을 볼 때
 ⑦ 영화, TV, 비디오를 볼 때
 ⑧ 그런 적이 없다
7. 노골적으로 성을 묘사한 대중매체(영화, TV, 비디오, 만화, 잡지, 소설 등)를 접했을 때의 느낌은?
- ① 기분이 좋았다 ② 유익하다 ③ 별다른 느낌이 없었다
 ④ 혐오감이 든다 ⑤ 본대로 행동해 보고 싶다
8. 다음과 관련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있는 대로 표하세요)
- ① 월경 ② 몽정 ③ 자위행위
 ④ 임신 ⑤ 출산 ⑥ 유방, 성기
 ⑦ 이성친구로 인한 성적 충동 ⑧ 성적인 욕구 ⑨ 성관계(sex)
 ⑩ 성폭행 ⑪ 성병 ⑫ 없음
9. 위와 같은 고민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① 부모와 상의 ② 형제와 상의
 ③ 학교 선생님과 상담 ④ 친구와 상의
 ⑤ 상담실에 전화상담 ⑥ 전문가에게 직접 찾아가서 상담
 ⑦ 잡지나 서적 ⑧ 해결 못하고 있다.
 ⑨ 위와 같은 고민을 한 적이 없다 ⑩ 기타(_____)

10. 남녀의 성충동 차이에 대해 어느 정도 아십니까?
 ① 많이 안다 ② 조금 안다 ③ 모른다
11. 피임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압니까?
 ① 많이 안다 ② 조금 안다 ③ 모른다
12. 에이즈(AIDS)는 동성연애나 주사바늘을 통해서만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13. 여러분이 현재 알고 있는 성지식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① 부모 ② 형제자매 ③ 선생님
 ④ 다른 어른 ⑤ 친구 ⑥ 라디오, TV, 영화
 ⑦ 그림, 사진 ⑧ 신문, 잡지 ⑨ 성교육용 자료와 책
 ⑩ 기타(_____)
14. 성에 대한 현재의 관심은?
 ① 대단히 많다 ② 많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거의 없다 ⑤ 전혀 없다
15. 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부모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① 성에 대해 질문해 보지 않았다 ②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다
 ③ 대답을 회피하신다 ④ 화를 내신다
 ⑤ 기타(_____)
16. 성문제는 누구와 의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모님 ② 형제자매
 ③ 친구들과 의논하고 싶다 ④ 선생님
 ⑤ 자신을 밝히지 않고 상담실에 ⑥ 이야기하기가 창피하다
 ⑦ 의논할 필요가 없다 ⑧ 기타(_____)

17. 결혼전의 순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 ① 남 녀 다같이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
- ②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면 결혼 전 성관계 (sex)를 갖는 것도 상관없다
- ③ 남자만 지켜야 한다
- ④ 여자만 지켜야 한다
- ⑤ 요즘 세상에 순결을 따지는 것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 ⑥ 순결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 학생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하십시오.

	있 다	없 다
① 습관적으로 담배 피우기	_____	_____
② 술 마시기	_____	_____
③ 환각제 사용(본드, 부탄가스 등)	_____	_____
④ 노래방, 비디오방 출입	_____	_____
⑤ 유흥업소(술집, 디스코텍 등) 출입	_____	_____
⑥ 가출	_____	_____

부록 2 통계표

1. 이성교제에 대한 태도

〈부록표 1-1〉 이성교제의 필요성

(단위 : %)

	필요	불필요	(사례수)	χ^2
전체	86.3	13.7	1163	
성별				
남자	88.3	11.7	582	3.57
여자	84.3	15.7	581	
교급				
중학교	83.4	16.6	578	7.91**
고등학교	89.2	10.8	585	
계열				
인문계	88.1	11.9	302	.63
실업계	90.5	9.5	283	
공학여부				
공학	87.4	12.6	581	1.03
비공학	85.2	14.8	582	
생활수준				
상	82.5	17.5	126	1.70
중	86.8	13.2	967	
하	86.8	13.2	68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 편	93.0	7.0	371	21.91**
그저 그렇다	82.0	18.0	423	
반대하는 편	84.1	15.9	358	

	필	요	불 필 요	(사례수)	χ^2
학업성적					
상	86.6		13.4	232	.27
중	86.0		14.0	652	
하	87.3		12.7	268	
한달 용돈					
1만원 이상	80.2		19.8	111	19.12**
1-2만원	85.1		14.9	241	
2-3만원	88.4		11.6	216	
3-4만원	87.1		12.9	209	
4-5만원	88.9		11.1	90	
5만원 이상	92.7		7.3	177	
부정기적	77.5		22.5	120	
아르바이트경험					
없 다	83.6		16.4	856	19.23***
있 다	93.7		6.3	303	
흡연 경험					
없 다	85.0		15.0	957	9.54**
있 다	93.3		6.7	194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84.0		16.0	885	19.24***
있 다	94.4		5.6	269	

〈부록표 1-2〉

이성교제를 원하는 동기

(단위 : %)

	공부에 서벗어 나고싶 을 때	친구가 이성친 구애기 때 불할때	외롭고 쓸쓸할 때	이성에 대해알 고싶을 때	잡지나 소설을 읽을때	라디오 듣고 TV 볼 때	상상하 던이성 나타났 을때	데이트 하는 남녀를 볼때	기타	(사례수)	χ^2
전 체	7.1	20.6	29.0	6.4	2.9	1.8	17.7	7.2	7.3	1112	
성 별											
남 자	7.7	14.7	32.1	9.5	2.7	1.8	18.0	9.0	4.5	557	57.15***
여 자	6.5	26.5	25.9	3.5	3.1	1.8	17.5	5.4	10.1	555	
교 급											
중 학 교	8.9	21.6	26.4	7.3	2.7	2.0	17.1	7.8	6.2	550	12.58
고등학교	5.3	19.6	31.7	5.5	3.0	1.6	18.3	6.6	8.4	562	
계 열											
인문계	6.5	20.9	29.1	7.2	4.1	1.7	17.8	6.2	6.5	292	11.62
실업계	4.1	18.1	34.4	3.7	1.9	1.5	18.9	7.0	10.4	270	
공학여부											
공 학	7.3	18.6	29.1	5.7	2.4	2.0	19.6	6.4	9.0	547	11.28
비공학	6.9	22.5	29.0	7.1	3.4	1.6	15.9	8.0	5.7	565	

* P<0.05 ** P<0.01 *** P<0.001

	그렇다	반반이다	그렇지않다	잘모르겠다	(사례수)	χ^2
전 체	57.2	26.6	8.6	7.7	1167	
성 별						
남 자	48.4	30.3	12.3	9.1	585	43.74***
여 자	66.0	22.9	4.8	6.4	582	
교 급						
중학교	60.7	21.7	7.2	10.3	580	25.42***
고등학교	53.7	31.3	9.9	5.1	587	
계 열						
인문계	52.5	33.0	9.2	5.3	303	1.01
실업계	54.9	29.6	10.6	4.9	284	
공학여부						
공 학	59.5	23.2	9.3	8.1	582	6.91
비공학	54.9	29.9	7.9	7.4	585	
가족구조						
정상가족	58.6	26.0	8.3	7.1	1007	7.59
결손가족	49.0	29.0	9.7	12.3	155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57.5	26.3	8.3	7.8	1128	5.19
비동거	47.4	34.2	15.8	2.6	38	
부모의 교체찬반						
찬성하는편	61.3	23.7	9.9	5.1	372	15.42*
그저그렇다	53.1	31.7	6.8	8.5	426	
반대하는편	58.3	23.8	9.2	8.7	357	
학업성적						
상	57.5	30.9	7.7	3.9	233	15.49
중	58.9	25.8	7.8	7.5	655	
하	53.2	24.3	10.9	11.6	267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56.8	26.3	8.1	8.9	857	7.62
있 다	58.2	27.5	10.1	4.2	306	
흡연 경험						
없 다	58.0	26.8	7.4	7.8	960	11.90**
있 다	52.1	26.3	14.9	6.7	194	
유형업소 출입경험						
없 다	57.4	26.4	7.6	8.6	886	9.87*
있 다	56.5	26.9	12.2	4.4	271	

* P<0.05

** P<0.01

*** P<0.001

(단위 : %)

	찬 성	그저그렇다	반 대	(사례수)	χ^2
전 체	32.2	36.8	31.0	1159	
성 별					
남 자	38.8	40.0	20.8	577	58.07***
여 자	25.6	33.3	41.1	582	
교 급					
중 학 교	31.2	37.0	31.9	571	0.65
고등학교	33.2	36.7	30.1	588	
계 열					
인문계	29.9	36.5	33.6	304	4.48
실업계	36.6	37.0	26.4	284	
공학여부					
공 학	34.7	37.8	27.6	577	6.81*
비공학	29.7	35.9	34.4	582	
생활수준					
상	42.5	29.9	27.6	127	11.36*
중	31.7	37.0	31.4	963	
하	21.2	48.5	30.3	66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32.9	36.2	31.0	1004	1.91
비동거	28.0	41.3	30.7	150	
아버지와의 대화					
하 는 편	35.1	35.7	29.2	720	6.16*
안하는편	27.2	37.9	34.9	272	
어머니와의 대화					
하 는 편	33.8	36.9	29.3	903	9.19*
안하는편	25.0	29.8	45.2	84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1-5〉

부모와 교사에게 바라는 점

(단위 : %)

	이해하고 도와주었 으면	불량하게 보지말았 으면	모르는척 해주었으 면	교제를말 려주었으 면	기 타	(사례수)	χ^2
전 체	54.0	31.4	11.0	2.1	1.9	1163	
성 별							
남 자	49.7	31.8	14.4	2.4	1.7	584	23.94***
여 자	58.4	30.9	7.6	2.9	2.2	579	
교 급							
중 학 교	55.0	28.2	11.9	4.0	1.0	578	12.36*
고등학교	53.0	34.5	10.1	1.4	1.0	585	
계 열							
인 문 계	57.3	29.5	12.3	0.7	0.3	302	14.91**
실 업 계	48.4	39.9	7.8	2.1	1.8	283	
공학여부							
공 학	55.0	30.9	9.8	3.1	1.2	580	3.44
비공학	53.0	31.9	12.2	2.2	0.7	583	
생활수준							
상	57.6	29.4	10.0	2.6	.4	231	7.92
중	55.1	30.6	10.9	2.1	1.2	653	
하	49.1	34.1	12.7	3.7	.4	267	
가족구조							
정상가족	54.1	32.5	10.6	1.9	0.9	1004	20.26**
결손가족	54.5	22.7	14.3	7.1	1.3	154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53.7	31.7	11.1	2.5	1.0	1124	6.90
비동거	63.2	23.7	5.3	7.9		38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61.2	27.5	9.7	1.3	0.3	371	23.86**
그저그렇다	50.4	32.6	12.9	2.3	1.9	427	
반대하는편	51.5	34.1	9.3	4.5	0.6	355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1-6〉

부모의 도움말 여부

(단위 : %)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전 체	49.7		50.3		1166	
성 별						
남 자	43.2		56.8		583	64.09***
여 자	66.7		33.3		583	
교 급						
중 학 교	53.9		46.1		577	0.45*
고등학교	56.0		44.0		589	
계 열						
인문계	53.6		46.4		304	1.28
실업계	58.6		41.4		285	
공학여부						
공 학	57.2		42.8		580	2.22
비공학	52.7		47.3		586	
생활수준						
상	58.7		41.3		126	1.07
중	54.8		45.2		971	
하	51.5		48.5		68	
가족구조						
정상가족	56.3		43.8		1008	4.87*
결손가족	46.8		53.2		154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55.7		44.3		1128	6.84*
비동거	34.2		65.8		38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63.3		36.7		373	19.58***
그저그렇다	47.6		52.4		424	
반대하는편	55.0		45.0		358	
흡연 경험						
없 다	53.9		46.1		961	2.10
있 다	59.6		40.4		193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54.2		45.8		887	.66
있 다	57.0		43.0		270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1-7〉

교제방법이나 예절에 대해 아는 정도

(단위 : %)

	잘안다	조금안다	잘모른다	전혀모른다	(사례수)	χ^2
전 체	10.8	44.4	39.0	5.8	1164	
성 별						
남 자	13.2	40.0	39.6	7.2	583	15.70**
여 자	66.7	33.3	583			
교 급						
중 학 교	11.1	45.6	35.5	7.8	577	12.26**
고등학교	10.6	43.3	42.4	3.7	587	
계 열						
인문계	9.2	42.8	45.1	3.0	304	3.21
실업계	12.0	43.8	39.6	4.6	283	
공학여부						
공 학	11.2	42.5	40.8	5.5	579	2.15
비공학	10.4	46.3	37.3	6.0	585	
생활수준						
상	19.2	33.6	40.0	7.2	125	20.98**
중	9.3	46.6	38.7	5.4	968	
하	17.6	33.8	39.7	8.8	68	
가족구조						
정상가족	10.3	45.6	38.6	5.5	1004	5.72
결손가족	14.2	36.8	41.3	7.7	155	

* P<0.05

** P<0.01

*** P<0.001

	매우도움	약간도움	잘모름	별로안됨	도움안됨	교육안받음	(사례수)	χ^2
전 체	9.5	29.3	29.8	14.9	13.7	2.9	1162	
성 별								
남 자	9.0	22.4	32.0	12.9	18.4	5.3	581	66.25***
여 자	10.0	36.1	27.5	16.9	9.0	0.4	581	
교 급								
중 학 교	11.6	28.5	35.4	12.5	10.6	1.4	576	39.69***
고등학교	7.3	30.0	24.2	17.2	16.7	4.4	586	
계 열								
인문계	6.3	31.6	19.4	19.7	19.1	3.9	304	12.32*
실업계	8.5	28.4	29.4	14.5	14.2	5.0	283	
공학여부								
공 학	10.7	30.0	31.7	13.5	12.6	1.6	577	13.60*
비공학	8.2	28.5	27.9	16.2	14.9	4.3	585	
생활수준								
상	9.9	27.2	24.6	19.8	15.9	2.6	232	13.35
중	8.4	30.7	30.3	13.9	13.8	2.9	654	
하	12.1	27.2	32.8	13.2	11.7	3.0	265	
가족구조								
동 거	9.6	29.2	30.2	14.7	13.7	2.7	1124	12.41*
비동거	5.4	32.4	16.2	21.6	13.5	10.8	37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9.6	29.2	30.2	14.7	13.7	2.7	1124	12.41**
비동거	5.4	32.4	16.2	21.6	13.5	10.8	37	
아버지와의 대화								
하는편	10.3	31.0	28.6	15.9	11.6	2.6	716	15.95**
안하는편	6.2	25.8	29.8	14.9	19.6	3.6	275	
어머니와의 대화								
하는편	9.2	29.3	29.1	15.9	13.8	2.7	904	2.60
안하는편	9.8	30.5	29.3	11.0	14.6	4.9	82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1-9〉

성에 대한 관심정도

(단위 : %)

	대단히많다	많다	그저그렇다	거의없다	전혀없다	(사례수)	χ^2
전 체	9.5	24.8	53.4	9.6	2.8	1162	
성 별							
남 자	15.8	33.8	43.8	4.8	1.7	582	140.39***
여 자	3.1	15.7	63.1	14.3	3.8	580	
교 급							
중 학 교	8.3	21.6	54.0	12.3	3.8	578	19.94***
고등학교	10.6	27.9	52.9	6.8	1.7	584	
공학여부							
공 학	8.6	21.6	54.6	11.7	3.5	579	13.73**
비공학	10.3	28.0	52.3	7.4	2.1	583	
학업성적							
상	12.0	28.3	48.9	7.7	3.0	233	13.83
중	7.1	24.2	56.0	10.4	2.3	652	
하	12.5	23.4	51.7	9.1	3.4	265	
흡연 경험							
없 다	7.8	24.1	54.4	10.6	3.0	957	32.42***
있 다	18.1	29.0	48.7	3.6	.5	193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8.0	23.5	54.6	10.6	3.3	885	24.03***
있 다	14.2	29.5	50.4	5.6	.4	268	

* P<0.05

** P<0.01

*** P<0.001

(단위 : %)

	항상느낌	자주느낌	가끔느낌	느끼지않음	(사례수)	χ^2
전 체	4.2	14.8	58.3	22.6	1159	
성 별						
남 자	8.0	25.5	59.6	6.8	584	260.59***
여 자	0.3	4.0	57.0	38.6	575	
교 급						
중 학 교	2.6	10.6	58.9	27.9	574	34.64***
고등학교	5.8	19.0	57.8	17.4	585	
계 열						
인문계	8.6	18.8	57.8	14.9	303	10.71*
실업계	2.8	19.1	57.8	20.2	282	
공학여부						
공 학	5.0	12.5	57.3	25.2	576	9.54*
비공학	3.4	17.2	59.3	20.1	583	
학업성적						
상	6.5	20.4	53.5	19.6	230	18.31**
중	2.9	12.3	60.1	24.7	651	
하	4.9	16.2	59.0	19.9	266	
출연 경험						
없 다	3.8	12.2	60.0	24.1	954	42.64***
있 다	6.8	28.6	51.0	13.5	192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2.8	12.2	60.1	24.9	879	47.29***
있 다	8.5	23.7	54.1	13.7	270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1-11〉

욕구해소방법

(단위 : %)

	성적 총동 느낀적 없다	운동 음악 감상	자위 행위	공부	직접 성경험	전화등 간접 성경험	기타	(사례수)	χ^2
전 체	26.0	35.4	16.6	4.0	2.0	2.0	13.9	1123	
성 별									
남 자	9.2	35.3	31.0	3.2	3.7	3.0	14.5	564	288.79***
여 자	42.9	35.6	2.0	4.8	.4	1.1	13.2	559	
교 급									
중 학 교	31.9	37.9	10.0	4.1	.7	2.1	13.3	562	56.41***
고등학교	20.1	33.0	23.2	3.9	3.4	2.0	14.4	561	
계 열									
인문계	19.9	32.8	25.0	5.7	2.7	2.4	11.5	296	11.40
실업계	20.4	33.2	21.1	1.9	4.2	1.5	17.7	265	
공학여부									
공 학	28.1	37.2	13.1	3.2	2.0	1.1	15.4	559	19.80**
비공학	23.9	33.7	20.0	4.8	2.1	3.0	12.4	564	

* P<0.05

** P<0.01

*** P<0.001

	이성친구 와함께 있을때	성관계에 대한애기 들을때	우연히이 성과물이 닿을때	실제포옹 장면을 볼때	소설, 잡지 볼 때	그림, 사진 볼 때	영화, TV 볼 때	그런 적이 없다.	(사례수)	χ^2
전 체	8.0	11.8	4.9	5.7	6.7	3.8	33.6	25.4	1124	
성 별										
남 자	10.2	15.4	7.9	4.4	6.5	5.8	36.8	13.0	570	130.12***
여 자	5.8	8.1	1.8	7.0	6.9	1.8	30.3	38.3	554	
교 급										
중 학 교	5.4	15.1	4.3	6.3	5.0	3.2	29.5	31.1	556	45.70***
고등학교	10.6	8.6	5.5	5.1	8.3	4.4	37.7	19.9	568	
계 열										
인문계	8.8	8.1	5.7	6.1	8.8	3.4	41.8	17.5	297	9.55
실업계	12.5	9.2	5.2	4.1	7.7	5.5	33.2	22.5	271	
공학여부										
공 학	7.9	12.8	3.1	5.4	5.4	4.0	32.9	28.6	556	15.78*
비공학	8.1	10.9	6.7	6.0	7.9	3.7	34.3	22.4	568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1-13〉

성묘사 매체에 대한 느낌

(단위 : %)

	좋았음	유익했음	느낌없음	혐오감느낌	본대로행동	(사례수)	χ^2
	하고싶음						
전 체	19.0	7.7	49.7	14.3	9.2	1143	
성 별							
남 자	30.1	12.7	37.9	4.5	14.8	575	263.18***
여 자	7.7	2.6	61.6	24.5	3.5	568	
교 급							
중 학 교	20.2	5.8	51.0	15.8	7.2	569	12.91*
고등학교	17.8	9.6	48.4	13.1	11.1	574	
계 열							
인문계	16.7	9.0	43.3	18.3	12.7	300	18.67***
실업계	19.0	10.2	54.0	7.3	9.5	274	
공학여부							
공 학	17.6	7.7	52.2	15.1	7.4	569	7.00
비공학	20.4	7.7	47.2	13.8	11.0	574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20.7	7.9	50.4	12.5	8.4	367	10.01
그저그렇다	18.4	9.7	48.4	14.0	9.4	413	
반대하는편	17.2	5.1	50.6	17.2	9.9	354	
흡연 경험							
없 다	18.7	6.5	49.9	16.3	8.6	942	30.08***
있 다	21.5	14.1	46.1	5.2	13.2	191	
흡연 경험							
없 다	19.0	6.2	50.2	16.7	7.9	870	31.72***
있 다	19.9	12.8	46.8	7.2	13.6	265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1-14〉

성관련 질문에 대한 부모의 태도

(단위 : %)

	질문안함	친절히 설명	대답을 회피	화를냄	기타	(사례수)	χ^2
전 체	75.8	14.6	6.2	1.7	1.6	1155	
성 별							
남 자	80.7	8.8	6.9	1.6	2.1	579	33.48***
여 자	71.0	20.5	5.6	1.9	1.0	576	
교 급							
중 학 교	71.7	17.9	6.4	2.4	1.6	576	14.20**
고등학교	80.0	11.4	6.0	1.0	1.6	579	
공학여부							
공 학	70.8	19.3	6.6	1.7	1.6	575	21.21***
비공학	80.9	10.0	5.9	1.7	1.6	580	
생활수준							
상	66.7	22.8	5.7	3.3	1.6	123	14.68
중	76.6	14.2	6.0	1.6	1.7	961	
하	80.9	7.4	10.3	1.5		68	
가족구조							
정상가족	75.4	14.9	6.5	1.5	1.7	999	5.21
결손가족	79.5	11.9	4.6	3.3	.7	151	
부모님의교제찬반							
찬성하는편	71.7	21.5	4.6	0.5	2.2	367	38.24***
그저그렇다	81.5	10.5	6.4	1.0	0.7	421	
반대하는편	74.4	12.4	7.9	3.4	2.0	355	

* P<0.05

** P<0.01

*** P<0.001

	많이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사례수)	χ^2
전 체	11.0	59.3	29.7	1162	
성 별					
남 자	14.1	54.5	31.4	582	15.79***
여 자	7.9	64.1	27.9	580	
교 급					
중 학 교	8.7	55.7	35.6	578	22.05***
고등학교	13.4	62.8	23.8	584	
계 열					
인문계	1.29	63.7	23.4	303	.22
실업계	13.9	61.9	24.2	281	
공학여부					
공 학	11.2	54.7	34.0	579	11.37***
비공학	10.8	63.8	25.4	583	
학업성적					
상	10.8	61.6	27.6	232	15.61**
중	8.7	58.5	32.8	653	
하	16.2	60.2	23.7	266	
아르바이트경험					
없 다	8.4	58.4	33.2	856	33.68***
있 다	18.5	61.4	20.1	303	
흡연경험					
없 다	7.9	59.6	32.5	957	64.39***
있 다	26.4	57.5	16.1	193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7.8	58.7	33.5	883	53.32***
있 다	21.5	61.1	17.4	270	

* P<0.05

** P<0.01

*** P<0.001

(단위 : %)

	많이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사례수)	χ^2
전 체	5.5	42.6	51.9	1154	
성 별					
남 자	8.4	46.3	45.3	574	30.93***
여 자	2.6	39.0	58.4	580	
교 급					
중 학 교	3.9	33.5	62.7	571	53.06***
고등학교	65.1	51.5	41.3	583	
계 열					
인문계	7.3	55.8	37.0	303	5.07
실업계	6.8	47.1	46.1	280	
공학여부					
공 학	5.9	36.4	57.7	574	18.12***
비공학	5.0	48.8	46.2	580	
학업성적					
상	6.5	45.0	48.5	232	7.68
중	4.0	41.5	54.5	648	
하	7.6	43.7	48.7	263	
아르바이트경험					
없 다	4.1	39.6	56.3	848	30.09***
있 다	9.3	51.3	39.4	302	
출연경험					
없 다	3.7	40.1	56.2	949	66.54***
있 다	14.6	56.3	29.2	192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3.4	37.7	58.9	876	88.96***
있 다	12.3	59.3	28.4	268	

* P<0.05

** P<0.01

*** P<0.001

(단위 : %)

	많이안다	조금안다	모른다	(사례수)	χ^2
전 체	18.8	48.2	33.0	1165	
성 별					
남 자	17.3	56.4	28.4	584	17.58***
여 자	20.3	42.2	37.5	581	
교 급					
중 학 교	18.4	40.2	41.4	580	40.49***
고등학교	19.1	56.2	24.6	585	
계 열					
인문계	15.1	60.5	24.3	304	7.41*
실업계	23.5	51.6	24.9	281	
공학여부					
공 학	17.7	45.4	36.9	582	8.34*
비공학	19.9	51.1	29.0	583	
학업성적					
상	19.0	52.8	28.1	231	4.06
중	18.8	47.8	33.4	655	
하	18.0	45.7	36.3	267	
아르바이트경험					
없 다	19.3	46.1	34.7	857	6.68*
있 다	17.1	54.6	28.3	304	
흡연경험					
없 다	19.5	45.3	35.2	958	20.41***
있 다	14.9	62.9	22.2	194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19.9	42.8	37.3	885	44.97***
있 다	15.2	65.6	19.3	270	

* P<0.05

** P<0.01

*** P<0.001

	손잡기	포옹하기	입맞춤	성관계	(사례수)	χ^2
전 체	37.1	21.6	32.9	8.4	1121	
성 별						
남 자	27.8	20.7	38.0	13.5	561	71.00***
여 자	46.4	22.5	27.9	3.2	560	
교 급						
중 학 교	44.0	25.0	24.4	6.6	557	48.23***
고등학교	30.3	18.3	41.3	10.1	564	
계 열						
인문계	34.3	20.5	34.7	10.4	297	11.88**
실업계	25.8	15.7	48.7	9.7	267	
공학여부						
공 학	36.2	22.2	33.3	8.2	558	.54
비공학	38.0	21.0	32.5	8.5	563	
생활수준						
상	43.5	19.4	25.8	11.3	124	13.16*
중	36.7	22.2	33.6	7.5	937	
하	29.3	17.2	36.2	17.2	58	
부모와의동거여부						
동 거	37.4	21.7	32.7	8.1	1082	4.48
비동거	26.3	18.4	39.5	15.8	38	
부모와의교제찬반						
찬성하는편	33.4	22.8	36.0	7.9	356	4.87
그저그렇다	38.2	19.9	32.8	9.1	408	
반대하는편	39.5	22.2	30.5	7.8	347	

	손잡기	포옹하기	입맞춤	성관계	(사례수)	χ^2
학업성적						
상	36.2	25.8	28.5	9.5	221	23.25***
중	40.3	22.0	31.0	6.6	632	
하	29.2	17.9	40.9	12.1	257	
아르바이트경험						
없 다	42.3	22.6	28.6	6.4	822	58.74***
있 다	22.0	18.6	45.4	13.9	295	
흡연 경험						
없 다	42.3	23.5	28.3	6.0	920	131.85***
있 다	10.1	12.2	56.9	20.7	188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43.7	24.2	26.1	5.8	855	144.28***
있 다	13.3	13.3	56.3	17.2	256	
				* P<0.05	** P<0.01	*** P<0.001

	추함	자연스러움	쾌락	생각안함	(사례수)	χ^2
전 체	8.4	62.5	8.9	20.2	1164	
성 별						
남 자	3.6	66.5	14.7	15.2	585	93.84***
여 자	13.3	58.4	3.1	25.2	579	
교 급						
중 학 교	10.2	56.1	6.4	27.3	579	48.78***
고등학교	6.7	68.7	11.5	13.2	585	
계 열						
인문계	6.9	71.0	11.6	10.6	303	3.76
실업계	6.4	66.3	11.3	16.0	282	
공학여부						
공 학	9.3	61.1	7.2	22.4	581	7.92*
비공학	7.5	63.8	10.6	18.0	583	
부모의교제찬반						
찬성하는편	7.8	70.1	7.5	14.6	371	15.66**
그저그렇다	7.5	60.5	9.9	22.1	425	
반대하는편	9.8	57.9	9.3	23.0	356	
학업 성적						
상	9.9	62.2	10.7	17.2	233	3.68
중	7.6	63.2	8.2	20.9	655	
하	9.1	61.7	9.1	20.1	264	
출연 경험						
없 다	9.6	60.0	8.5	21.9	958	29.54***
있 다	2.6	75.6	11.9	9.8	193	
유혹업소 출입경험						
없 다	9.4	59.9	7.5	23.3	885	41.20***
있 다	5.2	72.5	13.8	8.6	269	

* P<0.05

** P<0.01

*** P<0.001

(단위 : %)

	남녀모두 지켜야됨	결혼상대 자면가능	남자만 지켜야됨	여자만 지켜야됨	순결을 따지지않음	순결 의미 모름	(사례수)	χ^2
전 체	47.3	20.2	.2	4.9	9.9	7.5	1147	
성 별								
남 자	37.2	28.7	.2	8.9	18.1	7.0	575	105.70***
여 자	57.5	11.7	.2	.9	21.7	8.0	572	
교 급								
중 학 교	51.5	17.2		3.9	17.0	10.5	571	32.38***
고등학교	43.2	23.3	.3	5.9	22.7	4.5	576	
계 열								
인문계	43.2	24.6		4.0	22.3	5.3	301	7.18
실업계	43.3	21.8	.7	8.0	23.3	3.6	275	
공학여부								
공 학	45.4	18.9		3.5	22.6	9.5	570	18.36**
비공학	49.2	21.5	.3	6.2	17.2	5.5	577	
출연경험								
없 다	53.5	18.6	.2	3.5	16.0	8.2	944	123.17***
있 다	16.3	30.0		12.1	37.9	3.7	190	
유형업소 출입경험								
없 다	53.3	18.0	.2	3.1	16.9	8.4	870	86.51***
있 다	27.0	28.1		10.9	29.6	4.5	267	

* P<0.05

** P<0.01

*** P<0.001

2. 이성교제 경험

〈부록표 2-1〉

미팅이나 소개팅 경험여부

(단위 : %)

	없다	1-2번	3-5번	6번이상	(사례수)	χ^2
전 체	55.1	21.5	10.9	12.6	1146	
성 별						
남 자	51.8	20.7	12.4	15.1	571	10.56***
여 자	58.3	22.3	9.4	10.1	575	
교 급						
중학교	73.4	15.2	6.6	4.7	572	165.75***
고등학교	36.8	27.7	15.2	20.4	574	
계 열						
인문계	41.3	29.0	13.0	16.7	300	10.15*
실업계	31.8	27.7	15.2	20.4	274	
공학여부						
공 학	64.9	17.5	8.4	9.2	573	45.60***
비공학	45.2	25.5	13.4	15.9	573	
생활수준						
상	68.8	17.6	7.2	6.4	125	13.79*
중	52.6	21.7	11.4	14.3	958	
하	57.4	22.1	10.3	10.3	68	

	없다	1-2번	3-5번	6번이상	(사례수)	χ^2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48.4	22.0	13.9	15.8	368	16.75*
그저그렇다	61.0	19.1	7.9	12.0	418	
반대하는편	53.1	23.3	11.5	12.1	356	
한달 용돈						
1만원 이상	74.5	16.4	6.4	2.7	110	175.82***
1-2만원	72.2	16.5	5.9	5.5	237	
2-3만원	55.8	24.0	11.5	8.8	217	
3-4만원	46.9	27.1	12.1	14.0	207	
4-5만원	37.8	21.1	18.9	22.2	90	
5만원이상	26.1	23.3	17.0	33.5	176	
부정기적	68.4	17.9	6.0	7.7	117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64.1	19.5	8.6	7.9	852	146.50***
있 다	27.5	26.5	17.4	28.5	298	
흡연 경험						
없 다	61.8	21.2	9.9	7.1	952	230.83***
있 다	16.4	22.8	16.4	44.4	189	
유형업소 출입경험						
없 다	65.5	21.3	7.6	5.6	878	293.73***
있 다	17.3	22.2	16.4	38.7	266	
* P<0.05 ** P<0.01 *** P<0.001						

	없	다	있	다	(사례수)	χ^2
전 체	49.8		50.2		1168	
성 별						
남 자	46.0		54.0		585	6.93**
여 자	53.7		46.3		583	
교 급						
중 학 교	63.3		36.7		580	83.33***
고등학교	36.6		63.4		588	
계 열						
인문계	49.0		51.0		304	42.05***
실업계	23.2		76.8		284	
공학여부						
공 학	54.2		45.8		583	8.91**
비공학	45.5		54.5		585	
생활수준						
상	56.7		43.3		127	2.82
중	49.1		50.9		970	
하	47.1		52.9		68	
가족구조						
정상가족	49.8		50.2		1009	.01
결손가족	49.4		50.6		154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50.2		49.8		1129	2.63
비동거	36.8		63.2		38	

	없	다	있	다	(사례수)	χ^2
아버지와의 대화						
하는 편	51.2		48.8		722	2.04
안하는편	46.2		53.8		275	
어머니와의 대화						
하는 편	50.6		49.4		908	2.43
안하는편	41.7		58.3		84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42.5		57.5		372	17.34***
그저그렇다	57.0		43.0		426	
반대하는편	48.0		52.0		358	
학업 성적						
상	57.1		42.9		233	17.89***
중	51.6		48.4		655	
하	39.2		60.8		268	
한달 용돈						
1만원 미만	62.5		37.5		112	94.71***
1-2만원	63.1		36.9		241	
2-3만원	49.5		50.5		218	
3-4만원	49.3		50.7		209	
4-5만원	44.0		56.0		91	
5만원 이상	19.9		80.1		176	
부정기적	61.2		38.8		121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59.5		40.5		859	122.36***
있 다	22.6		77.4		305	
흡연 경험						
없 다	56.9		43.1		962	129.90***
있 다	11.9		88.1		193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59.0		41.0		888	140.81***
있 다	17.8		82.2		270	

* $P < 0.05$

** $P < 0.01$

*** $P < 0.001$

	원하지않는다	원한다	(사례수)	χ^2
전 체	44.2	55.8	570	
성 별				
남 자	40.0	60.0	260	3.44
여 자	47.7	52.3	310	
교 급				
중 학 교	46.7	53.3	360	2.39
고등학교	40.0	60.0	210	
계 열				
인문계	44.2	55.8	147	3.63
실업계	30.2	69.8	63	
공학여부				
공 학	43.4	56.6	311	.18
비공학	45.2	54.8	259	
생활수준				
상	60.0	40.0	70	8.14*
중	41.8	58.2	466	
하	43.8	56.3	32	
가족구조				
정상가족	42.7	57.3	490	3.40
결손가족	53.9	46.1	76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43.5	56.5	556	3.40
비동거	69.2	30.8	13	

	원하지않는다	원한다	(사례수)	χ^2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33.5	66.5	155	9.22**
그저그렇다	46.4	53.6	237	
반대하는편	49.1	50.9	169	
학업 성적				
상	41.4	58.6	133	3.62
중	42.6	57.4	329	
하	52.4	47.6	103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44.5	55.5	501	.04
있 다	43.3	56.7	67	
흡연 경험				
없 다	44.6	55.4	538	4.75*
있 다	20.0	80.0	20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45.4	54.6	515	9.07**
있 다	22.2	77.8	45	
* P<0.05 ** P<0.01 *** P<0.001				

	알고계심	알고 계실 것 같음	모르심	(사례수)	χ^2
전 체	50.7	24.9	24.4	582	
성 별					
남 자	53.8	23.9	22.3	314	2.85
여 자	47.0	26.1	26.9	268	
교 급					
중 학 교	51.4	20.8	27.8	212	3.96
고등학교	50.3	27.3	22.4	370	
계 열					
인문계	53.5	25.2	21.3	155	1.17
실업계	47.9	28.8	23.3	215	
공학여부					
공 학	51.7	21.1	27.2	265	4.42
비공학	49.8	28.1	22.1	317	
생활수준					
상	50.9	25.5	23.6	55	2.88
중	50.6	24.3	25.1	490	
하	52.8	33.3	13.9	36	
가족구조					
정상가족	50.2	26.0	23.8	504	2.37
결손가족	53.2	18.2	28.6	77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51.2	24.9	24.0	559	1.70
비동거	39.1	26.1	34.8	23	

	알고계심	알고 계실 것 같음	모르심	(사례수)	χ^2
아버지와의대화					
하 는 편	54.0	24.3	21.7	350	7.20*
안하는편	40.9	30.2	28.9	149	
어머니와의 대화					
하 는 편	51.0	25.4	23.6	449	2.40
안하는편	39.6	33.3	27.1	48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70.9	18.3	10.8	213	81.24***
그저그렇다	45.3	33.1	21.5	181	
반대하는편	32.4	24.9	42.7	185	
흡연 경험					
없 다	49.5	25.0	25.5	412	.96
있 다	53.3	24.9	21.9	169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49.9	23.0	27.1	361	4.48
있 다	52.0	28.1	19.9	221	
			* P<0.05	** P<0.01	*** P<0.001

	학업에지장증	영향주지않음	더욱열심히공부	(사례수)	χ^2
전 체	22.7	64.4	12.9	582	
성 별					
남 자	20.4	65.9	13.7	314	2.17
여 자	25.4	62.7	11.9	268	
교 급					
중 학 교	18.5	66.8	14.7	211	3.70
고등학교	25.1	63.1	11.9	371	
계 열					
인문계	27.3	60.4	12.3	154	.86
실업계	23.5	65.0	11.5	217	
공학여부					
공 학	20.8	65.3	14.0	265	1.29
비공학	24.3	63.7	12.0	317	
생활수준					
상	12.7	69.1	18.2	55	10.36*
중	23.1	63.7	13.3	490	
하	33.3	66.7		36	
가족구조					
정상가족	22.7	64.4	12.9	503	.03
결손가족	21.8	65.4	12.8	78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22.9	64.7	12.4	558	3.39
비동거	16.7	58.3	25.0	24	

	학업에지장줄	영향주지않음	더욱열심히공부	(사례수)	χ^2
아버지와의 대화					
하는 편	23.2	64.1	12.7	370	.19
안하는 편	22.0	66.0	11.9	159	
어머니와의 대화					
하는 편	22.4	65.0	12.6	491	.33
안하는 편	23.5	61.8	14.7	68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17.4	67.6	15.0	213	11.93*
그저그렇다	21.4	69.2	9.3	182	
반대하는편	29.3	56.5	14.1	184	
학업 성적					
상	24.2	58.6	17.2	99	5.17
중	20.7	65.6	13.7	314	
하	25.8	65.0	9.2	163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24.1	62.6	13.3	345	1.59
있 다	20.4	67.7	11.9	235	
흡연 경험					
없 다	23.1	63.6	13.3	412	.42
있 다	21.9	66.3	11.8	169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20.8	64.3	15.0	361	4.69
있 다	25.8	64.7	9.5	221	

* P<0.05 ** P<0.01 *** P<0.001

(단위 : %)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전 체	39.2		60.8		574	
성 별						
남 자	46.4		53.6		308	14.58***
여 자	30.8		69.2		266	
교 급						
중 학 교	54.4		45.6		206	31.03***
고등학교	30.8		69.3		368	
계 열						
인문계	39.9		60.1		153	10.33*
실업계	24.2		75.8		215	
공학여부						
공 학	42.5		57.5		259	2.12
비공학	36.5		63.5		315	
생활수준						
상	55.8		44.2		52	7.82*
중	38.3		61.7		486	
하	28.6		71.4		35	
학업성적						
상	48.0		52.0		98	9.91**
중	41.7		58.3		309	
하	29.8		70.2		161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한달 용돈						
1만원 이상	66.7		33.3		42	46.84***
1-2만원	57.5		42.5		87	
2-3만원	46.2		53.8		106	
3-4만원	34.3		65.7		105	
4-5만원	34.0		66.0		50	
5만원 이상	22.6		77.4		137	
부정기적	29.8		70.2		47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47.2		52.8		341	23.33***
있 다	27.2		72.8		232	
흡연 경험						
없 다	47.5		52.5		404	40.90***
있 다	18.9		81.1		169	
유홍업소 출입경험						
없 다	50.6		49.4		354	50.07***
있 다	20.9		79.1		220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2-7〉

이성과 동성 친구 중 더 좋은 친구

(단위 : %)

	이성친구	동성친구	비슷하다	경우에따라 다르다	(사례수)	χ^2
전 체	34.8	30.1	20.7	14.5	581	
성 별						
남 자	35.8	30.0	20.1	14.1	313	.37
여 자	33.6	30.2	21.3	14.9	268	
교 급						
중 학 교	40.5	31.0	17.6	11.0	210	7.42
고등학교	31.5	29.6	22.4	16.4	371	
계 열						
인문계	35.1	28.6	24.0	12.3	154	4.16
실업계	29.0	30.4	21.1	19.4	217	
공학여부						
공 학	34.7	30.9	18.9	15.5	265	1.21
비공학	34.8	29.4	22.2	13.6	316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2-8〉

현재 사귀는 이성친구 유무

(단위 : %)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전 체	73.6	26.4	1162	
성 별				
남 자	73.7	26.3	581	.01
여 자	73.4	26.6	580	
교 급				
중 학 교	80.6	19.4	577	29.16***
고등학교	66.6	33.4	584	
계 열				
인 문 계	74.4	25.6	301	17.03***
실 업 계	58.3	41.7	283	
공학여부				
공 학	77.1	22.9	581	7.50**
비공학	70.0	30.0	580	
생활수준				
상	77.2	22.8	127	3.58
중	73.6	26.4	963	
하	64.7	35.3	68	
가족구조				
정상가족	73.5	26.5	1001	.00
결손가족	73.5	26.5	155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73.8	26.2	1122	1.21
비동거	65.8	34.2	38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67.3		32.7		370	15.93***
그저그렇다	79.7		20.3		424	
반대하는편	72.4		27.6		355	
학업성적						
상	77.7		22.3		229	14.94***
중	75.7		24.3		653	
하	64.4		35.6		267	
한달 용돈						
1만원 미만	56.4		43.6		39	8.93
1-2만원	54.5		45.5		88	
2-3만원	51.4		48.6		109	
3-4만원	46.2		53.8		106	
4-5만원	46.8		53.2		47	
5만원 이상	41.8		58.2		141	
부정기적	34.0		66.0		47	
아르바이트경험						
없 다	80.3		19.7		856	77.85***
있 다	54.2		45.8		301	
흡연 경험						
없 다	79.0		21.0		956	95.36***
있 다	44.8		55.2		192	
유종업소 출입경험						
없 다	79.7		20.3		882	78.48***
있 다	52.4		47.6		269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2-9〉

교제대상

(단위 : %)

	중학생	고등학생	재학생	대학생	기타	(사례수)	χ^2
전 체	32.8	58.2	1.7	3.3	4.0	299	
교 급							
중 학 교	84.4	13.8	1.8			109	210.33***
고등학교	3.2	83.7	1.6	5.3	6.3	190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2-10〉

데이트비용

(단위 : %)

	쓰지않음	1만원미만	1만원이상	(사례수)	χ^2
전 체	31.0	16.4	13.4	298	
성 별					
남 자	17.4	26.2	22.1	149	57.85***
여 자	46.3	6.7	4.7	149	
교 급					
중 학 교	43.9	6.5	12.1	107	17.90**
고등학교	25.1	22.0	14.1	191	
계 열					
인문계	17.1	35.6	47.4	76	8.33
실업계	30.4	40.9	28.7	115	
공학여부					
공 학	34.6	31.6	23.8	130	4.92
비공학	29.8	35.7	34.5	168	
생활수준					
상	14.8	14.8	33.3	27	18.05*
중	31.9	16.5	11.6	249	
하	54.5	18.2	9.1	22	
한달 용돈					
1만원 이상	29.4	35.3	35.3	17	30.21*
1-2만원	44.7	34.2	21.1	38	
2-3만원	40.0	46.0	14.0	50	
3-4만원	29.1	47.3	23.6	55	
4-5만원	25.0	37.5	37.5	24	
5만원 이상	19.0	32.1	48.8	84	
부정기적	46.7	30.0	23.3	30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32.7	16.7	11.7	162	1.86
있 다	30.9	16.2	15.4	136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2-11〉

선물비용

(단위 : %)

	쓰지않음	1만원미만	1만원이상	(사례수)	χ^2
전 체	25.8	30.4	43.8	299	
성 별					
남 자	26.5	30.5	43.0	151	.11
여 자	25.0	30.4	44.6	148	
교 급					
중 학 교	22.2	37.0	40.7	108	3.60
고등학교	27.7	26.7	45.5	191	
계 열					
인문계	23.4	32.5	44.2	77	2.55
실업계	30.7	22.8	46.5	114	
공학여부					
공 학	26.6	30.5	43.0	128	.09
비공학	25.1	30.4	44.4	171	
생활수준					
상	17.9	39.3	42.9	28	5.44
중	25.9	28.3	45.7	247	
하	33.3	41.7	25.0	24	
한달 용돈					
1만원 이상	47.1	23.5	29.4	17	
1-2만원	31.6	39.5	28.9	38	
2-3만원	19.2	46.2	34.6	52	
3-4만원	18.2	32.7	49.1	55	22.74*
4-5만원	34.8	13.0	52.2	23	
5만원 이상	25.0	21.4	53.6	84	
부정기적	26.7	30.3	43.3	30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25.6	32.3	42.1	164	.68
있 다	25.9	28.1	45.9	135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2-12〉

친밀도

(단위 : %)

	가벼운 대화 나누기	이해하고 비밀털어 놓기	손잡거나 팔짱끼기	입맞춤 이나 포옹하기	성관계	(사례수)	χ^2
전 체	27.7	19.6	23.6	21.3	7.8	296	
성 별							
남 자	25.0	18.8	17.4	25.0	13.9	144	20.86***
여 자	30.3	20.4	29.6	17.8	2.0	152	
교 급							
중 학 교	35.5	22.7	25.5	11.8	4.5	110	14.63**
고등학교	23.1	17.7	22.6	26.9	9.7	186	
계 열							
인문계	31.1	16.2	24.3	20.3	8.1	74	6.01
실업계	17.9	18.8	21.4	31.3	10.7	112	
공학여부							
공 학	28.3	17.3	22.8	20.5	11.0	127	3.78
비공학	27.2	21.3	24.23	21.9	5.3	169	
생활수준							
상	17.2	34.5	27.6	10.3	10.3	29	10.45
중	28.3	17.0	23.9	23.1	7.7	247	
하	35.0	30.0	15.0	15.0	5.0	20	
가족구조							
정상가족	29.0	19.7	23.2	21.6	6.6	259	5.67
결손가족	19.4	16.7	27.8	19.4	16.7	36	

	가벼운 대화 나누기	이해하고 비밀털어 놓기	손잡거나 팔짹끼기	입맞춤 이나 포옹하기	성관계	(사례수)	χ^2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27.5	19.7	23.9	21.8	7.0	284	6.22
비동거	33.3	16.7	16.7	8.3	25.0	12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24.1	19.0	25.9	24.1	6.9	116	8.18
그저그렇다	25.6	24.4	17.1	24.4	8.5	82	
반대하는편	34.0	16.5	26.8	15.5	7.2	97	
학업성적							
상	29.8	17.0	27.7	19.1	6.4	47	6.52
중	30.8	22.4	21.2	19.2	6.4	156	
하	22.0	16.5	25.3	25.3	11.0	91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38.3	16.7	26.5	12.3	6.2	162	31.87***
있 다	14.9	23.1	20.1	32.1	9.7	134	
흡연 경험							
없 다	35.5	23.4	23.4	14.2	3.6	197	44.61***
있 다	12.2	12.1	24.2	35.4	16.2	99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37.7	21.7	24.6	12.0	4.0	175	41.79***
있 다	13.2	16.5	22.3	34.7	13.2	121	

* P<0.05

** P<0.01

*** P<0.001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전 체	78.2		21.4		1169	
성 별						
남 자	75.9		24.1		585	4.49***
여 자	81.0		19.0		584	
교 급						
중 학 교	88.0		12.0		581	61.76***
고등학교	69.0		31.0		588	
계 열						
인문계	80.5		19.5		303	38.55***
실업계	56.8		43.2		285	
공학여부						
공 학	79.9		20.1		583	1.52
비공학	77.0		23.0		586	
생활수준						
상	83.5		16.5		127	4.38
중	78.4		21.6		972	
하	70.6		29.4		68	
가족구조						
정상가족	78.9		21.1		1010	1.02
결손가족	75.3		24.7		154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78.5		21.5		1130	.10
비동거	76.3		23.7		38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76.4		23.6		373	3.48
그저그렇다	81.4		18.6		425	
반대하는편	77.2		22.8		359	
학업성적						
상	83.3		16.7		233	25.22***
중	81.3		18.7		657	
하	67.5		32.5		268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86.3		13.7		859	117.96***
있 다	56.5		43.5		306	
흡연 경험						
없 다	86.9		13.1		962	254.61***
있 다	35.1		64.9		194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87.0		13.0		889	169.54***
있 다	49.6		50.4		270	
* P<0.05 ** P<0.01 *** P<0.001						

〈부록표 2-14〉

성관계 경험유무

(단위 : %)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전 체	92.5		7.5		1170	
성 별						
남 자	88.7		11.3		586	23.63***
여 자	96.2		3.8		584	
교 급						
중 학 교	97.1		2.9		581	35.04***
고등학교	87.9		12.1		589	
계 열						
인문계	91.4		8.6		304	7.27**
실업계	84.2		15.8		285	
공학여부						
공 학	92.8		7.2		585	.20
비공학	92.1		7.9		155	
가족구조						
정상가족	92.9		7.1		1010	1.96
결손가족	89.7		10.3		155	
부모와의 동거여부						
동 거	92.8		7.2		1131	6.70**
비동거	81.6		18.4		38	

	있	다	없	다	(사례수)	χ^2
부모의 교제찬반						
찬성하는편	92.0		8.0		373	3.50
그저그렇다	91.3		8.7		427	
반대하는편	84.8		15.2		269	
학업성적						
상	95.7		4.3		232	29.57***
중	94.4		5.6		657	
하	84.8		15.2		269	
아르바이트 경험						
없 다	95.8		4.2		861	53.45***
있 다	83.0		17.0		305	
흡연 경험						
없 다	97.2		2.8		964	189.87***
있 다	68.4		31.6		193	
유흥업소 출입경험						
없 다	96.7		3.3		890	102.15***
있 다	78.1		21.9		270	
* P<0.05 ** P<0.01 *** P<0.001						